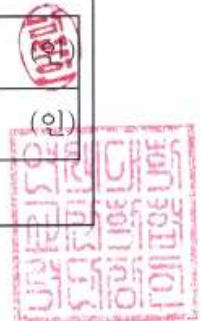


『4단계 BK21사업』 미래인재양성사업(인문사회분야)

교육연구단 자체평가보고서

접수번호	4199990314429						
사업 분야	사회과학	신청분야	사회/인류/사회복지	단위	전국	구분	교육연구단
학술연구분야 분류코드	구분	관련분야		관련분야		관련분야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일반	사회복지학	기타 사회복지학		
	비중(%)	70		30			
교육연구단명	국문)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과 협력 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양성 사업단						
	영문) Social welfare education for the fair and inclusive society; Cultivating innovative, cooperative, and integrated experts						
교육연구단장	소 속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직 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장				
	성명	국문	남석인	전화		[REDACTED]	
				팩스			
		영문	Nam Seok In	이동전화		[REDACTED]	
				E-mail		[REDACTED]	
연차별 총 사업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19~2020)	2차년도 (2021~2022)	3차년도 (2023~2024)			
	국고지원금	214	427	432			
총 사업기간		2020.9.1.-2027.8.31.(84개월)					
자체평가 대상기간		2021.9.1.-2022.8.31.(12개월)					
본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4단계 BK21』 사업 관련 법령, 귀 재단과의 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체평가보고서 및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작성자	교육연구단장				남 석 인		
확인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김 지 현 (인)		



〈자체평가 보고서 요약문〉

중심어	사회복지	포용사회	혁신인재 양성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함	국제적 협력
	융합적 역량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	통합형 미래사회복지 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 달성정도	■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은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과 협력 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양성’에 있음. 본 교육연구단은 한국이 ‘공정한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앞장서는 ‘혁신과 협력’ 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지난 1년간 본 교육연구단이 달성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목표 1.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해결에 기여하는 교육·연구·실천 역량 강화 ○ 성과1. 사회문제 해결 강화를 위한 연구·교육 과정 구축 - 다중세부전공 Open Platform 구축 - 본 사업단이 추구하는 4대 가치 (BK 4단계의 공정, 포용, 혁신, 협력)를 함축적으로 적용하는 교육과정으로 개편 ○ 성과2.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에 대한 지원 및 확대 - 연구수행 능력 증진 위한 통계방법론 워크숍 개최 (하계/동계 연 2회) - 대학원생 간 공동연구 과제 지원 ○ 성과3. 성장 잠재력을 가진 학문후속세대의 발굴과 양성 - 학부-대학원 유연화 프로그램 운영 - 학문후속세대 협력 프로그램 운영 □ 목표 2. 융합적 역량을 갖춘 사회문제 해결 혁신인재 양성 ○ 성과1. 융복합 교과목 신설 및 확대 - 학제간 융합 커리큘럼 개발 - 교내 고등교육 혁신원의 지원의 사회문제 해결형 교과목 확대 ○ 성과2. 융복합 연구 지원 확대 - 혁신 융합적 연구를 확대·강화 (과학기술과 사회복지, 생명공학과 사회복지 등의 융합 연구 수행) ○ 성과3. 창의적 사회복지문제 해결 모형의 개발 - 연구의 창의성·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연구프로젝트 비용 지원 (학위논문 및 공동연구 지원) - 타 학문 분야의 교수 혹은 연구자의 논문지도 장려 (사회과, 경제학과, 교육학과 등) □ 목표 3. 산학협력 강화와 국내외 복지 격차 해소 기여 ○ 성과1. 산학협력 시너지 창출을 통한 문제해결 생태계 조성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학문후속세대 및 현장과의 협력 ○ 성과2. 국제공동 교육 및 연구확대 - 국제공동 교육 및 연구확대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Social Work (이하 UMSSW)와 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사회복지 교육체계 확립 □ 목표 4.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함을 모두가 경험하는 사회복지 교육 ○ 성과1. 연구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윤리교육 강화 - 사업단 소속 대학원 내 자체 연구윤리 교과목 개설과 참여대학원생 수강 의무화 ○ 성과2. 대학원생 상담서비스 제공 및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 대학원생의 권익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위기 학생을 돕는 교내 상담시스템 구축 ○ 성과3. 대학원생 모두를 포용하는 장학금 혜택 확대 - 자체 대응자금 투입하여 비참여 대학원생 장학금 및 학술 활동 지원
교육역량 영역 성과	■ 본 사업단은 지속적인 BK 사업의 지원으로 국제적인 역량의 창의인재를 배출하는 성공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옴. 4단계에서는 한국사회가 추구하는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융합적 혁신인재를 양성하고자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였음 ○ 성과 1. 비전추진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커리큘럼 개편과 추진 - 다중세부전공 Open Platform 구축: 다양한 세부전공 선택으로 자율융합 가능 - 세부전공 별 공정, 포용, 혁신, 협력의 가치를 담고 커리큘럼 개편 -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구조 구축 (연구지도 + 연구지원사업 → 연구성과) ○ 성과 2. 신 사회문제에 선응적 대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외부 전문가 특별강의 개설: 참여대학원생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섭외 - 모든 교수진이 참여하는 팀티칭 강의 (벤치마킹 UMSSW의 교수진 참여) - 현장 이해 증진과 실질적 사회문제 해결형 수업의 강화 ○ 성과 3. 교육연구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 대학원 자체 장학기금을 통한 우수 인재확보와 비참여 대학원생 지원 - 전용공간의 확보와 지속적 공간개선 작업으로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 논문 인센티브 및 영어논문 지원 - 다양한 학제 편성: 학·석사 연계 시스템과 UT 세미나 - 입시전형 설명회 개최 (매 학기마다 진행) + 주요 언론매체에 입학전형 홍보 ○ 성과 4. 참여대학원생의 취업 우수성 - 본 사업 참여이력 졸업자의 높은 취업률 달성(2022년 2월 졸업자 기준 100%) - 취업자들의 질적 우수성: 사회문제의 선응적 대응을 위한 포용적 인재 및 혁신적 인재, 사회문제해결형 사회복지전문가, 이론과 실전을 가교하는 혁신인재 배출 ○ 성과 5.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의 우수성 -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을 연구주제로 혁신적인 연구를 선도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업적 달성 (지난 1년간 국내논문 40편, 국제저명학술논문 3편 게재) - 국내외 학회에서 학문 간의 소통과 지식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결과 달성 (지난 1년간 국내학술대회 1건과 국제학술대회 17건 발표) ○ 성과 6. 신진연구인력의 우수성 - 뛰어난 연구의 실적과 더불어 참여대학원생 대상의 특강, 포럼 진행, 멘토링 등을 통한 교육과 다양한 연구사업 참여로 사회에 기여하는 등의 다채로운 역할 담당 ○ 성과 7.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우수성 - 참여학생의 전공이론과 실천 지식을 함양을 위한 전문영역의 특화된 과목 기획과 제공 - 공정, 포용, 혁신, 협력 비전 추진을 위해 새롭게 개편한 커리큘럼에 기반
연구역량 영역 성과	■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하여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기존 계획 대비 주요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성과 1.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연구 지원 및 확대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교수의 연구논문 발표 및 저서 발간 (지난 1년간 국내논문 51편, 국제저명학술논문 16편 게재, 저서 2권) - 사회적 위기 상황인 코로나 19가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사회 협력적인 해결방안 제시

	○ 성과 2. 연구역량을 키우는 교육 - 전체 연구과정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바람직한 연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운영 - 대학원생의 연구수행 능력 강화 위한 통계방법론 워크숍 개최 (연 2회) ○ 성과 3. 융복합 연구 지원 확대 - 다양한 학문분야의 교수 혹은 연구자의 학위논문지도 장려 및 진행 - 참여교수의 융합적 연구 확대·강화 (정신의학/보건학/심리학/의학 - 사회복지학과의 융합) ○ 성과 4. 창의적 사회복지문제 해결 모형의 개발 - 학생이 주도하는 대학원생 연구프로젝트 비용 지원 (학위논문 및 공동연구 지원: 산정기간 내 총 5명의 학위논문 작성자에게 1,360천원 지원) - 대학원생 간 공동연구 장려 및 지원 (2022-1학기 과제 3건 진행중, 1건 완료) ○ 성과 5. 산학협력 시너지 창출을 통한 문제해결 생태계 조성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학문후속세대 및 현장과의 협력 (어깨동무사업) - 정부 연구 및 다양한 산업체 연구 수주 (지난 1년간 정부연구비 총 658,589천원, 산업체 연구비 총 7,918천원 수주) ○ 성과 6. 국제공동연구 확대 - 국외 연구진 및 연구기관들과 공동연구 (예시: 미국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 미국 료올라 대학교, 영국 킹스칼리지, 미국 미시간 대학교, 미국 포덤 대학교, 미국 와이오밍대학교, 벨기에 KU르우벤 대학교, 대만국립대학교, 리투아니아 국립 빌뉴스대학 의과대학교, 캐나다 원저대학교,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등)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과 본 교육연구단의 주최로 5개국(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이 참여한 국제학술대회(Global Social Work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for a Fair and Inclusive Society)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2022년 5월 13일 ~ 16일) ○ 성과 7. 연구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윤리교육과 인권보장 강화 - 사업단 소속 대학원 내 자체 연구윤리 교과목 개설과 참여대학원생 수강 의무 및 미참여 대학원생 수강 장려 -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의 교내 폭력예방교육 의무 수강과 이수증 마련 - 대학원생 상담서비스 제공 및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과 전용공간 마련(상담실, 학생휴게실 등)
미흡한 부분 / 문제점 제시	■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하여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기존 계획 대비 주요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UMSSW와의 공동연구 제한과 대안 - 예산집행 등의 행정의 제한으로 인해 UMSSW와의 공동연구 진행 지연 ○ 참여대학원생의 국제 연구실적 장려 필요 - 작년대비 학술대회 발표는 증가하였으나 국제학술논문 실적 미비 ○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지원과 연구주도 기회 부족 - 사업단 내 교육·연구의 주도적 기회 부족 - 우수 연구성과 달성을 위한 지원사업 부족 ○ 참여대학원생의 혁신적 융합연구 접근성 제한 - 최근 융합연구의 동향과 방법론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부족 ○ 참여교수의 정년퇴임과 외국인 전임교수의 계약만료로 인한 다중세부전공 일부제한 - 다중세부전공 프로그램에서 ‘사회복지정책·사회보험’과 ‘Criminal Justice & Correctional Social Service’ 영역의 교수진 퇴임으로 해당 다중세부전공 프로그램 추진 제한

차년도
추진계획

- 본 사업단은 지난 1년간 4단계 계획을 근거로 체계적으로 교육·연구 관련 시스템 개편을 진행해옴. 차년도에는 이 기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요소를 관리하고 증진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나가고자 함
- 계획 1. 4대 비전 기반 현 교육과정의 지속적 점검과 커리큘럼의 안정적 운용
 - 4대 비전인 공정, 포용, 혁신, 협력을 반영한 교육제도 개선과 매 학기 개편안 기준 주제를 담은 커리큘럼 적용과 안정적 운용
- 계획 2. 참여대학원생 공동연구와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활성화
 - 프로그램 지원기준을 수정 적용하여 다수가 혜택받도록 홍보와 피드백 과정 강화
 - 참여대학원생의 다양한 진로개발 욕구충족을 위한 졸업생 현장 전문가 멘토풀 마련
- 계획 3. UMSSW와의 연구협력 기반 마련
 - 공동연구 수립전 공동학술대회와 특강, 논문공동집필 등의 기반 마련
- 계획 4. 참여대학원생 취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마련
 - 참여대학원생 잡 인터뷰를 대비한 리허설 기회 마련과 전문가의 피드백 교정 제공
- 계획 5. 신진연구인력의 연구권 강화와 역량강화 기회 제공
 - 대학원혁신지원사업(어깨동무사업)에서의 주도적 역할 부여와 교육·연구역량 증진 기회부여
 - 교육연구단의 기존 사업 범위를 확장하여 활용 기회를 부여
- 계획 6. 혁신적 융합연구 세미나 개최
 - 융복합 주제의 연구 세미나 시리즈 개최 예정 (2022년 하반기 세미나 개최를 목표로 준비: 의학, 공학, 체육학, 간호학, 사회복지학을 포용)
- 계획 7. 신입교원 및 강사 채용으로 다중세부전공 시스템 정비
 - 현재 부재한 2개의 세부전공 영역을 Additional Special Areas로 개편하고 추후 임용되는 신입교원 및 강사의 전공에 따라 다중세부전공 시스템의 재정비 예정

1. 교육연구단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성 명	한 글	남석인	남석인	Seok In Nam
소 속 기 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남석인 교수는 노인복지, 의료사회복지 영역의 전문적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연구, 봉사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음. 교육 및 연구 측면에서는 국제저명학술지에 최신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연구성과에 기반한 사례중심의 토론식 수업은 혁신적 교육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교육과 연구는 사회적 실천을 위함이라는 철학에 기반하여 교내외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교내에서는 사회복지연구소장, 사회복지학과장으로 재임중이며,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연세라이프아카데미센터장, 창의적 학생활동을 위한 고등교육혁신원 혁신활동센터장을 역임하며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해 왔음. 대외적으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과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자문위원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 왔음. 또한, 한국노인복지학회 연구윤리위원장과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연구윤리 강화에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음. 다수 사회복지 실천기관의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를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워크숍과 슈퍼비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실천현장에서 의뢰하는 위기사례에 대해 직접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육과 연구활동을 통한 성과가 사회복지 현장으로 이어지는 길을 모색해 왔으며, 우리 사회가 봉착한 불공정성과 배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음

○ 연구역량

- 노인복지, 의료사회복지 영역에서 주요 연구성과를 국제저명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발표함. 해외학자들과 연구 중심의 교류를 통해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날 범국가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을 혁신적 사고로 제시하고 있음
- 노인복지 영역은 삶의 의미에 대한 천착으로 측정도구, 집단상담 프로그램, 스마트 기기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음. 새롭게 개발된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한 국제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노인복지 실천현장에 도입되어 효과성이 검증되고 있음. 애플리케이션 역시 건강문제를 겪고 있는 위기 노인의 삶의 의미 증진을 위해 활용되고 있음. 의료사회복지 영역의 직무분석 연구성과는 의료사회복지사 직무 재편의 국제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
- 국책 연구로 포항공과대학교 인간공학연구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언어병리팀과 함께 “노인 삼킴 기능과 관련된 삶의 의미 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를 5년 동안 진행해 오고 있음. 연구성과가 인정되어 프로젝트가 매년 연장되고 있으며, 기술 및 보건 영역과의 융합 연구를 기반으로 노인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교육역량

- 교육을 통한 실천역량 강화에 주목하여 노년학 관련 학문간 융합방법론, 철학적 관점에 입각한 연구와 실천,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등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직접 진행한 연구와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구체적 연구 활용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
- ‘연세대학교 우수강의교수상’을 2014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5년 연속 수상하였으며, 2019년에는 5년 연속 우수강의교수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최우수강의상’

2.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달성정도

- 본 교육연구단은 한국이 ‘공정한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앞장서는 ‘혁신과 협력’ 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지님

교육연구단의 비전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과 협력 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 양성

한국사회복지의 한계와 도전

불공정이 만연한 사회

배제된 집단과 사각지대

비전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과 협력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목표 1.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교육·연구·실천역량 강화

1. 사회문제 해결 강화를 위한 연구·교육 과정 운영
2. 사회문제 해결 참여형 실습 교육 강화
3.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에 대한 지원 및 확대
4. 성장 잠재력을 가진 학문후속세대의 발굴과 양성

목표 2.

융합적 역량을 갖춘
사회문제 해결 혁신 인재 양성

1. 융복합 교과목 신설 및 확대
2. 융복합 연구 지원 확대
3. 창의적 사회복지문제 해결 모형의 개발과 신고용 영역 개척

목표 3.

산학협력 강화와
국내외 복지 격차 해소 기여

1. 산학협력 시너지 창출을 통한 문제해결 생태계 조성
2. 글로벌 복지공동체를 위한 제3세계 복지 전문 인력 양성
3. 국제공동 교육 및 연구 확대

목표 4.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함을
모두가 경험하는 사회복지 교육

1. 학생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교과과정의 지속적 개편
2. 연구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윤리교육 강화
3. 대학원생 상담서비스 제공 및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4. 대학원생 모두를 포용하는 장학금 혜택 확대

【교육연구단의 목표와 달성정도】

- 본 교육연구단은 한국이 ‘공정한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앞장서는 ‘혁신과 협력’ 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지난 1년간 본 교육연구단이 달성해온 노력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목표 별 대표성과 >

목표	성과
목표 1.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해결에 기여하는 교육·연구·실천 역량 강화	성과1. 사회문제 해결 강화를 위한 연구·교육 과정 구축 - 다중세부전공 Open Platform 구축 - 본 사업단이 추구하는 4대 가치(BK 4단계의 공정, 포용, 혁신, 협력)를 함축적으로 적용하는 교육과정으로 개편
	성과2.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에 대한 지원 및 확대 - 연구수행 능력 증진 위한 통계방법론 워크숍 개최 (하계/동계 연 2회) - 대학원생 간 공동연구 과제 지원
	성과3. 성장 잠재력을 가진 학문후속세대의 발굴과 양성 - 학부-대학원 유연화 프로그램 운영 - 학문후속세대 협력 프로그램 운영
목표 2. 융합적 역량을 갖춘 사회문제 해결 혁신인재 양성	성과1. 융복합 교과목 신설 및 확대 - 학제간 융합 커리큘럼 개발 - 교내 고등교육 혁신원의 지원의 사회문제 해결형 교과목 확대
	성과2. 융복합 연구 지원 확대 - 혁신 융합적 연구를 확대·강화 (정신의학/보건학/심리학/의학 - 사회복지학과의 융합)
	성과3. 창의적 사회복지문제 해결 모형의 개발 - 연구의 창의성·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연구프로젝트 비용 지원 (학위논문 및 공동연구 지원) - 타 학문 분야의 교수 혹은 연구자의 논문지도 장려 (사회과, 경제학과, 교육학과 등)
목표 3. 산학협력 강화와 국내외 복지 격차 해소 기여	성과1. 산학협력 시너지 창출을 통한 문제해결 생태계 조성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학문후속세대 및 현장과의 협력(예시: 어깨동무 산업)
	성과2. 국제공동 교육 및 연구확대 - 국제공동 교육 및 연구확대 (UMSSW와 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사회복지 교육체계 확립)
목표 4.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함을 모두가 경험하는 사회복지 교육	성과1. 연구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윤리교육 강화 - 사업단 소속 대학원 내 자체 연구윤리 교과목 개설과 참여대학원생 수강 의무화
	성과2. 대학원생 상담서비스 제공 및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 대학원생의 권익 보호 및 강화를 위해 위기 학생을 돕는 교내외 상담시스템 구축
	성과3. 대학원생 모두를 포용하는 장학금 혜택 확대 - 자체 대응자금 투입하여 비참여 대학원생 장학금 및 학술 활동 지원

【대표성과 세부내용】

목표 1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교육·연구·실천 역량 강화

○ 성과1. 사회문제 해결 강화를 위한 연구·교육 과정 구축

다중세부전공 Open Platform 구축

- 본 교육연구단은 대학원생이 한국 사회문제에 대한 포괄적, 통합적, 균형적 관점을 견지할 수 있도록 다중세부전공 Open Platform을 구축해 왔음. 10개의 세부전공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교수가 사업단에 참여하여, 한국의 취약계층과 사회문제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구과정을 구성하였음
- 세부전공 분야는 다음의 10개 분야임

< 세부전공 분야 >	
1) Philanthropy · 비영리조직 및 사회적기업	6) 장애인복지 · 취약계층복지
2) 가족청소년복지 · 군사회복지	7) 정신보건 · 의료사회복지
3) 사회복지정책 · 사회보험	8) 노동과 산업복지
4) 여성복지 · 다문화 · 빈곤	9) 사회복지조직관리 · 기획 · 평가
5) 노인복지와 세대공존	10) Criminal Justice & Correctional Social Service

본 사업단이 추구하는 4대 가치(BK 4단계의 공정, 포용, 혁신, 협력)를 함축적으로 적용하는 교육과정으로 개편

- 한국의 다양한 취약계층과 사회문제를 포괄하고 BK 4단계의 공정, 포용, 혁신, 협력의 4대 가치를 함축적으로 적용하고자 지난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교육과정을 전면 수정하여,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전면 개편된 커리큘럼을 적용해오고 있음
- 본 교육연구단은 전문대학원의 강점을 살려 사회의 욕구와 문제를 반영한 신규 교과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교육역량 영역-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에서 제시하였음)

○ 성과2.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에 대한 지원 및 확대

- 연구수행 능력 증진 위한 통계방법론 워크숍 개최 (하계/동계 연 2회)

- 4단계에서는 대학원생의 연구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욕구 조사 결과에 기반한 통계방법론 워크숍을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함. 새로운 사회환경의 조성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문제를 탐색하고 다양한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유용하고 적절한 연구방법으로 워크숍을 설계하였음. 또한 2022년 동계에는 본 사업단의 3단계 BK지원으로 양성된 후속연구세대(김준표 교수, 이현 교수, 이희정 교수, 정규형 교수, 채주석 박사)를 특강자로 섭외하여 실용적인 통계분석방법을 교육하고 더불어 학업 및 진로설계 등의 주제로 선배-후배 참여학생 간의 협력적 교류의 장을 마련함. 2022년 하계에는 대학원생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이전 진행된 특강

의 녹화본을 활용하고 추가 실시간 특강자와의 대화를 실시하는 유형과 질적 연구방법과 연구윤리에 대한 추가 욕구를 반영한 특강으로 이루어짐. 모든 특강 주제와 내용은 대학원생들에게 사전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기획되었음. 아래는 개최된 워크숍의 개요임

1. 2022 동계 사회복지조사연구 특강

: “연구 기초 역량 함양을 위한 SPSS와 Process Macro의 활용”

! 일시 ! 2022년 2월 16일 (수) - 2월 18일 (금) 오전 10:00~13:00

! 장소 ! ZOOM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진행

! 주최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BK21 Four 교육연구단

! 강사 !

김준표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SPSS와 Process Macro를 활용한 회귀분석의 이해 회귀분석의 이해

- 로지스틱회귀분석 실습, 이중·다중 매개 효과) 실습

정규형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SPSS의 이해 I - SPSS 프로그램 소개 변수 세팅 및 실습

: SPSS의 이해 II -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 등 기초통계 실습

*** 모든 특강 주제와 내용은 대학원생들에게 사전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기획함**

2. 2022 하계 사회복지조사연구 특강

: “연구 기초 역량 함양을 위한 양·질 연구방법과 연구윤리”

! 일시 ! 2022년 8월 22일 (월) - 8월 24일 (수), 8월 26일(금)

오전: 09:00~13:00, 오후: 13:00~17:00

! 장소 ! ZOOM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진행

! 주최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BK21 Four 교육연구단

! 강사 !

김준표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Process Macro를 활용한 회귀분석 기초

정규형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SPSS 기초 I & II

이해미 (연세대학교 연구처 연구윤리센터 전문위원)

: 사회과학연구와 IRB

이 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교수)

: R을 활용한 LCA 잠재계층모형 분석

이희정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근거이론의 이해와 실천

채주석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연구원)

: 측정도구의 개발: 혼합연구방법의 적용

*** 모든 특강 주제와 내용은 대학원생들에게 사전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기획함**

*** 김준표, 정규형, 이현, 채주석 박사의 특강은 이전 특강의 녹화본을 활용하고 추가 실시간 특강자와의 대화를 실시하는 형태로 이뤄짐**

- 대학원생 간 공동연구 과제 지원

- 대학원생 간의 협력이 필요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동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였음. 2022-1학기에 ‘2030 자발적 비혼 여성의 무망감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관한 탐색적 문헌 연구’,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한 사회적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 20~30대 미혼 여성 유방암 생존자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의 과제 4건을 신청받아 진행중임. 이후에도 대학원생 간의 협력이 필요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동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할 예정
- 공동연구 과정에서 실질적인 연구 피드백과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연구진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본 대학원의 운영세칙에 아래와 같이 상술하였음

제 12조(대학원생 간 공동연구 지원) ① 대학원생 간의 협력이 필요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동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② 공동연구 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1. 연구 계획서
2. 연구 계획서를 기초로 한 연구 논문
3. 발표 자료

③ 매 학기 1회의 학술발표회를 진행하여 연구 결과 보고를 대신한다.

④ 교육연구단의 평가 후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⑤ 평가 항목은 다음의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전체 항목의 합계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논문의 독창성/주제의 중요성(20), 연구방법론과 내용의 심층도(20), 논문의 조직 및 구성(20), 선행연구에 대한 이해도(20), 논증과정의 타당성(20)

⑥ 지원금액: 팀당 50만원 이내로서 연구 논문과 발표 내용에 근거해 발표비 명목으로 지급한다.

⑦ 평가 점수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다음의 6개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 A (90점 이상): 50만원, B (80점 이상 90점 미만): 45만원, C (70점 이상 80점 미만): 40만원, D (60점 이상 70점 미만): 35만원, E (50점 이상 60점 미만): 30만원, F (50점 미만): 지원제한 또는 불가

○ 성과3. 성장 잠재력을 가진 학문후속세대의 발굴과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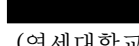
학부-대학원 유연화 프로그램 운영

- 학·석사 연계 시스템 도입하여 연구역량이 우수한 학부생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사회복지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본 대학의 성적 우수 학부생이 대학원 수업 수강을 희망할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됨
- 2022년 2학기에 본 프로그램을 통해 홍이준 학생 1명이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는 송현주 학생 1명이 본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음

학문후속세대 협력 프로그램 운영

- 졸업생-재학생 간 멘토링 지원

- 학업 및 취업 등 상담 및 진로개발을 위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졸업생과 현 BK 사업단 참여 학생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음. 희망하는 경우 멘티의 연구 및 현장의 관심사에 따라 적합한 멘토를 매칭해 주었고 그들의 멘토링 활동에 예산을 지원하였음. 그결과 참여대학원생의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이해 확대, 선후배 간 유대관계 강화를 도모할 수 있었음. 아래는 대표적인 멘토링 활동의 예시임

학기	연번	멘티	멘토	멘토링 목표 및 내용
2021-2학기	1	이은형 (석사 4학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원)	■ 정신보건 수련 및 취업 관련 멘토링 프로그램 계획 ○1주차 : DSM-5 주요질환에 대한 이해 및 개입방안 ○2주차 :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정의 및 패러다임 ○3주차 :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실천 현장에 대하여 ○4주차 : 정신건강 예방 및 치료 ○5주차 :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6주차 : 정신보건 수련 면접 지원서 작성 및 피드백 ○7주차 : 정신보건 수련 시험 및 면접 예행연습 멘토링 프로그램은 주 1회 약 2개월에 걸쳐 진행했으며, 정신보건 수련 준비에 요구되는 지식 전달, 학습법 안내와 실천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론 및 실천기술에 대한 학습을 위주로 진행하였음
	2	박은지 (석사 3학기)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SPSS STATA 멘토와 멘티가 함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 프로그램 멘토링을 진행 - 기초 통계 방법론을 공부하는 것과 심화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학위논문 작성법,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3	윤성민 (석사 2학기)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BK21 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	1.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므로 멘토에게 연구에 대한 도움이나 조언을 구함으로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성장시키고자 함 2.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알 수 없었던 학교의 정보나 조언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멘토를 통해 구하므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고자 함 3.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므로 학교에서의 선-후배 간 유대관계를 강화하고자 함
	4	마상훈 (석사 3학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연구원)	학문적으로는 전문적 연구역량을 증진하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삶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학업과 취업 관련동기부여 향상 및 부족한 개인적 역량증진에 노력하고자 함. 이를 위해 멘토와 함께 학업과 취업 관련 연계 및 실천적 적용을 위한 수퍼비전과 기타 사항들을 진행하고자 함
2022-1학기	1	송현주 (석사 1학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연구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 후 현재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멘토의 이야기를 듣고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조언을 받고자 함
	2	한상윤 (박사 4학기)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BK21 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	1. 취업상담 및 진로개발 : 사회복지 연구현장에 대한 취업 상담 및 진로 정보 공유 2. 연구에 대한 이해 확대 : 논문 작성 등 연구를 돕기 위한 지원 및 멘토링 3. 선후배 간 유대관계 강화 : 선후배 간 공통 관심 분야 연구 및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

- 학문후속세대가 학부생을 지도하는 UT 세미나(Undergraduate Tutorial Seminar) 신설 및 확대
- 학문후속세대인 박사 및 박사과정의 선배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최근의 경향과 지식을 교육하고, Tutor의 입장에서 진로 설계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과목을 개설하였음. 실적 산정기간을 기준으로 2021-2학기 4과목, 2022-1학기 6과목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연도	과목명	강의자
2021-2	한국의 NGO와 국제협력사회복지	안진호
	온라인설문조사와 코딩, 기초통계분석	유지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복지이슈 연구	한상윤
	마음으로 나누는 가족상담과 대화연습	황현주
	합계	4과목
2022-1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NGO와 국제사회복지	안진호
	영화로 이해하는 사회복지	양승민
	문헌검색과 논문통계표 읽기	유지은
	미디어로 보는 우리사회의 노인과 노인문제	최유나
	지표로 보는 사회복지 이슈	한상윤
	마음으로 나누는 가족상담과 대화연습	황현주
	합계	6과목

목표 2 융합적 역량을 갖춘 사회문제 해결 혁신인재 양성

○ 성과1. 융복합 교과목 신설 및 확대

학제간 융합 커리큘럼 개발

- 외부 현장의 전문가와 교내외 학자들을 초빙하여 학제간 융합을 고려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음. 이영문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김승욱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연구교수, 손원익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채주석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연구원, 박선원 사회복지법인 미션 이사장 등을 초빙하여 참여대학원생에게 현장과 타 학문의 새로운 견문을 넓히고자 하였음. 실적 산정기간을 기준으로 2021-2학기 5과목, 2022-1학기 3과목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연도	과목명	강의자
2021-2	BK21 foundation II (사회문제론)	김승욱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연구교수)
	사회복지와 재정정책	손원익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영화와 정신건강 담론	이영문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고연령근로자와 노동시장	채주석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연구원)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실제	박선원 (사회복지법인 미션 이사장)
	합계	5과목

2022-1	정신치료와 커뮤니티상담	이영문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실제	박선원 (사회복지법인 미션 이사장)
	비영리조직관리와 사회복지	손원익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합계	3과목

교내 고등교육 혁신원의 지원의 사회문제 해결형 교과목 확대

-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창의성 및 사회혁신 역량 개발을 함양하는 사회혁신 역량 교과목 개발
 - 교내 고등교육혁신원의 융합교육 플랫폼과 인프라 지원으로 다양한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음. 실적 산정기간을 기준으로 2021-2학기 7과목, 2022-1학기 6과목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연도	과목명	강의자
2021-2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융합팀워크	송인한
	아동복지론	남보영
	지역사회복지론	강철희
	노인복지론	남석인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김정수, 남석인
	장애인복지론	박수경
	장애와 사회참여	박수경
	합계	7과목
2022-1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융합팀워크	송인한
	가족복지론	김재엽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김정수, 남석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남보영
	사회복지조사론	남석인
	뉴노멀 취약계층 세미나	박수경
	합계	6과목

○ 성과2. 융복합 연구 지원 확대

혁신 융합적 연구를 확대·강화 (과학기술과 사회복지, 생명공학과 사회복지 등의 융합 연구 수행)

- 장애인 대상 리빙랩 방식을 적용한 사용자 중심의 연구
 - 박수경 교수는 리빙랩 방식의 적용을 통해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사용자 중심의 문제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연구들을 진행하였음.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최첨단의 기술 (AI, Deep-Learning) 등을 장애인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융복합적 방안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로서, 전통적인 사회복지지원과 함께 ICT와 컴퓨터, 모바일 기기의 결합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개발·적용 중임

- 해외연구자들과의 다학제간 융복합 연구 진행

- 송인환 교수는 I-PACE (Interaction of Person-Affect-Cognition-Execution) model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게임 사용 장애와 부정적 아동기 경험 그리고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음. 또한, 저개발국가인 베트남, 에티오피아 국가 등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머니 및 아동의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성장의 관계에서 식량 안정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공정과 포용의 가치를 반영하였음. 참여 연구자들은 미국과 한국의 우수한 대학의 보건학, 사회복지학 등의 전문가로서 다학제적 관점에서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협력의 가치를 반영하였음

- 의생명사회과학적 융합 임상연구

- 김재엽 교수는 사회과학과 의생명과학의 학제 간 융합적 접근을 토대로 연예인의 정신건강의 문제를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를 진행함.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TSL-CEL (Thank, Sorry, Love-Celebrity)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의 사회복지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음. 연예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TSL-CEL 프로그램 개입이 실험집단 참여자의 ‘스트레스’와 신체 호르몬인 ‘코티졸 (Cortisol)’을 유의하게 감소함을 확인하였음. 본 연구는 TSL-CEL의 적용을 통해 근거기반실천 (Evidence-based practice)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연예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포용적인 고찰을 시도한 연구임

- 포용적인 사회 진입을 위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융복합 주제의 연구 세미나 계획

- 본 교육연구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융복합적인 연구 시도를 지속해서 시도하고자 함. 의학, 공학, 체육학, 간호학, 사회복지학을 포용할 수 있는 주제의 연구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지역사회 사회복지 지표에 대하여 융복합적으로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협력하여 모색하고자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현재 2022년 하반기 세미나 개최를 목표로 계획 중임

○ 성과3. 창의적 사회복지문제 해결 모형의 개발

연구의 창의성·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연구프로젝트 비용 지원 (학위논문 및 공동연구 지원)

- 연구의 창의성·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연구프로젝트 비용 지원

- 학위논문 작성 시 설문 조사 또는 인터뷰 조사 등의 자료수집비용 (박사 1인당 50만원, 석사 1인당 3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 산정기간 내 총 5명의 학위논문 작성자에게 1,360,000원이 지원되었음

타 학문 분야의 교수 혹은 연구자의 논문지도 장려 (사회과, 경제학과, 교육학과 등)

- 타 학문 분야의 교수 혹은 연구자의 논문지도 장려

- 융합적인 연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위논문 심사위원 중 1인을 타 학문 분야의 교수 혹은 연구자로 포함할 것을 장려하였음. 그 결과, 민인식(경희대 경제학과), 손원익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임진섭 (보건의료복지학과), 조미형 (협동조합 함께하는 연구), 이종화 (강남대학교 교양교수부), 이희중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선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다양한 영역의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을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초빙하여 참여대학원생의 융합적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목표 3

산학협력 강화와 국내의 복지 격차 해소 기여

○ 성과1. 산학협력 시너지 창출을 통한 문제해결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학문후속세대 및 현장과의 협력

- 어깨동무사업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지원사업 일환)

- 본 BK 사업단이 속해있는 연세대학교는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연세 연구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지역대학 우수연구자(팀)와의 공동연구사업인 『어깨동무사업』을 공고하였음. 신진연구인력을 중심으로 기획된 본 BK 사업단의 사업은 ‘민간 부문 노인일자리 사업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학문후속세대 3인의 교수(김준표, 경상대학교; 정규형, 세명대학교; 이중화, 강남대학교)와 함께 기획하였고 지난 1차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음. 그 결과, 우수연구과제로 선정되었음. BK 사업의 지원으로 성장한 신진연구인력과 학문후속세대 간의 협업이라는 점에서 본 사업단이 추구하는 협력의 예시이며 현재 다년도 과제로서 2차년도 과제를 진행 중임

○ 성과2. 국제공동 교육 및 연구확대

국제공동 교육 및 연구확대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Social Work와 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사회복지 교육체계 확립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Social Work (UMSSW) 교수진의 특강

- 2021년 2학기 현대사회복지세미나 II 수업을 통해 UMSSW의 총 2명의 교수진의 특강을 진행하였음. 2021년 10월 11일 약 3시간 동안 Joan K. Davitt 교수는 사회복지 거주시설 내 취약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포토보이스와 터치스크린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함. 2021년 11월 29일 약 2시간 동안 Caroline Long 교수는 재소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함. Caroline Long 교수는 특강을 시작하면서 사회복지계의 12가지 과제를 설명하면서 모든 유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건강 격차 해소, 가정폭력 방지, 장수, 노숙의 종결, 기후변화에 대한 창의적인 사회적 대비 등을 설명함
- 2022년 1학기 본 교육연구단 주관 국제학술대회 <Global Social Work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for a Fair and Inclusive Society>를 통해 UMSSW의 총 8명의 교수진이 7회의 연 구발표를 진행하였음. 2022년 5월 13일 Virginia Rowthorn 교수는 University of Maryland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간의 상호 교류 및 공동 연구의 필요성,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함. 2022년 5월 13일 약 1시간 동안 발표가 진행됨. Judy Postmus 교수는 COVID-19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공정과 포용 사회를 재구성함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함. 2022년 5월 13일 약 1시간 동안 발표가 진행됨. Corey Shdaimah 교수는 문화와 언어, 전문 분야를 넘어선 사회복지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함. 2022년 5월 13일 약 1시간 동안 발표가 진행됨. Karen Hopkins와 Megan Meyer 교수는 여성 리더십 학습의 영향과 조직에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함. 2022년 5월 16일 약 1시간 동안 발표가 진행됨. Joan Davit 교수는 사회복지 거주시설 내 취약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스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함. 2022년 5월 16일 약 1시간 동안 발표가 진행됨. Jodi Frey 교수는 자살 예방이 직장 보건과 안전 우선에 왜 중요한지를 시

작으로 직장 내 자살 예방에 대한 국가적 가이드라인, 직장 내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2-3가지 방법을 발표함. 2022년 5월 16일 약 1시간 동안 발표가 진행됨. Haksoon Ahn 교수는 가족참여가 아동 양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함

BK21 교육연구단 공동교육 및 연구교류

- 본교의 타 BK21 교육연구단 및 연구센터와의 교류 및 특강을 공동 기획
- 2022년 4월 4일 Cardiff University의 Rod Hick 교수가 “What is it and How should we Respond? Lessons from UK and International Studies” 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함. 국제적인 시각으로 근로빈곤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와 해결을 위한 이슈들을 공유하였음. 2022년 4월 25 일에는 University of Kent의 정희정 교수가 “The Flexibility Paradox: Why flexible working leads to more work and what we can do about that” 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함. 최근 성장하고 있는 유연근무제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다수의 직업창출과 사회전체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하였음

1. The Problem of In-work Poverty

: What is it and How should we Respond? Lessons from UK and International Studies

! 일시 ! 2022년 4월 4일 (월) AM 11:00

! 장소 ! ZOOM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진행

! 주최 !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BK21 Four 교육연구단

! 강사 !

Rod Hick 교수 (Cardiff University)

2. The Flexibility Paradox

: Why flexible working leads to more work and what we can do about that

! 일시 ! 2022년 4월 25일 (월)

! 장소 ! ZOOM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진행

! 주최 !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BK21 Four 교육연구단

! 강사 !

정희정 교수 (University of Kent)

목표 4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함을 모두가 경험하는 사회복지 교육

○ 성과1. 연구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윤리교육 강화

사업단 소속 대학원 내 자체 연구윤리 교과목 개설과 참여대학원생 수강 의무화

- 정직하고 공정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였음
 - 학위논문 작성자에게 연구윤리 교육을 의무화하여 졸업이 불가하도록 함. 또한 대학원생 학위논문의 경우 글로벌 수준의 윤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심위원회 (IRB) 심의 승인을 권장하고 있음
 - 2020년 2학기부터 본 대학원 공통교과목으로 『연구윤리』 온라인 교육 교과목을 개설하여 BK 사업시 참여대학원생에게 최소 1회 의무수강을 권하고 있음

○ 성과2. 대학원생 상담서비스 제공 및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대학원생의 권익 보호 및 강화를 위해 위기 학생을 돕는 교내외 상담시스템 구축

- 학교생활에 대한 어려움으로 휴학, 자퇴 등을 고려하거나 진로, 대인관계, 적응 및 정서문제, 가족관계, 이성문제 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학원생에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적절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자를 두고 상담연계에 필요한 최소의 정보만을 요구하였음
- 상담요청 학생이 희망하는 인력 pool과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공지

상담 인력	내 용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정신건강 전문가인 송인한 교수 (미국 LCSW)와 남성인 교수 (의료사회복지사)가 학생 정신건강 지원체계 지원
교내 심리상담소 연계	학습과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을 탐색하는 전문심리검사를 바탕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예방 교육 등이 이뤄짐

- 본 대학원 내 상담전용 공간 (학생상담실: 아펜젤러관 214호)을 마련하여 내담자의 심리적 안정과 비밀보장을 꾀하기로 하였음

○ 성과3. 대학원생 모두를 포용하는 장학금 혜택 확대

자체 대응자금 투입하여 비참여 대학원생 장학금 및 학술 활동 지원

- 자체 대응자금을 통한 장학금을 투입하여 비참여 대학원생 지원
 - 본 대학원에서는 자체대응자금으로 성적우수장학금, 근로장학금, 행정조교장학금, 연구조교장학금, 가계곤란 장학금 등을 개설하여 2021-2학기 총 194,100천원, 2022-1학기 총 175,900천원을 지급하였음
- 대학원 자체 대응자금을 활용하여 비참여 대학원생의 학술 활동 지원
 - 참여 학생과 비참여 대학원생의 학술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논문게재 시 동일한 인센티브 지급하고 있으며 2021-2학기 총 7,064천원, 2022-1학기 총 7,043천원을 지급하였음

- 참여 학생과 비참여 대학원생의 학술대회 참여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2021-2학기 총 1,468천원, 2022-1학기 총 1,239천원을 지급하였음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

○ 개별 학교 업적관리 시스템과 BK성과관리 시스템 연동

- 현재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연구성과취합 및 관리에 중복업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개별사업단의 성과중복 입력과 성과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 및 확장하여 BK21 사업 참여 교수 및 학생들의 성과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DB를 구축한다면 장기적인 사업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신진연구인력으로서 BK21 사업 참여시 건의사항

- 신진연구인력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지원사업이 추가되었으면 함. 예를 들어 BK 사업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이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연구지원사업이 마련되었으면 함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1.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계획

① 현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

- 본 대학원의 현행 교육과정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관련 필수과목과 사회복지학의 분야별 세부 전공 (전공심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대학원의 강점을 기반으로 유연하고 다양한 세부전공을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융합 가능하도록 선택 교과목 체계를 구축하였음
- 교과목의 구성은 전공공통기초, 전공공통필수, 전공공통선택, 그리고 다중세부전공으로 운영되는 전공기초, 전공심화로 구성되어 사회복지전문가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의 미시적 영역과 거시적 영역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본 대학원은 학생들이 사회복지 임상 및 실천의 미시적 분야와 사회복지 행정 및 정책의 거시적 분야 간의 통합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다중세부전공 (Double or Triple Specialization) 제도를 구축하고 있음.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음

※ 본 사업단 교과과정 운영 현황

(2022년 8월 기준)

구분	4단계 현재	
	내용	비고
전공공통기초	각 학위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수강이 요구되는 과목 *비전공자: 필수 이수 과목(졸업학점 포함) *전공자: 과목 이수 면제 가능(과목면제 시 졸업학점 불포함)	3과목 (9학점)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정책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전공공통필수	각 학위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강이 요구되는 과목	석사 4과목 (12학점) 통합 3과목 (9학점) 박사 2과목 (6학점)
전공공통선택	각 학위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수강이 요구되는 과목	필수 이수학점 없으나 졸업학점에 포함
전공제도	다중세부전공 (Double or Triple Specialization) 제도	
전공기초	다중세부전공에 따라 기본으로 수강이 요구되는 과목	2과목(6학점)
전공심화	전공별 개설된 과목	제1전공: 2과목 (6학점) 제2전공: 2과목 (6학점) 제3전공: 2과목 (6학점)
총 이수학점	석사/박사: 42학점/ 통합: 63학점	

< 세부 연구분야 >

1) Philanthropy · 비영리조직 및 사회적기업	2) 가족청소년복지 · 군사회복지
3) 사회복지정책 · 사회보험	4) 여성복지 · 다문화 · 빈곤
5) 노인복지와 세대공존	6) 장애인복지 · 취약계층복지
7) 정신보건 · 의료사회복지	8) 노동과 산업복지
9) 사회복지 조직관리 · 기획 · 평가	10) Criminal Justice & Correctional Social Service (Additional Special Areas)

- 세부 연구분야는 10개*로 지난 2019-2학기에 한국의 다양한 대상과 사회문제를 포함하고 BK 4단계의 공정, 포용, 혁신, 협력의 4대 가치를 함축적으로 적용하고자 분야명과 범위를 재편하였음. 이를 기반으로 전공 선택 시 생애주기적 사회적 위험을 기반으로 한 협력 및 융합적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권장하고 있음
- 세부 연구분야 중 Criminal Justice & Correctional Social Service를 담당하던 2022년 2월 기준으로 본 마이클 조지 교수가 퇴직함으로서 Additional Special Areas로 세부 연구분야를 확장하고 대체 가능한 전문가 및 연구자를 탐색중에 있음
- 10개의 세부전공분야는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도록 각 연구 분야와 연계되어 다양한 관점을 견지하면서 신 사회문제의 복합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창의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역량의 증진시켜줌. 본 사업단이 제시하는 ‘다중세부전공 Open Platform’은 예측 불가능한 신사회문제에 대처하는 참여 학생들의 전문가로서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중심의 전공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서 융합적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다중세부전공 제도를 활용하여 산정기간 내에서는 2022년 2월 학위수여 예정자 중 8명이 제3전공을 취득하였음

② 신청서 운영 계획 대비 실적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과 협력 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 양성으로 교육과정 구체화 및 확대

- 본 사업단은 현 4단계 BK21 사업에서 포용, 공정, 혁신, 협력의 4대 비전으로 교육과정을 구체화하고 확장해옴

○ 세부전공 별 공정, 포용, 혁신, 협력 비전추진에 적합한 커리큘럼 개편

- 본 사업단은 세부전공 별 공정, 포용, 혁신, 협력 비전 추진에 적합한 커리큘럼으로의 개편을 위해 4단계 진입부터 지속적으로 교수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커리큘럼을 계획했음. 이러한 교과과정 개편은 본 사업단이 BK21사업에 참여한 2, 3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것으로 전문대학원의 강점을 살려 사회의 욕구와 문제를 반영한 교과목을 확대해 왔음. 아래는 커리큘럼 개편안에 실제 개설된 과목을 표시한 것으로 계획 대비 진행도를 파악할 수 있음

공정, 포용, 혁신, 협력을 위한 커리큘럼 개편안과 실제 개설과목 * bold 표시: 개설된 과목(개설과정에서 약간의 교과목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연구분야	분류	전공기초 및 공통	BK21 전공심화			
			공정	포용	혁신	협력
강철희 (Philanthropy ·비영리조직및 사회적기업) * 보직과 연구년으로 인한 개설제한 존재	• 완료	• 비영리조직관 리와 사회복지 (2021-1학기)	• 사회적 기업과정신과 사회적 기업 (2020-2학기)	• 재단과 사회복지 (2021-2학기)	• 자선 및 비영리조직연구 세미나 (2020-2학기) • 비영리 조직과 자원개발: 모금 (2021-1학기) • 비영리 조직관리와 사회복지 (2021-1학기)	• 이타주의와 사회복지 (2021-2학기)
	• 예정		• 신사회위기와 비영리섹터	• 자선과 사회복지 • 신사회위기와 기업사회공헌	• 혁신과 비영리조직 및 사회서비스 • 비영리조직 마케팅	• 협력행동 이해: 사람과 조직
김재엽 (가족청소년 복지· 군사회복지) * 보직과 연구년으로 인한 개설제한 존재	• 완료	• 가족복지론 (2021-1학기, 2022-1학기) • 청소년복지론 (2020-2학기, 2021-2학기)	• 신가족위기와 부부치료 (2021-1학기)	• 포용적 가족복지와 가족치료 (2020-2학기) • 군사회복지윤리 와 상담 (2021-2학기)	• 신 가족위기와 혁신적 가족치료 (2022-1학기)	• 신 가족위기와 사회복지실천세 미나 (2020-2학기) • 신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가족복지적 접근 (2021-2학기)
	• 예정	• 사회복지윤리 와 철학	• 신가족위기와 청소년복지론 • 신가족위기와 가정폭력	• 신 가족복지와 사회통합	• 뇌생명사회적 패러다임의 신 가족복지 • 생명의학과 사회복지	• 신가족위기와 TSL 세미나

공정, 포용, 혁신, 협력을 위한 커리큘럼 개편안과 실제 개설과목 * bold 표시: 개설된 과목(개설과정에서 약간의 교과목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연구분야	분류	전공기초 및 공통	BK21 전공심화			
			공정	포용	혁신	협력
김진수 (사회복지정책·사회보험) * 2022년 2월 말로 퇴직 →추후 임용예정 교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과목 개설 예정	• 완료	• 사회보장론 (2020-2학기, 2022-1학기) • 사회복지법제 (2021-1학기, 2022-1학기)	• 사회보험제도 비교론 I & II (2020-2학기, 2021-1학기)	• 사회복지정책 세미나-장기요양제도 (2020-2학기)	• 사회보험제도 비교론 (2021-1학기)	
	• 예정	• 사회복지발달사	• 사회복지경제	•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보험 • 노후보장체계론 • 최저보장의 당위성과 기준 • 비정형 근로자의 차별 : 국제 비교	• 4 차 산업혁명에서의 노동 시장 • 신 빈곤과 사회보험 • 경제사회변화와 사회보장의 미래	• 건강보험제도 국제비교 • 복지국가 재편론 • 공적연금 개혁론 • EU의 사회 정책
남보영 (여성복지·다문화·빈곤)	• 완료	• 포용과 사회복지 (2020-2학기) • 사회복지조사론 (2021-1학기) • 사회복지자료 분석론 (2020-2학기)	• 여성의 사회참여와 일가정 양립 (2021-1학기)	• 포용과 사회복지 (2022-2학기)	• 젠더와 가족 (2022-1학기)	• 사회적배제연구세미나 (2021-1학기) • 여성복지세미나 (2020-1학기) • 다문화연구세미나 (2021-1학기)
	• 예정	• 자원봉사론	• 저출산과 여성 • 성평등과 여성정책	• 빈곤과 여성 • 사회적배제와 질적연구방법론 • 다문화이주민 포용과 사회통합	• 다문화이주민의 삶과 복지 • 4차 산업혁명과 여성복지	

공정, 포용, 혁신, 협력을 위한 커리큘럼 개편안과 실제 개설과목 * bold 표시: 개설된 과목(개설과정에서 약간의 교과목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연구분야	분류	전공기초 및 공통	BK21 전공심화			
			공정	포용	혁신	협력
남석인 (노인복지와 세대공존)	• 완료	• 노인복지론 (2021-1학기) • 질적연구방법론 (2020-2학기)	• 만성질환과 노년기불평등 (2021-2학기)	• 고령친화도시와 세대공존 (2020-2학기) • 지역사회와 노인위기관리 (2022-1학기)	• 노인융복합연구세미나 (2021-1학기)	• 노인집단상담 (2022-2학기)
	• 예정	•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초고령사회와 노년학 • 연령차별과 세대갈등	• 존엄한 노년의 삶과 사회참여	• 노인 삶의 의미와 철학 • 4차산업혁명과 노인복지의 미래	• 노인상담의 이론과실제 • 노인복지실천과 기관협력
박수경 (장애인복지·취약계층 복지)	• 완료	• 사회복지정책론 (2020-2학기)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020-2학기, 2021-1학기)	• 장애연구이론 세미나 (2021-1학기) • 장애와 고용 (2020-1학기)	• 뉴노멀시대의 취약계층 연구세미나 (2022-1학기) • 장애와 사회참여 (2021-2학기) • 근로빈곤층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복지 (2021-1학기) • 장애와 가족 (2022-2학기)	• 장애와 복지기술 (2020-2학기)	
	• 예정	• 장애인복지론	• 장애와 소득보장		• 장애인복지와 리빙랩 • 발달장애와 사회복지	• 장애인복지연구 세미나 • 4차산업혁명시대의 일과 사회복지

공정, 포용, 혁신, 협력을 위한 커리큘럼 개편안과 실제 개설과목 * bold 표시: 개설된 과목(개설과정에서 약간의 교과목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연구분야	분류	전공기초 및 공통	BK21 전공심화			
			공정	포용	혁신	협력
송인한 (정신보건 ·보건의료사회 복지)	• 완료	• 정신보건사회 복지론 (2021-1학기) • 사회복지실천 기술론 (2020-2학기) • 의료사회사업론 (2020-2학기)		• 건강·정신건 강 불평등 (2020-2학기)	• 융합연구방법론 (2021-1학기) • 지속가능사회 복지 (2021-2학기) • 융합연구방법론 (2022-1학기)	• 학제간연구방 법세미나 (2022-1학기)
	• 예정		• 건강과 사회복지 • 재난과 사회복지 • 한국사회의 정신건강 이슈	• 안전과 손상 관리 • 건강 및 정신건강 개별 연구지도	• 보건의료복지통 합세미나	• 첨단기술과 정신건강세미나 • 보건분야 사회과학자를 위한 글쓰기
최수찬 (노동과 산업복지)	• 완료	• 산업복지론 (2020-2학기) • 사회복지실천론 (2021-1학기)	• 인권과 산업복지세미나 (2020-2학기)	• 일과 건강 (2021-1학기)		• 가족친화경영 과 기업복지 (2020-1학기)
	• 예정	• 사례관리론	• 저소득 근로자 지원사업의 공정 운영과 실제 • 실업과 사회복지 • 여성과 노동 불평등	• 영유아보호와 산업복지 • 이주노동자와 포용적 노사관계 • 약물남용근로자 보호와 치료	• 일과 스트레스 • 혁신적 근로자지원프로 그램 개발 및 평가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로자 복지 세미나	• 협력적 산업 관계론

공정, 포용, 혁신, 협력을 위한 커리큘럼 개편안과 실제 개설과목 * bold 표시: 개설된 과목(개설과정에서 약간의 교과목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연구분야	분류	전공기초 및 공통	BK21 전공심화			
			공정	포용	혁신	협력
최재성 (사회복지조직 관리·기획·평가)	• 완료	• 사회복지행정론 (2021-1학기) • 프로그램개발 과 평가 (2022-1학기)	• 신사회문제와 사회복지기획 (2020-2학기)	• 지역사회중심 사회복지서비 스연구 경향분석 (2021-1학기) • 지역사회중심 사회복지서비 스연구 설계 (2020-2학기)	• 창의적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사례연구 (2020-1학기)	• 사회복지조직 과 네트워크 (2021-2학기)
	• 예정	• 지역사회복지 론	• 사회복지서비스 조사평가 • 사회복지비용분 석론 • 신사회복지프로 그램관리론	• 지역사회중심 사회복지프로 그램개발세미나	• 사회적 경제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실험 및 유사 실험설계 방법을 이용한 사회서비스 평가
Michael G. Vaughn (Criminal Justice & Correctional Social Service → Additional Special Areas) * 2022년 2월 말로 퇴직 →추후 임용예정 교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과목 개설 예정	• 완료	• Correctional Social Services (2021-1학기)		• Research seminar in drug abuse & addiction (2021-1학기)		
	• 예정	• Social Problems	• Research seminar on correctional social services • Research seminar on crime & criminal justice	• Interventions for prisoners' children & family • Inclusive welfare society for citizens with criminal record	• Innovative interventions on recidivism • Violence and mental health disorders: causes, treatment, and policies	• Global Perspectives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전체교수 팀티칭 강의			현대사회복지세미나 I, II (BK 세미나) (2020-2학기, 2021-1학기, 2021-2학기, 2022-1학기)			

○ 공정, 포용, 혁신, 협력 비전추진에 적합한 대학원 입시기준 전환

- 본 사업단은 4단계 BK 사업에서 내세우고 있는 4대비전 (공정, 포용, 혁신, 협력 비전)에 맞추어 적합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입시기준을 변경하였음. 각 비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음

변경 전	변경 후
총점: 200점 만점 - 서류전형: 100점 만점 - 면접전형: 100점 만점	총점 200점 - 서류전형: 100점 만점 - 면접전형: 100점 만점 (공정·포용 40점, 혁신 30점, 협력 30점)

○ 공정, 포용, 혁신, 협력 비전추진에 적합한 참여대학원생 선발 기준 마련

- 본 사업단은 4단계 BK 사업에서 내세우고 있는 4대비전 (공정, 포용, 혁신, 협력 비전)에 맞추어 적합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참여학생 선발기준을 변경하였음. 각 비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음

*** 정량: 성적(20) + 연구성과(20)**

① 성적(5단계, 최대 20점, 직전학기 기준)

- 점수

성적	점수
4.15점 이상	20
4.0 ~ 4.15점 미만	19
3.85 ~ 4.0점 미만	18
3.70 ~ 3.85점 미만	17
3.70점 이하	16

② 연구성과(5단계, 최대 20점, 최근 3년)

배점	점수
3점 이상	20
2 ~ 3점 미만	19
1 ~ 2점 미만	18
0 ~ 1점 미만	17
0점	16

- 배점 기준 : 단독(1), 2인공저(0.7), 3인공저(0.5), 4인공저(0.4), 5인이상 공저(0.3)
단, SSCI급일 경우, 위의 배점기준에 3배

*** 정성: 4대 지표 - 공정·포용(20) / 혁신(20) / 협력(20)**

① 최근 대표 연구 성과, 주요 연구 주제, 본 사업단의 4대 비전과 연관지어 참여 학생의 강점, 해당학기 연구 계획 및 학업 계획

② 본 사업단이 지향하는 바를 참고하시어 공정, 포용, 혁신, 협력 의 4가지 키워드를 활용하시어 참여 학생의 역량 및 잠재력을 중심으로 정성 평가 내용을 위의 정성서술란에 300자 이내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에서 본 교육연구단은 한국이 '공정한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앞장서는 '혁신과 협력' 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4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표 1.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해결에 기여하는 교육·연구·실천 역량 강화
- 목표 2. 융합적 역량을 갖춘 사회문제 해결 혁신인재 양성
- 목표 3. 산학협력 강화와 국내외 복지 격차 해소 기여
- 목표 4.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함을 모두가 경험하는 사회복지 교육

○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구조 구축

- 수업에서 얻어진 연구주제를 실제 연구로 구현하도록 지원하였음. 예를 들어 2021년 2학기에 남석인 교수가 강의한 『질적연구방법론』에서 참여학생의 연구주제를 지도하고 BK는 학생간 연구지원 사업으로 통해 지원함으로써 실제 학술지 게재의 성과로서 도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

③ 향후 추진계획

- 계획한 커리큘럼 개편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남은 4단계 사업동안 달성하도록 하겠음. 또한 현재 한국의 상황과 글로벌 위기 등을 고려한 코로나 등의 현장과의 핵심이슈를 반영하도록 수업개설 방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반영하겠음
- 참여교수의 연구년 혹은 퇴직에 의한 커리큘럼 계획안의 진행에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음. 따라서 참여교수 개인의 역할에 의지하기보다 교육과정 시스템 구조를 확고히 함으로써 참여교수의 변동에도 사업단의 계획을 달성 가능하도록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이전 참여학생들 위주로 수강가능했던 BK21 세미나 수업을 2022-2학기 기준으로 미참여 학생들에게도 허용하도록 운영회의에서 의결함. 또한 세미나 수업에서 학생들의 연구발표 및 면접기회를 제공하여 졸업후 인력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1.2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구성 및 운영 계획

① 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현황

□ 생애주기 사회문제별 맞춤형 인간복지 중심으로의 교육 커리큘럼 전환, 사례연구 및 문제 중심적 접근 활성화, 사회문제 해결형 사회복지 벤처가 육성, 실증적 근거기반 교육 커리큘럼을 구축해 옴

○ 본 사업단은 교수 전공 중심별 정책·행정·실천 등에서 1) Philanthropy·비영리조직 및 사회적기업, 2) 가족청소년복지·군사회복지, 3) 사회복지정책·사회보험, 4) 여성복지·다문화·빈곤, 5) 노인복지와 세대공존, 6) 장애인복지·취약계층복지, 7) 정신보건·의료사회복지, 8) 노동과 산업복지, 9) 사회복지 조직관리·기획·평가, 10) Criminal Justice & Correctional Social Service 등 생애주기/사회문제별 맞춤형 인간복지중심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함

○ 사례연구(case study) 및 문제중심적 접근 활성화

- 본 사업단은 다양한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실천적·정책적 해결능력 함양을 위한 커리큘럼을 제공함. 기존과 동일한 교과목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각 교수들이 모든 강의에서 실제 사례연구의 비중을 높이도록 하였음

○ 사회문제해결형 사회복지벤처가 (entrepreneur) 육성

- 본 사업단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벤처가를 육성하기 위해 교내 고등교육 혁신원의 지원을 받아 사회문제 해결형 교과목 확대해오고 있음.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창의성 및 사회혁신 역량 개발을 함양하는 사회혁신 역량 교과목 개발하였음
- 교내 고등교육혁신원의 융합교육 플랫폼과 인프라 지원으로 다양한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음. 실적 산정기간을 기준으로 2021-2학기 7과목, 2022-1학기 6과목을 실시하였음

○ 실증적 근거기반교육(evidence-based education) 커리큘럼 개발

- 본 사업단은 실천 현장과의 긴밀한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증적 근거기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음
- 연세대학교는 가양4종합사회복지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이 외에도 강서자활후견기관, 연세대학교 자원봉사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이 실천현장에서도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왔음
- 사회복지실습세미나에서는 외부인사 특강 및 멘토링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직접적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현실 적합성 및 적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② 신청서 운영 계획 대비 실적

□ 신 사회문제에 선응적 대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외부 전문가 초빙 특별강의

- 커리큘럼의 개편에는 신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로서 참여 대학원생들의 역량을 함양하고자 다양한 학문영역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별강의를 개설하였음. 본 사업단은 4단계 BK21 사업의 4대 비전에 맞추어 참여 대학원생들이 예측 불허한 신사회문제에 대처하는 공정한 관점과 포용적 정신을 획득하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내외 전문가와의 협력을 이루도록 사업단과 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소규모 세미나를 지원해옴

1. 현대사회복지세미나 특강지원

1) 10월 1차 특강

- 특강자: 노경후 (한국월드비전 프로젝트 매니저)
- 특강주제: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 (HDP Nexus) 논의의 배경과 쟁점
- 일 정: 2021년 10월 4일
- 최종 지원 금액 : 300천원

2) 10월 2차 특강

- 특강자: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
- 특강주제: 포스트코로나사회 복지의 길을 묻다
- 일 정: 2021년 10월 6일
- 최종 지원 금액 : 300천원

3) 4월 특강

- 특강자: 정희정 (University of Kent 교수)
- 특강주제: Flexibility Paradox: 유연근무의 모순
- 일 정: 2022년 4월 25일
- 최종 지원 금액 : 300천원

4) 5월 1차 특강

- 특강자: 이은혜 (국회사무처 4급)

- 특강주제: 사회복지 정책과 입법의 실제
- 일 정: 2022년 5월 23일
- 최종 지원 금액 : 200천원

5) 5월 2차 특강

- 특강자: 이선우 (인천광역시서구청 임기제 나급)
- 특강주제: 발달장애자녀부모의외상후성장연구
- 일 정: 2022년 5월 30일
- 최종 지원 금액 : 200천원

2. 연구실 별 소규모 세미나 지원 (2021.9. - 2022.8)

1) 장애인복지연구실 1차

- 특강자: 이해님 (동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조교수)
- 특강주제: 사람중심(Person-Centered)의 데이터 분석 방법
 - 잠재계층과 잠재프로파일 분석 활용
- 일 정: 2021년 10월 12일
- 최종 지원 금액 : 300천원

2) 사회보장연구실

- 특강자: 김학진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특강주제: Understanding Altruism in Brain/Neurology
- 일 정: 2021년 10월 21일
- 최종 지원 금액 : 300천원

3) 장애인복지연구실 2차

- 특강자: 이태인 박사 (샘교육복지연구소)
- 특강주제: 복지제도의 근본적 전환에 대한 고민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Radical Help 도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 일 정: 2021년 11월 1일
- 최종 지원 금액 : 300천원

4) 사회복지조직관리기획평가연구실

- 특강자: 이선우 박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책임연구원)
- 특강주제: 최근 사회복지연구에서의 텍스트마이닝과 토픽모델링 활용
- 일 정: 2021년 12월 6일
- 최종 지원 금액 : 300천원

○ 모든 교수진이 참여하는 팀티칭 강의

- 본 사업단은 지난 BK 사업 지원 기간 동안 참여교수진이 모두 참여하는 팀티칭 강의형태로 현대 사회복지세미나(BK 세미나)를 실시해옴. 4단계 BK 사업에서도 모든 사업단의 교수가 매주 번갈아 각 세부전공분야의 이슈와 연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또한 본 사업단이 벤치마킹하는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Social Work의 교수진도 2021-2학기과 2022-1학기에 8명을 초빙하여 교육의 국제화와 역량 증진을 꾀하였음

공정, 포용, 혁신, 협력을 위한 커리큘럼 개편안과 실제 개설과목 * bold 표시: 개설된 과목(개설과정에서 약간의 교과목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연구분야	분류	전공기초 및 공통	BK21 전공심화			
			공정	포용	혁신	협력
특별 강의 (박찬봉/ 손원익/ 이영문/ 이윤진/ 장동진/ 최영준 Christina Hiessl 외) + 실습전담교수	• 완료	[실습] • 사회복지 현장실습 (2020-2학기, 2021-1학기) • BK21심화실습 (2020-2학기, 2021-1학기)	• 사회복지와 재정정책 (2020-2학기) • 군사회복지윤리 와 상담 (2021-2학기) • 신사회적 위험 대응의 윤리와 철학 (2021-1학기)	• 인권과 군사회복지실천 (2020-2학기) • 군사회복지의 이해 (2021-1학기) • 한국복지국가론 (2020-2학기)	• 정신치료와 커뮤니티상담 (2021-1학기) • 신 사회위기와 비영리섹터 (2022-2학기) • 영화와 정신건강담론 (2020-2학기) • 구조방정식 모형 (2021-1학기) • 제한적 종속변수대상 회귀모형 (2020-2학기)	• 재정정책복지 사회세미나 (2021-1학기) • 사회문제론 - BK Foundation II (2021-1학기) • Parental leave and Benefits Systems - Internatioal Comparison (2022-1학기)
	• 예정		• 정의와 사회복지	• 커뮤니티케어 • 난민정책 • 통일과 사회복지		• 사회복지 연구와 실천의 철학적 융합 • 사회복지 산학협력 사례분석
사업단 전체교수 팀티칭 강의 + UMSSW교수진의 특강			• 현대사회복지세미나 I, II (BK 세미나) (2020-2학기, 2021-1학기, 2021-2학기, 2022-1학기) • UMSSW교수특강 2개 (2021-2학기) 1. Professor Joan Davitt - Using Voice and Touchscreen Technology to Protect Vulnerable Clients in Residential Care Facilities 2. Professor Caroline Long - Smart Decarceration: A Grand Challenge of Social Work * UMSSW교수특강 6개 (2022-1학기) 1. Professor Judy Postmus - Re-Imagining a Fair & Inclusive Society in a Post-Covid World 2. Professor Corey Shdaimah - What Does Social Justice Look Like in My Community 3. Professor Karen Hopkins & Megan Meyer - Impact of Leadership Development on Women's Leadership Learning and Organizational Application 4. Professor Joan Davit - Using Voice and Touchscreen Technology to Protect Vulnerable Clients in Residential Care Facilities - Enhancing Equity and Access 5. Professor Jodi Frey			

공정, 포용, 혁신, 협력을 위한 커리큘럼 개편안과 실제 개설과목					
* bold 표시: 개설된 과목(개설과정에서 약간의 교과목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연구분야	분류	전공기초 및 공통	BK21 전공심화		
			공정	포용	혁신
			- Workplace Suicide Prevention: A Comprehensive Approach Integrating Downstream, Midstream, and Upstream Programs and Policies 6. Professor Haksoon Ahn - Impacts of Family Engagements on Reunification Outcomes for Children * 본 교육연구단 주관 국제학술대회 <Global Social Work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for a Fair and Inclusive Society>와 병행하여 이루어짐		

□ 현장 이해 증진과 실질적 사회문제 해결형 수업의 강화

- 고등교육혁신원의 지원을 받아 개설되는 사회문제해결형 대학원 교과목 개설을 확대하여 사회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학습한 이론의 적용과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사회문제해결형 교과목으로, 최종 결과물은 단순한 보고서 형태가 아닌 프로그램/서비스 제안서, 프로그램 평가 매뉴얼, 인식개선을 위한 동영상, 연구보고서 등으로 구성하였음. 실적 산정기간을 기준으로 2021-2학기 7과목, 2022-1학기 6과목을 개설하였음

연도	과목명	강의자
2021-2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융합팀워크	송인한
	아동복지론	남보영
	지역사회복지론	강철희
	노인복지론	남석인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김정수, 남석인
	장애인복지론	박수경
	장애와 사회참여	박수경
	합계	7과목
2022-1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융합팀워크	송인한
	가족복지론	김재엽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김정수, 남석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남보영
	사회복지조사론	남석인
	뉴노멀 취약계층 세미나	박수경
	합계	6과목

③ 향후 추진계획

- 사회문제 해결형 실습수업의 강화가 요구됨.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현장실습처의 접근이 비대면으로 확장되어 왔음. 접근성의 제한으로 실습이 어려운 현장 (예를 들어, 해외현장, 지방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대면과 비대면 실습을 혼합한 혼합형태의 다양한 실습수업의 현실화를 마련하고자 함

2.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2.1 최근 1년간 대학원생 인력 확보 및 배출 실적

<표 2-1>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단위: 명)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실적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확보 (재학생)	2021년 2학기	23	13	3	39
	2022년 1학기	14	19	3	36
	계	37	32	6	75
배출 (졸업생)	2021년 2학기	13	0		
	2022년 1학기	9	0		
	계	22	0		

2.2 교육연구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신청서 기준 교육연구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계획 1	다양한 장학기금 재원 확보
계획 2	참여-비참여 대학원생 간의 장학금지원 격차 최소화
계획 3	높은 장학금 수혜율
계획 4	전용공간의 확보
계획 5	논문 인센티브 및 영어논문 지원
계획 6	다양한 학제 편성
계획 7	입시전형 설명회 개최
계획 8	해외학생 유치와 현장과의 교류 확대

- 신청서 기준 교육연구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은 위의 표와 같으며 이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성취한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성과 1

대학원 자체 장학기금을 통한 우수 인재확보와 비참여 대학원생 지원

- 본 대학원은 우수한 역량을 지닌 대학원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대학원 자체 장학기금 모금을 지속 해서 진행해옴
 - 우수한 학생들이 경제적 고민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고 향후에도 안정적 으로 기금을 집행할 예정임
- 우수 인재를 확보와 참여-비참여 대학원생 간의 장학금지원 격차 최소화를 위하여 본 대학원의 대응자금을 활용하여 다음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음

- (1) (학석사) 연계과정 장학금, (2) 기금장학금, (3) 경원문화재단 장학금, (4) 사회복지대학원 근로 장학금, (5) 사회복지대학원 기금장학금, (6) 사회복지대학원 신입생 성적우수장학금, (7) 성적우수 재학생장학금, (8) 코로나19 특별장학금, (9) 행정조교장학금, (10) 동국헬스케어 장학금 등
- 입학전형 시 우수한 역량을 보인 신입생을 매 학기 선발하여 우수신입생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신설하여 지원하였음

성과 2

전용공간의 확보

- 대학원생의 전용 연구공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공간개선 작업을 진행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석사와 박사과정 학생의 연구 공간 및 공유 공간으로 아펜젤러관 303호와 빌링슬리관 105호, 아펜젤러관 지하의 컴퓨터 및 프린터실을 마련하고 담당 조교를 배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새롭게 BK21 FOUR 학생상담실과 휴게실 마련하여 계획서에서 제시한 바를 이행하였음

성과 3

논문 인센티브 및 영어논문 지원

-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학술지 논문게재를 적극적으로 지원 (2021.9-2022.8 기준)
- 국내 학술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최대 4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산정기간 기준 국내 학술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를 총 50건에 대해 약 15,635천원 지원하였음
- 국내외 학술논문 게재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산정기간 기준 SSCI급 · KCI급 게재논문 등 30건에 대해 총 9,700천원을 지원하였음
-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과 대학원생이 공저인 학술논문을 국제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 영문교정비를 지원하고 있음
- 국제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 영문 교정비를 편당 50만원 이내로 지원하여 국제저명학술지에 원활한 투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정기간 내 총 3건에 대한 785,934원 지원하였음

성과 4

다양한 학제 편성

- 학·석사 연계 시스템 도입
- 연구역량이 우수한 학부생의 대학원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사회복지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석사 연계 시스템을 운영함
-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학부 3, 4학년 학생은 총 12학점까지 대학원 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
- 본 시스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학부 2학년(4학기)을 수료하고 전체 평량평균 (GPA)이 3.3/4.3 이상이어야 하며 각 과목당 B-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야 필수학점 면제를 받을 수 있음
- 학부 졸업 후 본 대학원에 진학하여 재학 중 최소 30학점을 추가적으로 이수하고, 대학원이 정한 졸업논문 자격시험과 졸업논문에 관한 규정을 모두 충족할 경우,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조기에 대학원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

- 2022년 2학기에 본 프로그램을 통해 홍이준 학생 1명이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는 송현주 학생 1명이 본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음

○ 학문후속세대가 학부생을 지도하는 UT 세미나 (Undergraduate Tutorial Seminar) 확대

- 학문후속세대인 박사 (예정자) 선배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최근의 경향과 지식을 교육하고, Tutor의 입장에서 진로 설계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과목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할 예정임
- 실적 산정기간을 기준으로 2021-2학기 4과목, 2022-1학기 6과목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영역의 혁신적 교과목을 개설해오고 있음. 교과내용으로는 문헌탐색 및 보고서 작성 (『문헌검색과 논문통계표 읽기』, 『지표로 보는 사회복지 이슈』)이나 논문작성 (『온라인설문조사와 코딩』, 『기초통계분석』) 등의 연구방법, 취약계층의 사회문제 (『여성의 생애주기별 복지이슈 연구』, 『미디어로 보는 우리사회의 노인과 노인문제』)이나 국제사회복지 (『한국의 NGO와 국제협력사회복지』), 가족치료 (『마음으로 나누는 가족상담과 대화연습』) 등의 사회복지 실천, 다양한 사회복지영역 등을 다루고 있음

연도	과목명	강의자
2021-2	한국의 NGO와 국제협력사회복지	안진호
	온라인설문조사와 코딩, 기초통계분석	유지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복지이슈 연구	한상윤
	마음으로 나누는 가족상담과 대화연습	황현주
	합계	4과목
2022-1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NGO와 국제사회복지	안진호
	영화로 이해하는 사회복지	양승민
	문헌검색과 논문통계표 읽기	유지은
	미디어로 보는 우리사회의 노인과 노인문제	최유나
	지표로 보는 사회복지 이슈	한상윤
	마음으로 나누는 가족상담과 대화연습	황현주
	합계	6과목

성과 5

입시전형 설명회 개최

- 본 대학원은 우수 대학원생의 유치를 위하여 주요 일간지 등의 언론매체에 대학원 입학전형을 홍보하고 지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입시전형 설명회를 매 학기 개최하였음
- 입시전형 설명회에서는 단순한 입시요강의 안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대학원의 4대 비전을 제시함

으로써 예비 연구자로서의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

- 산정기간 내 신입생 온라인 입학설명회를 2회 진행하였음

1) 2022학년도 전기 신입생 온라인 입학설명회 (일시: 2021.10.13. (수) 18:00 ~ 20:30)

1) 2022학년도 후기 신입생 온라인 입학설명회 (일시: 2022.04.20. (수) 18:30 ~ 20:00)

▶ 장소 : 온라인 (ZOOM)

▶ 모집과정 :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 입학설명회 주요내용

① 대학원 소개 (연구분야, 교육과정, 진로 등)

② 장학제도 소개

③ 입시요강에 대한 설명 및 지원방법 안내

④ 질의 및 응답

2.3 참여대학원생의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표 2-2> 2021년 8월 및 2022년 2월 졸업한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취(창)업률 실적(단위: 명, %)

구 분		졸업 및 취(창)업현황 (단위: 명, %)						취(창)업률(%) (D)/C×100
		졸업자 (G)	비취업자(B)			취(창)업대상자 (C=G-B)	취(창)업자 (D)	
			진학자		입대자			
			국내	국외				
2021년 8월 졸업자	석사	8	3			5	5	100%
	박사	0						
2022년 2월 졸업자	석사	13	3			10	10	100%
	박사	0						

○ 졸업생들이 다양한 성격의 기관에 취업하고 있어 본 사업단이 추구하는 다양한 위계계층을 포용적 인 재라는 사업목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

- BK 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졸업생들은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과 현장중심의 재단 등에 취업하였음. 취업실적은 2021년 8월 졸업자의 100%, 2022년 2월 졸업자의 100%의 취업률을 달성하였음. 아래의 표는 졸업자들의 취업현황을 나타냄

학기	졸업자	유형	취업기관
2021년 8월 졸업		취업	서울아산병원
		취업	서울광역치매센터
		취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취업	국민연금연구원
		취업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2022년 2월 졸업		취업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취업	푸른나무재단
		취업	경기복지재단
		취업	국립정신건강센터
		취업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취업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
		취업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취업	서울시복지재단
		취업	광진복지재단
		취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졸업자의 취업기관에서의 역할을 본 사업단의 인재양성 성과와 연계시켜 본다면 다음과 같음

- 사회문제의 선응적 대응을 위한 포용적 인재 및 혁신적 인재 배출

- ■■■■■ 석사 학위 수여자는 졸업 후 현재 서울아산병원 사회복지팀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석사논문으로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 가족의 사별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작성하였음. 석사과정 동안 질환을 가진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입원노인의 가족 대상 지원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학업에 매진함. 이후 의료사회복지사로서 실천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곳에 취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현 직장에서도 노년내과 입원 노인의 퇴원계획 및 노인·가족 상담 업무와 연구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역량을 발휘하고 있음

- ■■■■■ 졸업생은 현장의 임상경험을 쌓기 위하여 서울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 사회복지사로 취업하였음. 1년 후 까다로운 내부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사람중심실천팀에 재직하면서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직업훈련이나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의 의미있는 낮활동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등 최고 난도의 사회복지 장애영역에서 실천기술을 연마하고 있음

- 사회문제해결형 사회복지전문가 배출

- ■■■■■ 졸업생은 졸업 후 현재 청소년그루터기 재단 사업기획부에서 청소년 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석사논문으로 『국가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 니트(NEET)의 니트 탈출 노력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를 작성하였음. 석사과정 동안 청소년, 청년 및 노인 세대의 공존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며, 다른 세대의 관점에서 노인복지에 관한 실천 측면의 균형 잡힌 관점을 키워 나갔음. 현재 재단에서 청소년 지원 관련 먹거리, 학습지원 사업 등을 기획하고 수행하며 청소년 복지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 졸업생은 졸업 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서 근무 중임. 석사 졸업 논문으로 『정신적 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활동 참여의 매개효과』를 작성하였음.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국가 정신건강정책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며 정신건강 인식개선 활동, 민관 연계체계 구축 및 관련 연구활동을 진행한 바 있으며 해당 기관은 최근 정신건강 미디어 모니터링, 정신의료시설 실태조사 등의 연구를 수행함

- [] 졸업생은 현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근무 중임. 석사 졸업 논문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지각된 진로장벽에 관한 연구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학업중단이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를 작성하였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 산하 재단으로서 서울시민의 복지권 증진,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지원을 위해 연구와 기획, 사업개발, 복지시설 및 현장에 대한 평가와 지원, 시범사업 수행 및 인큐베이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김지민은 서울시 돌봄 SOS센터 발전 방안연구와 노인, 장애인 대상 긴급돌봄서비스에 필요한 신규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연구하는 데 참여하여, 석사과정 중에 획득한 연구역량을 발휘하여 서울시민을 포용하고 사회복지 실천기관과 협력함으로써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이론과 실천을 가교하는 혁신인재 배출
- [] 졸업생은 석사졸업 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석사 졸업 논문으로 『소득이동 (income mobility)과 기부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정현탁 졸업생은 졸업논문을 수정, 발전시켜 『소득 및 소득이동과 기부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의 <사회복지정책> 48권 3호에 게재하였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에서응 기초연구팀에 소속되어 사랑의열매 만족도 및 욕구조사, 기부 트렌드 및 나눔지수 연구, 나눔총서 발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 석사과정 졸업생은 석사 졸업 논문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 탈빈곤 효과를 중심으로』를 작성하였으며, 한국은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음.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 발전을 위해 다층보장체계 내 공적연금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등 공정하고 포용하는 사고를 지니고 있었음.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민연금연구원에 입사하여, 자신의 연구분야에 맞추어 연금의 중장기적인 제도의 안정성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3.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의 우수성

① 참여대학원생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 본 사업단은 아래의 “연구 수월성 증진계획”을 통하여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증진하도록 지원해왔음. 구체적인 연구역량 증진내용은 1) 자체예산(대학 본부 대응자금 및 사회복지대학원 자체기금)투입을 통한 참여·비참여 학생 간 균형있는 지원, 2) 자체 예산 투입과 체계적인 학술활동 지원시스템을 통한 연구성과 제고, 3) 자체예산(대학 본부 대응자금 및 사회복지대학원 자체기금)을 활용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학술활동 의지 고양임. 본 연구단은 소속대학원생 간의 공정한 기회제공과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참여대학원생에게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보장하였음. 다만, 본 평가서에서는 참여대학원생만을 기준으로 성과를 정리하였음을 밝힘

**신청서 기준
연구 수월성 증진 계획**

1	자체예산 (대학 본부 대응자금 및 사회복지대학원 자체기금) 투입을 통한 참여 · 비참여 학생 간 균형있는 지원
2	자체 예산 투입과 체계적인 학술활동 지원시스템을 통한 연구성과 제고
3	자체예산 (대학 본부 대응자금 및 사회복지대학원 자체기금)을 활용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학술활동 의지 고양

○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대학원생은 최근 1년 동안 국내논문 40편, 국제저명학술논문 3편을 게재하였음

연도	국내(KCI등재/후보)	국제(SSCI)
2021년 2학기 (‘2021.9.1~’2022.2.28)	19	1
2022년 1학기 (‘2022.3.1~’2022.8.31)	21	2
총계	40	3

○ 본 사업단이 추구해온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역량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졸업생들은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을 연구주제로 삼아 혁신적인 연구를 선도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업적을 달성하였음

-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한국 사회문제 해결 추구

- 이소민 박사과정생은 2022년 05월에 『빈곤가구청년의 자립과정과 빈곤을 벗어난 이후의 삶에 관한 사례연구』를 수행해 <한국청소년연구> 학술지에 게재하였음. 본 논문은 아동·청소년기 빈곤을 경험한 청년들의 자립 과정과 빈곤을 벗어난 이후 삶을 탐색하여 빈곤 가구 청년의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 논문임. 본 논문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현시점에도 빈곤한 ‘빈곤 청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양적으로 탐색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여 ‘현시점의 빈곤’을 타개하기 위한 논의만 이뤄져 왔다는 한계점에서 벗어나 빈곤을 탈출한 이후에 나타난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탐색하는 것에 의의가 있음. 본 논문은 아동·청소년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수급 가구에서 학업-직업 이행으로의 성과를 달성하고 현재 탈수급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사례연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빈곤 탈피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한 혁신적인 연구이며, 상대적으로 관심받지 못했던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하였으나 경제적 자립을 이룬 청년들에 집중하여 빈곤의 장기적 영향을 해소하고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수행된 연구라 할 수 있음. 또한 BK21 FOUR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과 협력 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양성사업단’의 협력을 통해 빈곤 가구에서 자립한 청년에 주목하고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실천적 접근방안을 제시한 혁신적 연구임. 본 논문이 게재된 한국청소년연구는 2021년 기준 IF 2.89로 전체 청소년 연구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

- 서경주 박사과정생은 2021년 09월에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과 성인 비장애 형제의 동반낙인감의 관계: 성인 비장애 형제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연구』를 수행해 <한국장애인복지학> 학술지

에 게재하였음. 그동안 국내 성인 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사회복지 정책도 장애인과 부모 중심이라, 기존연구에서 비장애 형제들의 심리적 문제를 많이 보고하였음에도 이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험군이었음.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개입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공정한 포용사회를 지향하고 있음. 연구결과로 발달장애인 도전행동이 비장애형제의 동반낙인감을 높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통해서도 동반낙인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논의를 통해서서는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사회모델 관점에서 인식하자고 하는 혁신적 환경변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제언을 통해 통합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 교사,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비장애형제의 긍정적경험과 자조모임, 권리옹호 활동 지원을 제시하고 있음

- 김은경 박사과정은 2021년 12월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배우자의 스트레스가 고립감을 매개로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 거주지역 규모의 차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한국군사회복지학회>에 논문을 게재하였음. 본 논문은 한국사회에서 좀처럼 조명되지 못했던 제대군인 배우자 집단에 대한 연구임. 본 연구를 통해 제대군인 여성 배우자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고립감을 매개로 부부갈등등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거주지역 규모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한국의 지역불균형 발전은 이제 그 차이를 보완하기도 어려울 만큼 깊어졌으며 거주 지역 규모의 차이는 여러가지 부정적 결과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이에 거주지역 규모에 따른 경로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개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이 연구를 통해 제대군인 가정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됨
- 김혜진 박사과정과 이진혁 박사과정, 김성훈 석사과정은 공동으로 2022년 06월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에 논문을 게재하였음. 본 논문은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 속에서 평생에 걸친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들의 특성과 건강상태 영향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개입방안을 제시한 혁신적 연구임. 질병의 특성상 매우 낮은 유병률과 오랜 기간의 진단으로 인해 관련 연구가 부족한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본 논문은 연구가 부족한 이들을 포용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적 개입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클 것으로 사료됨. 연구결과,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은 비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보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학적 특성, 장애 및 건강 특성, 사회경제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영향 요인을 파악함. 이와 같은 연구는 이미 주관적 건강상태 영향요인 연구가 진행된 다양한 대상들과 동일하게 희귀질환자들을 위한 실천적·제도적 개입방안의 필요성을 제언했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적 접근으로 사료됨.
- 민진아 박사과정은 2021년 09월에 『A Study on Emotional Labor,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Social Workers: Moderating Effect Analysis on the Availability of Flexible Work Arrangements』라는 제목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에 논문을 게재함. 본 연구는 코로나 발생 이후 한국의 콜센터 여성 종사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감정노동 경험 및 변화된 근무환경을 탐색한 연구임. 이를 토대로 기업과 국가가 협력하여 콜센터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은 줄이고 안전하고 근무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적·실용적 지원 방안을 제안함. 현재 한국 사회에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한 권리가 정착되도록 제도 보안 및 혁신적인 개입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 종사자 개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정성적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별성을 가짐. 특히,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여성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콜센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별 경험 및 발생 맥락을 심도 있게 다루어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를 통한 일가정양립을 포용적으로 다루어 근로환경의 최일선에서 조직의 협력을 통한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기여함
- 이예진 석사과정은 2021년 9월 『사별 경험자의 복합비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라는 주제로 <보건

사회연구>에 논문을 게재함. 본 연구는 사별 경험자를 대상으로 병리적 비애인 복합비애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한 논문임. 국제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은 한국에서 복합비애 경험에 따른 잠재적 자살 위험군 증가가 우려되나 관련 연구가 국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영향요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도 부족한 현황임. 이에, 국내 최초 전국 단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합비애의 영향요인 탐색하여 혁신성이 두드러지는 연구로 판단됨. 사회적으로 사별자들이 포용되어야 할 근거를 학술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고인과의 관계를 비혈연관계까지 확대하여 자살사별을 경험한 모든 개인에게 공정하게 서비스가 돌아가야 함을 제시하였음. 또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정부,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내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임. 본 논문이 게재된 보건사회연구는 KCI 등재, 2020년 기준 IF 2.5 에 해당하는 학술지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

- 박다운 석사과정은 2021년 12월에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에 논문을 게재함. 해당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모효능감 그리고 우울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연구임. 단순히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을 본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연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우울을 야기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모효능감 모두에 대한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부모효능감이 자녀뿐 아니라 여성 본인의 심리적 부적응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화됨

- 창의적인 관점으로 사회복지영역에서의 혁신적인 연구를 선도

- 최유나 박사과정은 2021년 09월에 『교모세포종 환자 돌봄 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라는 주제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에 논문을 게재함. 본 연구는 자문화기술지 방법을 이용하여 교모세포종 환자의 자녀이자 보호자로서 겪은 환자돌봄 경험을 분석하고, 보호자의 경험과 정서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환자 돌봄 동안 간병생활의 고달픔과 절망감, 불안감을 느낀 보호자들을 포용하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자문화기술지를 이용해 질적 사례 연구를 진행한 혁신적인 연구이며, 교모세포종 보호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을 제시한 사회 협력적인 연구라 할 수 있음
- 오유경 박사과정은 2022년 06월에 『공공 및 민간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역할과 과제: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민간 긴급지원사업의 내용 및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라는 주제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에 논문을 게재함. 본 논문은 긴급지원사업 관련 포괄적 문헌 검토를 통해 공공 및 주요 민간단체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성과와 역할,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 논문은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코로나19의 위기가구 급증의 흐름 속에 공공과 민간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혁신적임. 본 연구는 저소득층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포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지원과 포용사회 구현에 부응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음. 본 논문은 민간과 공공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중복 수급의 문제,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방향성 등의 논의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방안에 관해 도출함. 본 논문이 게재된 한국사회복지조사가연구는 2020년 기준 KCI 등재지로 IF(2년) 1.29의 해당하는 학술지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
- 강아름 석사과정은 2022년 06월에 『코로나19 감염 재난이 시민 기부 행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해피빈 모금 프로젝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사회복지연구>에 논문을 게재함. 본 연구는 감염 재난인 코로나 19의 발생 초기 시민들의 기부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목표달성률, 기부자 수, 1인당 기부액으로 구체화하여 살펴봄. 동시에 코로나 19 발생 후 시민들의 기부 행동에 있어 코로나19 명분

과 일반 명분의 차이, 즉 모금 프로젝트 명분 속성의 영향력을 검증하였음. 이를 위한 분석자료는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4월 2일까지의 기간에 해피빈을 통해 관찰된 완료된 프로젝트들과 관찰 종료의 시점에서 진행 중이었던 기부형 모금 프로젝트들임. 분석 결과, 첫째, 코로나19 기간과 프로젝트의 모금 기간이 겹칠수록 목표달성률은 낮아졌고, 기부 참여자 수는 줄었으며 1인당 기부액은 감소함. 둘째, 코로나 19 프로젝트인지 아닌지의 속성 차이에서 코로나 19관련 모금은 목표달성률에 대해 직접효과(+)와 조절효과(+)를 가졌음.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온라인기부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시민들의 실제적 기부 행동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장성현 석사과정은 2022년 01월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활용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에 관한 연구: 북한의 자발적 국별 리뷰(VNR)를 바탕으로』라는 주제로 <보건사회연구>에 논문을 게재함.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뿐 아니라 통일을 고려한 한반도 전체 및 북한의 사회보장체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임. 이에 북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북한의 자발적 국별 리뷰 (VNR)를 바탕으로 사회보장 관련 영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를 분석하여 한반도의 평화복지체제 방향성을 구상함. 이에 북한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국가개발목표 (NDGs)는 인민생활 증진(1), 농업성장(2), 건강보장(3), 일자리보장(8), 인민의 권리증진(10)을 살펴봄. 이와 같이 한국 뿐 아니라 통일을 고려한 한반도 전체의 사회보장체제를 구상하는 등 포용하고 혁신적인 관점에서 평화복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를 제언함
- 국제적 수준의 논문 게재와 세계의 사회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제시
 - 한상윤 박사과정은 2021년 10월에 SSCI의 <Educational Gerontology> 학술지에 『Creating supportive environments and enhancing personal perception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among older adults』라는 주제로 논문을 게재함. 본 연구는 노인의 정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지원 환경 및 인식 증진을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연령에 따른 정보 격차 문제는 전 세계 노인들에게 새로운 불평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감염병 상황은 이와 같은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짐. 디지털 정보 사회에서 노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을 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전의 수많은 대책이 뚜렷한 효과가 없었던 만큼 보다 혁신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이에 본 연구는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3을 프레임워크로 사용하여 노인의 디지털 기술 수용 프로세스를 탐색하는 동시에 이들의 사용 장벽을 찾아냄으로써 노인의 정보 격차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음. 특히, 개인의 노력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원 환경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의 협력을 전제로 디지털 포용은 시작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공정, 포용, 혁신, 협력의 가치를 담은 연구라고 할 수 있음
 - 이유진 박사과정은 2022년 08월에 SSCI의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학술지에 『Polyvictimization Risk Among North Korean Refugee Women in South Korea』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함. 본 논문은 탈북여성들 중 성폭력과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당한 중복피해 유형을 조사하고 다양한 환경(북한, 제3국, 남한)에서의 성폭력과 다양한 유형의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함. 이 연구를 통해 탈북과정에서 인신매매 및 성폭력 피해자가 한국에서도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탈북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방안을 모색하여 탈북여성에게 더 안전하고 포용적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의의가 있음. 본 논문이 게재된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는 IF 2.621로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이 인정받은 학술지임
 - 오유라 박사과정은 2022년 06월에 SSCI의 <PSYCHIATRY INVESTIGATION> 학술지에 『Development of a Seoul-Type Housing Service Model for People With a Mental Illness』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함.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정신장애인의 자립주택 지원사업의 근거기반 연구로써,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조사와 함께 전문가 집단의 FGI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신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해나가야함에 있어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구성하고자 함. 이와 같은 사업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정착에 있으며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음. 이에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시설을 이용 중인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크게 인적사항, 일상생활, 주거서비스,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영역과 관련한 욕구조사를 시행함. 이와 함께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이기에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집단 FGI를 실시하였고, 당사자 욕구조사와 전문가 집단 FGI를 토대로 정신장애인의 자립지원주택과 관련한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혁신적으로 도식화 하였으며, 현재 이를 근거로 서울시 내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 사업이 시행 중임

□ 계획

- 본 교육연구단은 매학기 (하계/동계) 참여대학원생 대상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대학원생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양질의 특강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제공하여 연구역량을 증진할 계획임
- 참여대학원생 공동연구와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참여대학원생 대상 적극적인 홍보로 다수의 대상들이 혜택받도록 격려
 - 지원성으로 연구결과물과 취업성공의 선순환 구조 구축
- 참여대학원생의 해외석학 논문지도 및 공동연구 강화
 - 참여교수의 공동연구자 해외석학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적 수준의 논문작성 지원

②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 본 사업단이 추구해온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역량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졸업생들은 공정한 포용사회 추구를 위한 사회문제 해결을 연구주제로 삼아 국내외 학회에서 학문 간의 소통과 지식교류를 활성화 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결과를 달성하였음
-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이 국내학술대회 (1건)와 국제학술대회 (17건)에서 발표하였음

연도	국내/국제	합계
2021년 2학기 (‘2021.9.1~’2022.2.28)	국내	-
	국제	8
2022년 1학기 (‘2022.3.1~’2022.8.31)	국내	1
	국제	9
합계		18

-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한국 사회문제 해결 추구
- 한상윤 박사과정생은 2021년 11월 노년학 분야의 저명학 학회인 GSA (the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2021 Annual Scientific Meeting에서 “Determinants of intention to use digital technology for older adults by environmental dimensions” 를 주제로 Technology and Older Adults 세션에서 구두 발표를 실시함. 노인의 정보 격차를 다루는 데 있어 환경적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디지털 포용을 위한 구체적인 개입 방안들을 제시하였음. 또한 “Feasibility study of a tablet-based intervention to enhance the meaning in life among older adults” 를 Social Connection and Research Challeng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세션에서 구두 발표를 실시함.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기술, 공정하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UI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연구실 내 혁신적으로 개발된 intervention app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함으로써 노인에게 친화적인, 나아가 모두에게 친화적인 기술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 이소민 박사과정 학생은 2022년 5월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개최한 Global Social Work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for a Fair and Inclusive Society에서 “How Has COVID-19 Affected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curity and Household Labor among Working Women?” 라는 주제로 발표하여 많은 관심을 받음. 본 연구는 18세 이하 자녀를 1인 이상 양육하는 성인 직장인 여성 총 3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고용불안과 가사노동 및 돌봄시간의 변화를 살펴보고, 코로나19 이후 고용불안정이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관계를 밝힘. 연구 결과, 사회경제적 위기로 여성의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것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음. 또한,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직장여성은 코로나19 이후 고용불안정이 높아질수록 가사노동시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를 통해 우선적으로 사회경제적 위기에 고용불안을 겪지 않도록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안정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경제적 위기 시 가사노동 및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방안이 필요함을 제언하여 여성노동자가 일과 가정에서 공정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
- 송지현 박사과정 학생은 2022년 6월 한국 (여수)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Percep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Implications to the Nonprofit Sector“라는 주제로 구두발표를 하여 많은 관심을 받음. 본 연구는 기업사회공헌(CSR)의 outcome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뤄져 왔지만 상대적으로 영리기업이 CSR outcomes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인식과 nonprofit sector에 대한 기업의 CSR practices와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음에 주목하여 이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음. 기빙코리아 CSR 설문조사 2개년 데이터와 Kisvalue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기업의 매출액, 기부금 등을 매칭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음. 분석방법으로는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 방법을 적용하였음. 분석 결과, 기업의 CSR outcomes에 대한 인식 즉 CSR이 기업의 1) 재정적 성과에 기여 2) 조직 문화에 기여 3) 조직 평판에 기여 한다는 3가지 인식은 기업이 실행한 1) 매출대비 기부금 2) 직원 자원봉사 참여율 3) 전체 기부금 대비 NPO 지원 기부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이 CSR outcomes에 대하여 갖는 인식이 다양한 CSR practices 중에서도 특정 CSR practices에 대한 선호 및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기업과 비영리조직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음
- 김도현 박사과정생은 2022년 5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주관한 Global Social Work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for a Fair and Inclusive Society 국제 학술대회에서 “The Influence of Married Women’s Work-Family Conflict and Family-Work Conflict on Depression: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라는 주제로 구두논문발표를 진행하였음. 본 연구는 기혼여성들의 일-가정

갈등과 가정-일 갈등의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고, 정신건강 중 우울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함. 이 관계에서 직무관련 요인인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음. 이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성가족패널 7차년도(2018) 자를르 활용하였으며, 총 3,247명의 유자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SPSS Macro Process 4번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연구 결과, 일-가정 갈등과 가정-일 갈등이 높을수록 우울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직무만족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가정 갈등과 가정-일 갈등 모두 직무만족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음.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이 일-가정 갈등과 가정-일 갈등의 양방향성을 반영하지 않은 한계를 지적하고, 두 갈등을 구분하여 우울과의 관계를 규명하였음. 일-가정 갈등과 가정-일 갈등은 갈등의 출발 시점이 각각 다름을 확인하였음. 또한 국내 기혼여성이 겪는 정신건강적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며, 국내 기혼여성이 직장과 가정에서의 어려움들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하였음. 이는 기혼여성에게 부여된 전통적인 성역할과 사회적 고정관념이 압박으로 가중되어 기혼여성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두 가지 갈등의 수준을 높이고 정서적으로 더욱 우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본 연구는 일-가정 갈등과 가정-일 갈등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각 갈등 별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언하였으며, 기혼여성의 정신건강 완화를 위한 사회적 방향성을 제시함

- 오유경 박사과정은 2022년 5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주관한 Global Social Work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for a Fair and Inclusive Society 국제 학술대회에서 “The Roles and Tasks for the Public and Private Emergency Support System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and Current Statu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라는 주제로 구두발표를 진행하였음. 본 발표는 긴급지원제도 및 국내 주요 민간단체 10개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긴급복지지원의 현황, 특성, 한계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 발표주제는 공공의 문제점만 논의된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공공과 민간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신속성, 적절성, 충분성, 기존제도와 의 정합성 등 네 가지의 측면에서 파악한 혁신적 주제임. 또한, 다양한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한 사각지대 해결방안, 긴급복지지원사업의 방형성, 공공과 민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높은 수준의 해외학회 참여와 국제 사회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제시

- 한상윤 박사과정생은 2022년 1월 미국 사회복지 분야 최대 학회인 SSWR (Society for Social Work Research) Conference 2022에서 “Exploring Patterns in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 and Depression Among Older Widows in Korea: A Latent Class Approach” 를 주제로 포스터 발표를 실시함.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함. 빠른 고령화와 함께 배우자 사별이라는 생애 사건을 겪은 여성 노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이들이 충분한 애도의 과정을 마치기도 전에 사회적 배제 경험에 따른 우울을 겪는다는 점에서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연구임. 또한 이들의 사회적 배제를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지표를 통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혁신적인 방식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음
- 이성민 박사과정은 2022년 1월 전 세계 사회복지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학회인 SSWR 2022에서 “What Factors Are Associated with Posttraumatic Growth Among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South Korea?” 를 주제로 Eposter 발표를 실시하였음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학회 방식). 해당 논문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외상후 성장요인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로서 중증장애 자녀의 양육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이 인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

내고 있음.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어머니들의 외상후 성장에 공식적인 가족 서비스와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그동안 외상후 성장에 대해서 주로 해외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존하였다는 점에서 볼때, 해당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어머니들의 외상후 성장에 요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추후 동아시아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가혹한 환경에 있는 대상자들의 외상후 성장요인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음

- 황성결 박사과정생은 2021년 1월 미국 사회복지 분야의 최대 학회인 SSWR (Society for Social Work Research) Conference 2021에서 “The Effect of Sexual Victimization prior to Migration on Suicidal Ideation among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라는 주제로 포스터 발표함. 본 연구는 탈북여성이 북한과 탈북과정에서 경험하는 성폭력 피해율이 높으며, 그 후유증 또한 복잡하고 심각하여 대책이 필요하기에 성폭력 피해와 그 후유증에 관계를 검증하고자 함. 2012년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폭력피해 탈북여성 맞춤형 자립지원 방안 연구>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155샘플을 최종 분석함. 연구 결과, 탈북여성의 31.2%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으며, 45.2%가 자살생각을 지난 1년간 가졌고, 84.9%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중 1가지 이상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탈북여성의 성폭력 피해 경험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은 성폭력 피해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를 통해 탈북여성의 다양한 외상사건 중 남한 입국 전 성폭력 피해 경험이 갖는 영향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성폭력 피해와 같은 심각한 외상 사건 경험에 대한 스크리닝과 성폭력 피해에 따른 후유증에 대한 교육과 치료 제공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통해 탈북여성의 정착을 도와 포용된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임정수 석사과정 학생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SSWR Conference 2022에서 “The Effect of Mother’s Korean Ability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their Self-esteem” 의 포스터 발표로 많은 관심을 받았음.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청소년 수의 급중에 따라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적응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 간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임. 이 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다문화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여 결국 학업적응을 촉진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다문화 청소년의 자긍심과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위해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음

□ 계획

-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비대면 형태의 국제학술대회가 등장하였고 이를 기회로 삼아 다수의 참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음. 이번 경험을 축적하여 다양한 국내/국제학술대회참여를 독려하고 펼칠 수 있도록 학술대회 발표 전 희망자들에게 지도/피드백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리허설 등을 지원하고자 함
-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초안을 학술지 논문으로 발전시키고 게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함. 예를 들어, 학회에서의 피드백을 보완하는 코칭이나 영문교정비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음

4. 신진연구인력 현황 및 실적

- 지난 1년간 본 사업단에 총 2명의 신진연구인력이 본 사업단에서 근무하였음. 본 사업단 및 학생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현 박사와 이은진 박사가 박사 후 연구원으로 참여하였음
- 이현 박사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가족 및 청소년복지분야 전문 연구자임. 학위과정 동안 청소년 비행 및 범죄, 다문화 가정의 적응문제, 가족 간 의사소통 개선 등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여 KCI급 저널에 논문을 다수 게재함. 이현 박사는 학위과정 중 BK 사업에 장기간 지원 (2013년 - 2018년)을 받으면서 다양한 연구 및 교육활동에 참여하였음. 특히, 국내 관심이 미흡했던 군사회복지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군장병 병영생활 부적응(자살, 폭력, 정신장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군사회복지 프로그램 국제 협력사업(단기년도)’, ‘한국 군 장병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국형 군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영국, 미국, 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 연구 (총 3차년도)’와 같은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다수의 해외 컨퍼런스에서 구두발표 하였음. 박사 학위논문으로서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개입연구를 진행하고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학위과정에서의 배움을 연계하고 정리하였음. BK 참여 불가한 학기초과 과정에는 BK 행정지원인력으로 참여하여 원활한 사업진행과 교육단의 교육과정 개편 및 연구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역할 하였음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3년 동안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성결대학교에서 청소년 및 학교사회복지 등의 강의를 하고 해왔음. 연구역량에 기반한 학문적인 이론과 실천현장에서의 경험을 균형 있게 전달하는 강의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이은진 박사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노인복지 전문 연구자임. 학위과정 동안 노인 사회참여, 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환경, 노인 가족관계, 노인 부부관계 등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여 KCI급 저널에 논문을 다수 게재함. 이은진 박사는 학위과정 중 BK 사업에 장기간 지원 (2015-2017년)을 받으면서 다양한 연구 및 교육활동에 참여하였음. 석사 취득 후 소아암 관련 사회복지기관에서 의료비 지원 상담 업무를 담당하며 의료사회복지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박사 학위 과정 중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의 연구 용역으로 남석인 교수팀이 진행한 ‘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에 관한 연구’에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하였음. 또한, 노인의 신체 기능 중 음식을 섭취하고 말을 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되는 삼킴기능이 노인의 삶의 의미에 미치는 바를 연구하고자 한국연구재단의 연구 과제 선정되어 진행한 남석인 교수팀의 ‘노인 삼킴 기능과 관련된 삶의 의미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에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설문지 개발 및 질적 연구 등 직접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연구와 관련한 다수의 학술논문을 게재하였음. 이은진 박사의 주요 연구 분야로는 노년기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의 역동으로 2016년에는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인 GSA Annual scientific Meeting에서 “The Relationship Among Gender Role Attitudes, Depression, and Family conflict Coping on Korean Older Adults”를 주제로 구두 발표하였음. 박사 학위논문으로는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과 자녀관계만족의 상호의존성을 살펴보고자 양질혼합연구를 적용하여 논문을 완료하였고, 2021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박사 수료 후부터는 현장 및 연구 경력을 바탕으로 호원대학교, 덕성여대 평생교육원에서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등의 과목을 강의한 바 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문제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음
- 본 사업단의 신진연구인력은 연구의 실적 외에도 참여대학원생 대상의 강의와 특강, 포럼 진행 등을 통한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외부 연구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다채로운 역할을 담당하였음

○ 연구실적

- 이현 박사는 지난 1년동안 국내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지) 4건과 국제학술지 (SSCI 1건, SCOPUS 1건) 2건을 게재하였음. 대표적인 게재논문은 다음과 같음
 - 2022년 6월 SSCI급 학술지 <Journal of Loss and Trauma>에 교신저자로서 『Complicated Grief, PTSD, and PTG in Bereaved Family: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and Family Support』라는 논문을 게재함. 해당논문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유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사별경험과 유가족의 심리적 적응 과정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규명한 가치있는 연구로서, 유가족의 PTG 촉진에 있어 회복탄력성과 가족지지의 개별 개입보다 강력한 가족지지가 동반된 개인의 회복탄력 증진을 위한 통합 개입의 중요성을 함의하였음. 죽음이라는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삶에서의 개입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가능한 트라우마의 위험성과 이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의미있는 연구로서 판단됨. 본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Journal of Loss and Trauma>는 2021년 Journal Impact Factor from Web of Science 기준 IF 4.775, Q1 등급에 해당하는 학술지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
 - 2022년 7월 SCOPUS 급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에 제1저자로서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bullying/cyberbullying, and suicidal ideation among South Korean youths: a latent profile analysis (LPA)』라는 논문을 게재함. 해당논문은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이용하여 청소년이 경험하는 교차차별을 조사하고, 차별이 심한 그룹의 구성원과 온/오프라인 괴롭힘 및 한국 청소년의 자살 생각 사이의 연관성을 평가한 연구임. 연구결과, 온라인/오프라인에서의 따돌림과 자살충동은 교차차별, 특히 성차별을 경험한 정도와 관련이 있었음. 따라서 교차차별을 겪은 취약 청소년들이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거나 자살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실천현장과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음. 한국사회의 독특한 교차차별 유형을 밝힘으로써 이를 형성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점과 파생되는 사회문제들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음. 본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는 2021년 Journal CiteScore from SCOPUS 기준 CiteScore 4.8, Q1 등급에 해당하는 학술지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
- 이은진 박사는 지난 1년동안 국내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지) 2건을 게재하였음. 대표적인 게재논문은 다음과 같음
 - 2022년 3월 KCI 등재 학술지인 <한국노년학>에 『근로 노인의 직무만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교신저자로 참여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근로 노인을 대상으로 직무만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음. 연구 결과, 근로 노인의 낮은 직무만족은 우울을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반대로 일을 함으로써 갖게 되는 개인의 효용이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가치있는 연구임. 또한, 근로 노인의 직무만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자기자비의 수준에 따라 조절됨을 확인함으로써 현재 노인이 처한 직무환경 및 일자리가 부정적 상황의 직접적인 해결 및 극복이 어렵더라도 이에 대한 대처로서 긍정적 심리기제인 자기자비의 중요성을 확인함으로써 수용 치료, 마음챙김 프로그램 등의 실천적 제언을 제시한 실용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음. 본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인 <한국노년학>은 KCI IF가 1.35인 노인복지분야의 국내 대표 학술지임
 - 2022년 8월 KCI 등재 학술지인 <인문사회과학연구>에 『노인의 권위주의 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관계망과 자기방임의 조절된 매개효과』라는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제1저자로 참여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권위주의 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경로에서 사회적 관계의 매개효과

를 확인하고, 자기방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음. 특히, 해당 연구에서는 공적인 사회영역과 사적인 가정영역에서 나타난 한국 사회의 권위 및 돌봄의 동반위기는 노인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기저를 형성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였음. 또한, 노인의 우울을 심리적인 개인차원에서 다루어 온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위기로부터 노인 개인의 수준으로 투영되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음. 연구 결과, 사회적 관계망은 노인의 권위주의 성향과 우울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권위주의 성향과 사회적 관계망, 우울의 매개모형에서 자기방임은 사회적 관계망과 우울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를 통해 노인의 우울을 감소를 위해 노인의 권위주의 성향을 개선하고, 사회적 관계망의 확대, 자기방임의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사회구조적 대안과 실천적 방안의 필요성을 제언하였음

○ 교육실적

- 국제학술대회: Global Social Work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for a Fair and Inclusive Society의 기획에 참여하고 대회에서 좌장으로 역할
- 이현 박사와 이은진 박사는 본 BK21 교육연구단,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이 주최하고 메릴랜드대학교(미국), 리버풀대학교(영국), 샤먼대학교(중국), 토론토대학교(캐나다)의 해외연구자들이 함께한 국제학술대회: Global Social Work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for a Fair and Inclusive Society를 기획하고 staff와 좌장으로 역할 하였음
- 특히, 2022년 5월 13일 ~ 5월 16일동안 개최된 본 국제학술대회의 둘째날 Rising Scholars for Future Social Work 세션에서 공동 Session Chair를 맡아 본 BK21 교육연구단의 참여대학원생들의 구두발표를 격려하고 피드백 과정을 안내하는 등 학문적 발표경험과 연구의 발전을 지원하였음
- 해당 국제학술대회는 코로나로 위축된 학술대회 활동에 BK21 교육연구단이 직접 기획하고 다양한 국가의 석학들을 연계하여 국제적 시각을 넓히고 전문적 안목을 높이는 기회이자, 지속적인 국제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음. 특히,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과 대면을 혼합하여 참여자들의 접근성과 상호작용을 높이는 쉽지않은 접근을 훌륭히 해내었음. 이러한 성과는 BK21FOUR 웹진에 담겨 공유되었음

* (2022 vol.02 웹진의 카드성과: <https://bkplusnrf.re.kr/bkplus32/html/sub06.html>)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BK21 Four 교육연구단 2022년 하계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조사분석 특강시리즈 『연구 기초 역량 함양을 위한 양·질 연구방법과 연구윤리』의 특강자로 참여
- 이현 박사는 본 BK 사업단이 2022년 8월 22일 ~ 8월 26일에 주최한 2022년 하계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조사분석 특강시리즈 『연구 기초 역량 함양을 위한 양·질 연구방법과 연구윤리』에서 후속연구세대로서 “R을 활용한 LCA 잠재계층모형 분석”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음. 사전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특강 욕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욕구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방법론을 참여대학원생의 수준에 맞추어 특강을 구성 하였음. 특강에 참여한 참여대학원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은 물론 선배 연구자로서 연구 및 진로설계에 많은 도움이 됨
- 멘토링
- 이현 박사는 본 사업단 근로자복지전공 석사과정 윤성민 학생과 2021년 2학기에 어깨동무사업에 함께 참여하면서 학문적인 멘토링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KCI등재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음. 그 이후로도 학위논문 주제 선정과 작성방법, 졸업 후 진로 및 방향설정 등 본 사업단의 BK 4단

제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후속연구세대 양성과정에 기여함

- 이은진 박사는 본 사업단 노인복지전공 박사과정 한상윤 학생과 2022년 1학기에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였음. 멘토링 활동을 통하여 국제학술지 투고방법 및 전략을 논의하였고, 멘토링 활동을 통해 『Patterns of Marital Conflict and Family Satisfaction in Middle-Aged Couples: A Latent Class Analysis』라는 주제로 학술논문을 작성하여 현재 SSCI급 학술지인 Family relations에서 수정 심사 중임. 그 이후로도 관심 연구 주제를 논의하고 공동 연구를 논의함으로써 BK 4단계에서 중시하고 있는 학생 연구원과 신진인력 간의 활발한 연구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

○ 연구사업

- 어깨동무사업(4단계 BK21 대학원혁신지원사업 일환)

- 본 BK 사업단이 속해있는 연세대학교는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연세 연구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지역대학 우수연구자(팀)와의 공동연구사업인 『어깨동무사업』을 공고하였음. 신진연구인력을 중심으로 기획된 본 BK 사업단의 사업은 ‘민간 부문 노인일자리 사업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학문후속세대 3인의 교수(김준표, 경상대학교; 정규형, 세명대학교; 이종화, 강남대학교)와 함께 기획하였고 지난 1차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음. 그 결과, 우수연구과제로 선정되었음. BK 사업의 지원으로 성장한 신진연구인력과 학문후속세대 간의 협업이라는 점에서 본 사업단이 추구하는 협력의 예시이며 현재 다년도 과제로서 2차년도 과제를 진행 중임
- 우수연구과제로 선정된 후, 한경잡앤조이에 연세대 대학원혁신 어깨동무사업을 대표하는 연구단으로 소개되었음(참조: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205234634d>)

- 위드 코로나시대의 자원봉사패러다임 연구조사

- 이현 박사는 안양의 자원봉사자(단체)와 수요처의 욕구를 조사·분석하여 자원봉사활동의 개선사항 도출 및 위드 코로나시대의 안양형 자원봉사 모델을 제시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위드 코로나시대의 자원봉사패러다임 연구조사’의 공동연구자로서 참여하였음. 현 사회 복지 생태계를 반영한 시기적절한 연구로서 새로운 자원봉사 활동 유형을 탐색하고 선제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책 마련에 기여하는 의미있는 연구로서 평가됨

□ 향후 추진계획

- 현재 선정된 어깨동무사업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연구권과 권한을 보장하고자 함. 해당 사업에서 얻어진 연구자료를 활용한 논문게재와 다년도 과제에 연구 아이디어의 적용을 독려할 것임
- 본 연구단에서 기획하는 교육·연구역량 증진 세미나와 특강 등의 참여기회를 통해 희망하는 참여 대학원생과의 연구협업과 진로·학업에서의 멘토링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것임

5.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는 참여학생들의 전공 관련 이론과 실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문영역에 특화된 교육을 체계적으로 기획하여 전달하였음. 특히 새롭게 공정, 포용, 혁신, 협력 비전추진을 위해 개편한 커리큘럼에 기반하여 교과목을 개설하고 이에 적합한 강의를 기획하고 실제 제공함

- 김진수 교수는 국내외 사회보장제도의 분석을 통해 제도적 발전을 위해 기여해 왔음. 이에 사회보장론이라는 수업을 통해 사회보험 제도를 분석하는 전체적인 틀을 다루고 있어 사회보장에 관한 개념, 이론 및 제도적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하였음. 이에 학생들이 사회제도에 대해 공정하고 포용적인 시각을 토대로 사회제도를 분석 할 수 있도록 강의해 오고 있으며, 학생들 스스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는 틀을 바탕으로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음
- 최재성 교수는 2021년 2학기 사회복지대학원 전공심화 『사회복지조직과 네트워크』 강의 진행하였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로서의 다양한 사회복지조직과 이들 조직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이해하며, 이들 사회복지조직들의 공공과 민간과의 연결성에 주목하였음.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사회복지조직은 어떻게 공공과 민간을 망라한 조직간 네트워크를 설정해야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강의하였음.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체계 이해, 사회복지조직과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 특성 이해, 민간사회복지기관간의 네트워크 특성 이해, 사회복지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이해, 조직환경에서의 네트워크이론의 응용 가능성과 한계를 연구하고 이해함. 네트워크 특성에 주목하여 시도된 조직관련 연구 사례를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주제 설정 가능성 검토하는 강의를 진행함. 2022년 1학기에는 사회복지대학원 전공심화 『사회복지조직과 네트워크』 강의 진행하였음.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수행중인 ‘2020 장기요양시설실태조사 프로젝트’ 데이터 이해, 연구질문 개발, 연구주제 설정, 연구논문 작성, 논문 투고 등에 대해 연구하고자 강의하였음. 사회복지행정관련 다양한 이론 및 최근 연구사례를 학습하여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연구설계 및 응용 가능성을 높이는데 강의의 목적이 있음. 특히, 연구질문 설정 및 연구설계의 논리적 적합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데이터 수집, 데이터분석, 연구논문 분석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함. 특강을 통하여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험 전달체계 비교하고 코로나19와 관련 불평등의 심화 현상을 논의함. 또한, SSCI 저널의 논문 투고관련 해외 학술지 검색, 논문 작성, 수정, 심사 리뷰 대응까지 종합적인 해외투고와 관련된 강의 및 투고 사례를 검토하는 강의를 진행하였음
- 남석인 교수는 위기 상황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의 존엄한 삶에 주목해 왔음. 빈곤, 질병과 관련된 불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과 가족의 삶을 위한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과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교육과 연구를 통해 학문후속세대에게 전달하고 있음. 2021년 2학기에는 구체적 실천 역량 강화 및 융복합 연구에 기반한 『만성질환과 노년기 불평등』 강의를 통해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노인의 삶과 사회 구조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교육함. 또한 누적된 불평등이 노년기 만성질환을 심화시키는 과정을 실증적 근거를 통해 제시하고, 만성질환이 노년기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이 노년기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와 사회 관계적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폭넓게 다룰 수 있도록 지도함. 그리고 2022년 1학기에는 『지역사회와 노인위기관리』 강의를 통해 노인위기의 원인과 결과가 모두 지역사회와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 포용, 혁신 및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사회구조적 변화와 노인복지 실천 방안을 모색하였음. 이외에도 『질적연구방법론』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하고 심도있는 질적연구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윤리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김재엽 교수는 ‘행복한 가족은 미래사회의 필수조건’이라는 전제하에 위기 가정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음. 우리 곁에는 빈곤 가족, 지리적 원거리로 인해 소외된 군인 가족, 은퇴한 남성 노인, 스트레스 상황에 몰린 청소년, 장애 자녀를 양육 중인 가족 등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 많음. 이에 이들을 모두 포용하고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임. 김재엽 교수는 TSL (Thank you, Sorry, Love) 가족치료를 최초로 제시하고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실천 및 연구경험을 축적하여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지도해옴. 2022년 1학기 『가족복지론』 강의에서는 가족과 관련한 국내외 주요 이론을 탐구하고 수강생들에 대한 개별지도를 통해 실천과제를 진행하였음. TSL 가족치료는 다양한 형태의 위기가족을 포용하고 사회복지학·통계학·의학이 융합(협력)된 혁신적인 사회복지 개입방법으로 다수의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공정하게 입증되었음. 김재엽 교수의 연구성과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세심한 강의는 본 연구단이 주목하고 있는 4대 비전인 공정·포용·혁신·협력의 가치가 모두 포함된 실천 방법이며, 참여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가족관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 강철희 교수는 2021년 2학기 대학원 수업 『이타주의와 사회복지』 강의를 진행하였음. 이타주의 혹은 이타성에 대한 논의는 생물학, 경제학과 심리학, 종교학과 윤리학 등의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주요한 연구 과제임. 동시에 이타주의는 관대함과 연대성 및 이웃돌봄의 가치에 기반하는 사회복지학에서도 핵심적 연구 주제일 수 밖에 없음. 그러나 이런 소중함에 비해 그간 국내에서 관련 수업은 개설되지 못함. 다학제적 이해가 요구되는 이타주의에 대한 이해 구축을 위해 본 과목에서는 biology, psychology, sociology, economics, philosophy, religion, brain study 등에서의 이타성에 대한 논의를 포괄적으로 살피었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연구자들이라 할 수 있는 경북대 경제학과 최정규 교수, 고려대 심리학과 김학진 교수 등과 같은 주요 연구자들을 초빙하여 관련 주제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토론함. 이해의 축적 과정에서 본 수업에서는 인간의 이타적 행동을 humanitarian work, acts of heroism, random acts of kindness, collaboration, reciprocity, prosocial behavior 등의 근접 개념들과 연계시키면서 이타성 논의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고 다각적으로 살폈음. 이러한 접근을 통해 사회복지학의 원천적인 토대라 할 수 있는 이타성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의 축적과 더불어 관련 주제들에 대한 연구 방법 측면에서의 실질적 이해를 도모함.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Community Engagement 수업 개설을 위한 컨설팅과 Volunteer Management 과목 개설함.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는 2022년 8월 1일부터 졸업을 위한 조건으로 학부의 모든 학생들이 Communtiy Engagement 수업을 수강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실행함. 이와 관련해서 강철희 교수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초빙석좌교수(S. R. Nathan Professor)로 임명을 받아 2022년 1월부터 Community Engagement의 두 가지 형태(전공을 토대로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에 관여할 수 있게 하는 Service Learning 형태와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Community Volunteering 형태) 중 후자의 내용에 대한 교육 체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수강해야만 하는 강의 4개 주제에 대한 구성과 디자인을 컨설팅함. 그리고 8월 1일부터는 Volunteer Management라는 과목을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학부 과정에 처음으로 개설해서 학생들이 사회의 귀한 자원인 자원봉사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음. 즉 자원봉사에 대한 학문적인 체계를 잡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자원봉사자의 관리란 과제의 수행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 역량을 제고시키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국제교육 활동은 2023년 3월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임

- 남보영 교수는 2022년 5월 연세대학교 주관으로 5개국(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이 참여한 국제학술대회(Global Social Work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for a Fair and Inclusive Society)에서 Preventing Violence Against Women 세션의 좌장을 맡아 발표와 토론을 이끌었음. 본 세션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에 대한 혁신을 논의하고자 영국경찰, 교수, 연구자, UNODC-KOSTAT Center of Excellence, 국내 사법 및 경찰행정 전공 교수 등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였음. 본 학회 발표

를 바탕으로 향후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혁신을 위한 국내 및 국제 협력이 논의되고 있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교육학술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특히 사회복지교과목 지침서 개정에 참여하였음. 사회복지교과목 지침서는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사회복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업 목표, 내용, 수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40개의 사회복지 법정 필수 및 선택 교과목 지침을 검토하고 수정하고 있음

○ 박수경 교수는 장애인복지를 연구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의 문제를 거시적, 미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였음. 먼저 『사회복지정책론』, 『장애인복지론』, 『장애와 사회참여』 등의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장애인복지분야의 주요 이슈를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중 『장애인복지론』 수업에 이용자 중심의 문제해결 연구방법인 리빙랩을 시도하였음. 교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장애인복지분야의 주요 연구주제를 직접 발굴하고 적절한 연구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정책 및 개입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음. 현재까지 연구실을 통해 배출된 학생들은 장애인 복지 정책의 일선에서 핵심적인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특히 2021년 2학기때 사회복지학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장애인복지론』 수업은 장애인 개인과 사회의 관점에서 장애를 정의해보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복지 정책과 실천분야의 구체적인 제도, 현재 핵심이슈와 전망을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장애인복지론』 수업은 고등교육혁신원 사회혁신가 인증 교과목에 해당하며, 수업과정 중 사회혁신 및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한 내용의 강의 및 실습이 함께 포함되는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이해당사자들을 만나 질적조사를 통해 핵심이슈를 발굴하고,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하는 리빙랩(living lab)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성과 중 일부는 오마이뉴스에 보도가 되기도 하여 주목을 받았음. 2022년 1학기 대표적 교육활동으로 전공심화수업인 『뉴노멀 취약계층 세미나』를 들 수 있음. 코로나 19 이후 뉴노멀 시대는 급격한 사회 전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복지체계로는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어 본 수업을 통해 사회복지대학원생들이 뉴노멀시대의 양극화 심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과 원인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사회복지정책 및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또한 이 수업은 고등교육혁신원과 대학원이 주관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대학원 교과목으로, 수업 결과와 과제산출물들은 고등교육혁신원과 대학원에서 추후 사회혁신활동 결과물로 활용되도록 제공되었음

○ 송인한 교수는 2021년 2학기 『지속가능사회복지』 과목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와 사회복지에 대해 탐구하는 강의를 하였음. 이 강의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개 목표와 한국의 맥락에서 정해진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에 대한 깊은 이해, 학생 자신의 전문성을 고려한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성찰, 지속가능한 복지실천 및 정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계획할 역량을 제공하였음. 학생들은 본 수업을 통해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사회복지실천 및 정책이 다음세대까지 지속가능할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음. 특히 본 수업에서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사회복지영역과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결하여 문헌고찰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책이 단기적인 미봉책은 아닌지 분석하였음. 또한 이러한 대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결책이 필요한지 자세히 논의하였음. 따라서 본 수업은 기존에 많이 다루지 않았던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새로운 시각을 통해 사회복지영역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수업이며,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자신의 관심 사회복지분야에 적용하고 발전시키는 교육 과정을 통해 향후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수업

이라 할 수 있음

- 최수찬 교수는 근로자복지를 다루는 『산업복지론』 수업을 진행하였음. 작업장 안팎에서 근로자들의 업무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업주나 노동조합 또는 정부의 후원 하에 행해지는 전문 사회복지사업을 가리키는 산업복지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직면하는 제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선진기업복지제도인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였음. 또한 근로 취약계층인 근로청소년, 고연령근로자, 장애인근로자, 이주노동자와 산업복지를 연계시켜 이들에 대한 임상적, 행정적, 조직적, 그리고 정책적 개입방법을 이해하도록 증진키기는 역할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하고 있음. 국내 다양한 학술지에 투고한 사회복지현장의 작업폭력과 조직대응 연구, 사회복지사의 정신건강과 직무유연성, 경찰공무원의 폭력피해경험,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생활 경험, 결혼이주여성의 거주기간과 취업관계, 노인요양시설 중간관리자의 근무경험, 고령자의 나눔행동 참여, “Loneliness, suicidal ideation, and resilie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등 시의적절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근로자복지와 사회복지영역 확장에 기여하고 있음

6. 교육의 국제화 전략

①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국제공동 교육: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Social Work와의 교류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Social Work (UMSSW) 교수진의 특강과 국제학술대회 발표
 - 2021년 2학기동안 현대사회복지세미나 I 수업을 통해 UMSSW의 총 2명의 교수진이 특강을 진행하였음

○ Professor Joan Davitt : Using Voice and Touchscreen Technology to Protect Vulnerable Clients in Residential Care Facilities

- 2021년 10월 11일 오전 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특강이 진행됨. Joan K. Davitt 교수는 사회복지 거주시설 내 취약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포토보이스와 터치스크린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함. Joan K. Davitt 교수는 거주시설에서의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사회복지사들이 전화와 야외에서의 방문, 시설 관계자에 의존해야 하는 등 더 이상 대면 접촉을 통한 개입이 어려웠음을 설명함. 이로 인해 보이스와 터치스크린 기기를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하였고, 파일럿 테스트의 진행 과정과 효과성 검증 연구 결과를 소개함. 클라이언트는 보이스와 터치스크린 기기를 사용하여 날씨와 뉴스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인터넷 검색과 정보를 접할 수 있었음. 또한 음악 감상, 비디오 시청을 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연락할 수 있었음. 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와 사회복지사들과도 기기를 통해 접촉할 수 있었음. 기기의 활용은 윤리적 고려사항이 발생하지만,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양한 유용성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본 특강을 통해 사회서비스와 IT 기술의 융복합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음

○ Professor Caroline Long : Smart Decarceration: A Grand Challenge of Social Work

- 2021년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특강이 진행됨. Caroline Long 교수는 재소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함. Caroline Long 교수는 특강을 시작하면서 사

회복지계의 12가지 과제를 설명하면서 모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건강 격차 해소, 가정폭력 방지, 장수, 노숙의 종결, 기후변화에 대한 창의적인 사회적 대비 등을 설명함. 이후 한국 사회에서의 개입이 필요한 과제를 질문하며 학생들에게 적극적 수업 참여를 유도함. 이후 Caroline Long 교수는 사회복지계 12가지 과제 중 아홉 번째인 스마트한 재소자 줄이기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함. 미국이 전 세계 중 재소자가 가장 많음을 이야기하며, 특히, 대학이 있는 지역인 매릴랜드 주의 재소자 수는 영국, 포르투갈, 캐나다 국가 전체의 재소자 수보다 더 많다는 통계를 제시함. 재소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흑인의 비율이 많은데, 재소자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이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재소자를 줄이는 것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주장함. 재소자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며, 재소자들의 인종, 경제, 건강문제를 법적 시스템으로 개입하고, 공공의 웰빙과 안전을 최대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음

- 2022년 1학기동안 본 교육연구단 주관 국제학술대회 Global Social Work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for a Fair and Inclusive Society를 통해 UMSSW의 총 8명의 교수진이 7회의 발표를 진행하였음

○ Professor Virginia Rowthorn : Opening remarks

- 2022년 5월 13일 오전 9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연구 발표를 진행함. Virginia Rowthorn 교수는 University of Maryland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간의 상호 교류 및 공동 연구의 필요성,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함. 국제 협력을 통한 연구를 통해 연구의 다양성과, 국제적인 시각과 아이디어 공유, 사회문제의 해결점을 모색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 지역에 개입한 사례를 예를 들어 국제협력의 긍정적인 영향을 이야기함. 미국과 한국의 사회적 문제에 개입함에 있어 양 교의 연구 협력을 당부하였음

○ Professor Judy Postmus : Re-Imagining a Fair & Inclusive Society in a Post-Covid World

- 2022년 5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연구 발표가 진행됨. Judy Postmus 교수는 COVID-19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공정과 포용 사회를 재구성함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연구 발표를 진행함. Judy Postmus 교수는 발표를 시작하면서 포용사회로 가는 네 가지 단계를 제시함. 첫 번째로 역사를 돌아보며 지난 세대에서의 비슷한 상황을 살펴볼 것. 두 번째 단계로는 우리의 패권을 이해하기, 세 번째는 J.E.D.I를 포용하기, 네 번째는 포용사회로 가기 위한 도전임. J.E.D.I는 다양성과 평등, 포용과 정의의 약자로서, 포용사회로 가기 위해 중요한 키워드임을 설명함. 이러한 J.E.D.I를 성취하기 위해 각자의 헌신이 필요하고, 자신부터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함. 또한 다른 이들에 대한 포용적이고 관대함을 갖고 문서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였음. 끝으로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노자의 명언을 언급하며 느리더라도 지속적인 변화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음

○ Professor Corey Shdaimah : What Does Social Justice Look Like in My Community

- 2022년 5월 13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연구 발표가 진행됨. Corey Shdaimah 교수는 문화와 언어, 전문 분야를 넘어선 사회복지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함. Corey Shdaimah 교수는 사회복지 사전에 정의 된 사회정의를 제시하면서, 사회 정의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한 기본권리와 보호, 기회, 의무, 사회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이상적 상태라고 설명함. 이후 사진과 문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소개함. 사진은 문화와 각 나라의 국어를 뛰어 넘어서 공통 언어이며, 새로운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시야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배움을 정교화할 수 있는 힘을 주며, 완성된 성과물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유용성이 있음을 설명함. 또한 사진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사례를 제시하며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 냄

○ Professor Karen Hopkins & Megan Meyer : Impact of Leadership Development on Women's Leadership Learning and Organizational Application

- 2022년 5월 13일 오후 1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발표가 진행됨. Karen Hopkins와 Megan Meyer 교수는 여성 리더십 학습의 영향과 조직에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발표를 진행함. Karen Hopkins 교수는 현재 사회는 휴먼 서비스의 욕구가 증가하는 반면, 리더십 재능은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은퇴자들이 발생하는 시점에 그들을 도울 새로운 장년층 매니저는 부족하다고 설명함. 특히, 여성 리더십의 부족이 문제인데, UMSSW 리더십 프로그램은 휴먼 서비스 매니지먼트와 리더십 훈련, 사회복지 매니저를 위한 네트워킹, 사정과 평가, 동료 코칭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소개함. 또한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5년 동안 자격증 취득 코스에 참여한 119명의 여성 중 96명이 자격을 얻어 휴먼 서비스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음을 이야기함. 이후 Megan Meyer 교수는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질적 조사에 대해 설명함. 대부분의 참가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마음가짐과 행동에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퍼포먼스나 수행 능력, 조직의 전반적인 성과 또한 높아진 것으로 보고하였음

○ Professor Joan Davitt : Using Voice and Touchscreen Technology to Protect Vulnerable Clients in Residential Care Facilities: Enhancing Equity and Access

- 2022년 5월 16일 오전 9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연구 발표가 진행됨. Joan Davitt 교수는 사회복지 거주 시설 내 취약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스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주제로 연구 발표를 진행함. Joan K. Davitt 교수는 미국 내 사회복지 거주시설에서 COVID-19로 인해 사망하는 클라이언트가 많아지고 있음을 통계로 제시하면서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음을 설명함. 이를 위해 대면 접촉을 하지 않아도 소통이 가능한 보이스 기기를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한 사례를 소개함. 파일럿 테스트의 진행 과정과 효과성 검증 연구 결과를 소개함. 클라이언트는 보이스와 터치스크린 기기를 사용하여 날씨와 뉴스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인터넷 검색과 정보를 접할 수 있었음. 또한 음악 감상, 비디오 시청을 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연락할 수 있었음. 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와 사회복지사들과도 기기를 통해 접촉할 수 있었음. 또한 질적 인터뷰를 통해 클라이언트들이 기기를 사용한 개입에 대해 가지는 의견을 소개하며,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사회서비스 접근법을 제시하였음

○ Professor Jodi Frey : Workplace Suicide Prevention - A Comprehensive Approach Integrating Downstream, Midstream, and Upstream Programs and Policies

- 2022년 5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발표가 진행됨. Jodi Frey 교수는 자살 예방이 직장 보건과 안전 우선에 왜 중요한지를 시작으로 직장 내 자살 예방에 대한 국가적 가이드라인, 직장 내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2-3가지 방법을 발표함. 미국에서 자살은 죽음의 이유 중 12번째 원인을 통계적으로 제시하면서 특히, 10대에서 3위, 20대에서의 사망원인 2위가 바로 자살임을 이야기하며 그 심각성을 이야기 함. 자살시도를 한 사람들을 직업적으로 구분했을 때, 건설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이 49.4%로 가장 많았으며, 수리업, 미디어 및 스포츠 종사자, 운송업, 보호 서비스업 순이었음. 직장내 자살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데, 직무 불안정성과 일-가정 갈등, 직장에서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되기 때문임. 이러한 직장을 원인으로 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Jodi Frey 교수는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함. 프로그램은 셀프케어 오리엔테이션, 스크리닝, 강화된 훈련, 자살 예방 문지기 훈련 등을 담고 있으며 회사에 프로그램에 접목해 자살을 예방하고 있음을 소개함

- Professor Haksoon Ahn : Impacts of Family Engagements on Reunification Outcomes for Children
- 2022년 5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발표가 진행됨. Haksoon Ahn 교수는 가족참여가 아동 양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함. 2019년 기준으로 미국 내 약 42만 명의 대리양육을 받는 아이들이 있는데, 47%가 본래 부모와 재상봉을 한다고 함. Haksoon Ahn 교수는 이러한 재상봉 가족이 온전히 재결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케이스 플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건이 재결합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함. 연구 결과, 아이의 나이가 올라갈수록 재상봉 할 가능성이 떨어지며,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의 가족 재상봉 가능성이 높았음. 또한 주 도시에 거주하는 아이들의 재결합 가능성이 높았음. 본 연구를 통해 팀 미팅 개입이 중요함을 설명하면서 대리 양육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예방책이 필요함을 이야기함

- 추후계획

- UMSSW 연구진과 본 대학원 연구진과의 매칭 연구 사업은 매칭 교수 간 연구 주제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를 진행 중이며, 2022년 2학기 내 UMSSW 연구진, 본 대학원 연구진과 본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미나를 3회 진행 예정임. 연구진과 학생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사회복지 안목을 키워나갈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특강예정일정
 - 1차) 11/13 (Sun) Sara Debabnah 교수 - 한국시간 11/14 (Mon) 9am - 11am
 - 2차) 12/04 (Sun) 안학순 교수 - 한국시간 12/5 (Mon) 9am - 11am
 - 3차) 12/11 (Sun) Jodi Frey 교수 - 한국시간 12/12 (Mon) 9am - 11am

Ⅲ

연구역량 영역

1. 참여교수 연구역량

1.1 연구비 수주 실적

〈표 3-1〉 최근 1년간(2021.9.1.-2022.8.31.)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항 목	수주액(천원)		
	3년간(2017.1.1.-2019.12.31.) 실적 (선정평가 보고서 작성내용)	최근 1년간(2021.9.1.-2022.8.31.) 실적	비고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1,763,374	658,589	2021.9.1.-2022.8.31. 1. 입금액*지분율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13,172	7,918	2021.9.1.-2022.8.31. 1. 입금액*지분율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 입금액	0	0	
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	197,394	74,056	
참여교수 수	9	9	

1.2 연구업적물

① 참여교수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참여교수의 학술논문】

-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는 최근 1년간 (2021.9.1.-2022.8.31.) 국내논문 51편, 국제저명학술논문 16편을 발표하였음. 이는 최근 1년 내 교수 1인당 평균 6.4편(8명 교수)의 국내논문과 2편 (8명 교수)의 국제저명학술지 또는 기타국제학술지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각 교수의 연구업적물 중 우수한 대표 국내논문, 국제저명학술논문 순으로 1편씩을 제시하였음

연도	국내(KCI등재/후보)	국제(국제저명학술지/기타국제학술지)
2021년2학기 (‘2021.9.1~’2022.2.28)	29	8
2021년1학기 (‘2022.3.1~’2022.8.31)	22	8
총계	51	16

○ 강철희 교수

- 국내 학술지

강철희, 정현탁, 박지영. (2021). 소득 및 소득이동과 기부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8(3), 295-325.

- 본 연구는 소득과 소득 변화가 동시에 고려될 때 기부행동에 대한 각각의 영향력 및 상호작용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인가를 밝히기 위해 수행하였음. 한국복지패널 1차부터 14차까지의 자료에 합동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음. 분석결과, 소득구간에 따른 기부행동을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그 행동은 더 일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소득이동의 경우, 소득이동에서 변동이 없는 집단에 비해 ‘하강이동’을 한 집단은 기부에 참여할 확률이 더 낮고, ‘상승이동’을 한 집단은 기부에 참여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소득이동과 가구소득 간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분석의 결과에서는 ‘소득 변동 없음’과 비교해서 하강이동과 상승이동 모두는 소득구간과 부적 방향에서 결합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그래프 분석 결과, 가구소득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강이동’에서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소득 변동 없음’, ‘상승이동’과 비교해서 일관적으로 낮은 양상이 나타남을 확인하였음. 본 연구는 기부행동은 소득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이며 구체적으로 검증한 연구로 기부자의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의 영향력을 파악하여 포용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바가 큰 연구로 평가받음

- 국제 저명 학술지

Kang, C. H., Baek, Y. M., & Kim, E. H. J. (2022). Half a century of NVSQ: Thematic stability across years and editor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51(3), 658-679.

- 본 연구는 비영리연구 분야 세계 최고 학술지인 *Nonprofit & Voluntary Sector Quarterly* (2021년 기준 IF 3.348)에 지난 50년간 출판된 논문들(1972-2019)을 분석한 논문임. 논문의 주제들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논문의 시기 구분에 맞춰서 text-mining의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음. 구체적인 분석의 방법으로는 automated content analytic method의 방법인 Structural Topic Modeling(STM)의 방법을 사용했음. 이러한 방법을 적용했을 때, 본 연구는 NVSQ에 출판된 논문들(1,516 articles)은 37개의 key thematic topic으로 주제가 파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따라서 37개의 주제에 기반해서 NVSQ의 역사적 발전의 구분을 3개의 시기로 나누고 각 주제에 대한 시기의 변화 양상이 어떠한지, 주제에 대한 변화에 있어 편집인들의 영향력(disciplinary fields)이 어떠한지를 분석했음. 분석 결과, 37개의 주제들 중 29개의 주제는 대체적으로 일정 수준의 연속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8개의 주제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발생되어 온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러한 방식의 분석을 통해서 어떤 주제에서 쇠퇴(declining trend) 혹은 새로운 증가(increasing trend)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발생되었는지를 총체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었음. 이 논문은 새로운 분석 방법인 텍스트마이닝의 방법을 적용해서 저널의 연구논문 주제의 역사를 꿰뚫어 본 매우 혁신적인 연구인 것으로 평가됨

○ 김재엽 교수

- 국내 학술지

김재엽, 장대연. (2022). 기혼 부사관이 인지한 부대 내 직무 요구와 우울의 관계: 결혼생활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군사회복지학*, 15(1), 5-25.

- 본 연구는 기혼 부사관이 인지한 부대 내 직무 요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보호요인으로서 결혼생활만족도의 조절 효과를 검증함. 연구를 위해 육·해·공군에 5년 이상 복무하고 있는 장기근속 부사관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연구 결과, 첫째, 기혼 부사관의 70.0%가 직무요구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했으며, 39.6%가 지난 2주일 동안 우울로 방해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음. 둘째, 독립변수인 기혼 부사관의 직무요구 정도는 우울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셋째, 배우자와의 결혼생활만족도는 직무요구 정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냄. 이를 통해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요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혼 부사관의 직무요구와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군 맞춤형 EAP 및 가족치료 프로그램 등 사회복지 서비스 개입을 제언함으로 포용적 사회를 이룩하는 데 이바지하였다고 평가됨. 한국군사회복지학은 한국연구재단의 2015년부터 등재학술지로 등록되어 군사회복지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학술지임

- 국제 저명 학술지

Kim, J. Y., Kim, J., Park, S., & Fear, N. (2021). Workplace victimization and alcohol misuse among junior military personnel: Mediating the role of anger.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94, 638-644.

- 직업군인의 알코올 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군대 내 괴롭힘임. 본 연구는 군대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알코올 남용을 하기까지의 영향에 있어 분노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함. 직업군인 815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군대 내 괴롭힘 피해자의 분노와 알코올 남용의 정도가 심각함이 확인되었으며, 피해자는 더 높은 수준의 분노와 알코올 남용의 정도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밝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군인이 겪는 군대 내 괴롭힘을 예방으로 분노 조절에 대한 개입방안을 제언함으로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였음. 본 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 본 논문이 실린 학회지인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의 IF는 6.533로 국제 저명 학술지임

○ 남보영 교수

- 국내 학술지

남보영, 신자현. (2022).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자살 생각과 시도의 위험요인: 자살의 대인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50(2), 90-111.

- 본 연구는 자살예방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Joiner의 자살의 대인관계 이론을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적용해 이들의 자살 생각 및 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연구 결과, 사회적 배제가 자살 생각의 가능성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취업 여부는 자살 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임을 보여줌. 선행연구에서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취업 과정에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만큼, 사회적 포용과 경제적 지원 정책이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향상 및 자살 예방을 위해 필요함을 제언함

- 국제 저명 학술지

Nam, B., Kim, J., Ryu, W., Kim, D. I., Frey, J. J., & DeVlyder, J. (2021). Perceived social stigma, self concealment, and suicide risk among North Korean refugee women exposed to traumatic events.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51(6), 1235-1246.

- 본 연구는 여성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자살 위험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남한 정착 이전의 외상사건 노출의 영향이 사회적요인 및 개인적요인에 의해 완화 또는 가중될 수 있음에 주목함. 연구 결과, 이전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북한 및 제3국에서의 외상사건 노출은 이들의 자살생각 및 행동의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이고 있었음.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인지된 사회적 낙인이 이러한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었음. 선행연구들의 경우 PTSD, 우울, 사회적 지지 등 개인적인 요인에 초점을 둔 것에 비해,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이주민을 대하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또는 차별적인지 따라 이들의 적응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 본 연구는 자살예방과 관련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게재하고 있는 저명한 국제저널인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IF 4.532)에 게재되어, 한국뿐만 아니라 이민자와 다민족 사회로 구성된 다른 나라들에서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배제, 차별을 줄이기 위한 공동체적 협력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는 의의가 있음

○ 남석인 교수

- 국내 학술지

남석인, 김준표, 손영은, 한상윤, 김세진. (2022). 복지정책 아젠다 개발 연구: 현장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4(1), 91-118.

- 본 연구는 실현 가능하고 현장에 밀착된 복지정책 및 공약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현장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복지정책 핵심 아젠다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델파이 조사와 사회복지사 1,8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아젠다에 대한 중요도 및 시급도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20대 복지정책 아젠다를 제시하였음. 현장에 밀착된 복지정책 및 공약을 소수의 정책 엘리트가 아닌, 시민의 주체로서 사회복지사가 제시하는 모델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연구이며, 포용의 가치를 실현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향후 공직선거가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아젠다인 복지 아젠다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제시함으로써 공정과 협력을 추구하는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국제저명 학술지

Kim, S., Chae, J., & Nam, S. I. (2022). Changes in the Equity of the Long-Term Care System in Korea Based on Coulter Index Differences for the Years 2000, 2008, and 2015.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34(1), 91-107.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구성요소인 시설 및 재가(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지역적 형평성을 시간적 변화의 관점에서 확인한 연구임. 시간적 변화를 제도의 도입 초기(2000년), 실제 도입시기(2008년) 및 본 연구 시점(2015년)으로 나누어 각 시기 및 지역별로 존재하는 서비스 수요 및 공급의 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따른 지역적 형평성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장기요양서비스의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모델 및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음. 특히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복지와 건강의 영역 간 통합 및 협력적 접근을 통하여 두 영역의 공통적인 특성을 반영한 수평적 형평성의 개념을 적용하였음. 또한 다양한 사례연구들과 함께 Coulter 지수를 통한 지역별 형평성 측정을 통해 심도있고 혁신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하면서, 향후 보다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인 상황들에 대한 정책 개선 및 학문적 이론 발전에 공헌함

○ 박수경 교수

- 국내 학술지

박수경, 배종필. (2021). 취업한 지적장애인의 고용안정 프로그램 개발: 리빙랩 (Living Lab) 방식의 적용. 지적장애연구, 23(4), 33-64.

- 본 연구는 취업한 지적장애인의 고용안정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한 개방형 혁신 연구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연구에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리빙랩 방법을 시도하였음. 그동안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지적장애인 이용자 중심의 리빙랩 모델을 적용하여 고용안정 프로그램을 개발한 시도는 없었음. 실제로 지적장애인의 특성상 취업 후에도 직장 부적응 또는 이직경험이 많음. 따라서 지적장애인의 고용불안정을 예방하고자 당사자와 부모의 욕구를 포용하면서 직장 부적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함. 본 연구는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리빙랩 연구 방식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현장에 모델로 적용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포용 사회 구현에 시사하는 바가 큰 연구임

- 국제 저명 학술지

Park, S. K., Rhee, M. K., & Lee, S. W. (2021). The effects of job demands and resources on turnover intention: The mediating roles of emotional exhaustion and depersonalization. Work, 70(1), 301-309.

-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직무요구와 이직 의향의 관계에서 정서적 소진과 비인간화의 직렬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로, 총 3개 도시에서 316명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음. 검

증 결과, 직무요구와 자원은 정서적 소진과 비인간화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이직의도와 관련이 있음을 밝혀냄.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잠재적인 소진을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밝혀냈으며, 사회복지사들의 근로정책 개발과 직장 내 개입을 위한 시사점과 전략을 제공하였음.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근로자 중심의 포용적인 근로 정책의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음

○ 송인한 교수

- 국내 학술지와 결혼만족도

이진혁, 송인한. (2022). 장애인 결혼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제 요인. 재활복지, 26(2), 77-103.

- 본 연구는 한국 장애인의 낮은 결혼율 및 결혼만족도가 유난히 낮은 이유가 이들이 겪는 사회적 배제 때문이라 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논문임. 현재까지 장애인의 결혼율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결혼상태 또는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절적으로 분석하여 통합적인 제언을 하기 어려웠음. 이러한 한계점을 벗어나 헤크만 2단계 모형을 활용하여 이 관계를 실증적으로 처음 파악한 혁신적인 연구임. 본 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결혼율과 결혼만족도에 함께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제 요인들을 탐색하였음. 더욱이 사회적 배제 요인들이 해소될 때 결혼율뿐만이 아니라 결혼만족도에도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줄지 실증적으로 확인하면서, 이와 관련된 개입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에 부응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장애인의 결혼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해 다기관·다학제적 협력을 통한 통합적 접근법을 제언하였음. 재활복지는 KCI IF(2020년) 0.89로 장애인복지 분야 학술지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

- 국제 저명학술지

Jhone, J. H., Song, I. H., Lee, M. S., Yoon, J. Y., & Bhang, S. Y. (2021). Is the I-PACE (Interaction of Person-Affect-Cognition-Execution) model valid in South Korea? The effect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on internet gaming disorder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on adolescents.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10(4), 967-982.

- 본 논문은 I-PACE(Interaction of Person-Affect-Cognition-Execution) model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게임 사용 장애와 부정적 아동기 경험 그리고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음. 기존 연구는 주로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아동학대라는 협소한 개념을 활용하고 있으나, 본 논문은 이를 확장 시켜 가족 내 범죄자 존재 등을 포함하는 부정적 아동기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영향을 강조하여 혁신 가치를 반영하고 있음. 또한, 삶의 시작점으로서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과 정신건강을 다루어 공정과 포용의 가치를 반영하는 연구임. 또한, 저자들의 전공은 정신의학, 보건학, 사회복지학을 포함하고 있어, 다학제적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협력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음. 본 논문의 게재된 Journal of Behavior Addiction은 2020년 기준 SCIE IF(2년) 6.27이며, 국제 정신의학과 정신건강 분야에서 22위에 해당하는 우수 국제학술지임

○ 최수찬 교수

- 국내 학술지

최수찬, 이은혜, 민진아, 박미리. (2021). 사회복지현장의 폭력 및 조직의 대응체계 실태. 사회과학연구, 32(4), 65-93.

-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현장에서 경험하는 폭력 경험과 조직의 폭력 보호체계 수준을 확인한 연구임.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폭력 문제의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폭력 행위자를 클라이언트와 직장동료, 상사로 구분하여 조사를 시행함. 연구대상자는 서울시 5개 권역 소재의 노인,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포용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413명임. 설

문조사를 통해 작업장폭력 평가도구 5개 하부요인 중 조직의 폭력 보호 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확인하였음. 또한, 작업장폭력에 인구사회학적 요소 중 성별, 직급별, 총 근무년수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음.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업장폭력 유형을 클라이언트 폭력과 함께 직장상사 및 동료로부터의 폭력으로까지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하였음. 또한, 조직의 폭력관리체계 수준을 살펴보고 폭력의 요인에 따른 고위험군을 선별하고자 시도하였음. 본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현장의 공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해 개인, 조직, 사회적 차원의 협력을 통한 적절한 대처방안 마련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혁신적인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음

○ 최재성 교수

- 국내 학술지

최재성, 최상미, 김용득, 오유경. (2022). 민간부문 긴급복지지원사업 사례연구: A재단 SOS 복지지원사업 성과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34(2), 235-273.

- 본 논문은 긴급복지지원사업 민간부문 사례연구로써 A재단의 ‘SOS 복지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및 복지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한 논문임. 본 논문은 현재까지의 긴급복지지원 관련 논문이 제도적 차원에서 공공의 긴급복지사업을 주로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점에서 벗어나 민간부문의 관점에서 접근한 혁신적 연구임. 본 연구는 복지사각지대 복지취약계층의 지원에 대한 논의 및 정책적 함의를 제언함으로써 공정한 지원과 포용사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본 논문은 A재단 긴급복지지원사업 효과성을 사례연구로써 탐색적으로 규명하고, 이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상호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함의를 도출한 연구임. 본 논문이 게재된 동서연구는 2020년 기준 KCI 등재지로 IF(2년) 0.62의 해당하는 학술지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

【참여교수의 저서】

-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는 최근 1년 동안 국어 저서 1권, 외국어 저서 1권 발간에 공동저자로 참여하였음. 해당 저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연도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월)	ISBN	참여 교수명	구분
2021년 2학기 (‘2021.9.1~ ’2022.2.28)	The Routledge Handbook of Volunteering in Events, Sport and Tourism	Routledge (2021. 11.)	9780367417093	강철희	공저
2022년 1학기 (‘2022.3.1~ ’2022.8.31)	청소년복지론	학지사 (2022. 08.)	9788999726521	김재엽	공저

○ 강철희 교수

- The Routledge Handbook of Volunteering in Events, Sport and Tourism

- 강철희 교수는 2021년 The Routledge Handbook of Volunteering in Events, Sport and Tourism 의 출판에 참여했음. 강철희 교수가 참여한 본 저서는 총 7개 주제 및 39개의 장 (chapter)으로 이뤄져 있음. 주요 내용은 일시적 이벤트, 스포츠, 관광 분야에서의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행동과 관련해서 최근의 현황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 논쟁적인 이슈들을 파악하였음. 7개의 연구 분야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음. 즉, 자원봉사 연구를 위한 학문적 접근에 대한 정리, 이벤트, 관광 및 스포츠 영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과 자원봉사자 참여 동기 등의 내용을 담는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의 영향과 사회에 남기는 유산들, 자원봉사와 관련한 최근의 주요 이슈들, 자원봉사 관련 연구의 동향과 새로운 연구 방향 제안 등임. 즉 이 저서는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포괄적이며 심층적으로 관련 내용들

을 정리하였으며 동시에 국제적 맥락에서 이뤄지는 자원봉사행동의 양상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의 확장과 심화를 도모하였음. 이 책의 출판을 위해 모인 global leading universities에 소속된 50여명의 학자들은 자원봉사의 특수영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학문적으로 조망하는 이 책은 Events, Sport and Tourism 영역 자원봉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의 구축에 기여하였음. 이를 통해 다양한 학문 영역 분야를 초월해서 자원봉사의 연구와 실천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였음. 특히 강철희 교수는 런던올림픽, 벤쿠버올림픽, 평창올림픽에 참여한 수만 명 자원봉사자들의 속성과 동기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올림픽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 동기와 관련해서 문화-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이해가 결합될 필요성이 크다는 사실을 밝히고 제시하였음

○ 김재엽 교수

- 청소년복지론

- 김재엽 교수는 2022년 『청소년복지론』을 국내 우수 연구진들과 함께 출판하였음. 본 저서는 청소년이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숙의 존재가 아닌, 현재 시점에서 이미 존엄을 갖춘 한 인간으로 충분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청소년복지의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있음. 또한 김재엽교수 연구팀의 다년간의 연구 결과를 실증자료로 활용하여 청소년에 관한 최신의 독자적인 데이터를 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론서임

② 교육연구단의 학문적 수월성을 대표하는 연구업적물 최근 1년 (2021.9.1.-2022.8.31.)

연번	대표연구업적물 설명
1	Kim, S., Chae, J., & Nam, S. I. (2022). Changes in the Equity of the Long-Term Care System in Korea Based on Coulter Index Differences for the Years 2000, 2008, and 2015. <i>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i>, 34(1), 91-107.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구성요소인 시설 및 재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지역적 형평성을 시간적 변화의 관점에서 확인한 연구임. 시간적 변화를 제도의 도입 초기 (2000년), 실제 도입시기 (2008년) 및 본 연구 시점 (2015년)으로 나누어 각 시기 및 지역별로 존재하는 서비스 수요 및 공급의 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따른 지역적 형평성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장기요양서비스의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모델 및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음. 특히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복지와 건강의 영역 간 통합 및 협력적 접근을 통하여 두 영역의 공통적인 특성을 반영한 수평적 형평성의 개념을 적용하였음. 또한 다양한 사례연구들과 함께 Coulter 지수를 통한 지역별 형평성 측정을 통해 심도있고 혁신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하면서, 향후 보다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인 상황들에 대한 정책 개선 및 학문적 이론 발전에 공헌함. 이 저널은 현재 IF 지수 7.084이고 5년 IF 지수 25.129의 국제 저명 학술지임

2	Kang, C. H., Baek, Y. M., & Kim, E. H. J. (2022). Half a century of NVSQ: Thematic stability across years and editors. <i>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i>, 51(3), 658-679. 본 연구는 비영리연구 분야 세계 최고 학술지인 Nonprofit & Voluntary Sector Quartely (NVSQ)에 지난 50년간 출판된 논문들 (1972-2019)을 분석한 논문임. 논문의 주제들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논문의 시기 구분에 맞춰서 text-mining의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음. 구체적인 분석의 방법으로는 automated content analytic method의 방법인 Structural Topic Modeling (STM)의 방법을 사용했음. 이러한 방법을 적용했을 때, 본 연구는 NVSQ에 출판된 논문들 (1,516 articles)은 37개의 key thematic topic으로 주제가 파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따라서 37개의 주제에 기반해서 NVSQ의 역사적 발전의 구분을 3개의 시기로 나누고 각 주제에 대한 시기의 변화 양상이 어떠한지 그리고 주제에 대한 변화에 있어 편집인들의 영향력 (disciplinary fields)이 어떠한지를 분석했음. 분석 결과, 37개의 주제들 중 29개의 주제는 대체적으로 일정 수준의 연속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8개의 주제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발생되어온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러한 방식의 분석을 통해서 어떤 주제에서 쇠퇴 (declining trend) 혹은 새로운 증가 (increasing trend)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발생되었는지를 총체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었음. 이 논문은 새로운 분석방법인 텍스트마이닝의 방법을 적용해서 저널의 연구논문들 주제의 역사를 꿰뚫어본 매우 혁신적인 연구인 것으로 평가됨. 이 저널은 현재 IF 지수 3.348이고 5년 IF 지수 3.895의 국제 저명 학술지임
3	Kim, J. Y., Kim, J., Park, S., & Fear, N. (2021). Workplace victimization and alcohol misuse among junior military personnel: Mediating the role of anger. <i>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i>, 294, 638-644. 직업군인의 알코올 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군대 내 괴롭힘임. 본 연구는 군대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알코올 남용을 하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분노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함. 직업군인 815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군대 내 괴롭힘 피해자의 분노와 알코올 남용의 정도가 심각함이 확인되었으며, 피해자는 더 높은 수준의 분노와 알코올 남용의 정도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밝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군인이 겪는 군대 내 괴롭힘을 예방으로 분노 조절에 대한 개입방안을 제언함으로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였음. 본 연구를 통해 공정한 복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 본 논문이 실린 학회지는 IF가 6.533으로 국제 저명 학술지임
4	Jhone, J. H., Song, I. H., Lee, M. S., Yoon, J. Y., & Bhang, S. Y. (2021). Is the I-PACE (Interaction of Person-Affect-Cognition-Execution) model valid in South Korea? The effect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on internet gaming disorder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on adolescents. <i>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i>, 10(4), 967-982. 본 논문은 I-PACE (Interaction of Person-Affect-Cognition-Execution) model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게임 사용 장애와 부정적 아동기 경험 그리고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음 기존 연구는 주로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아동학대라는 협소한 개념을 활용하고 있으나, 본 논문은 이를 확장 시켜 가족 내 범죄자 존재 등을 포함하는 부정적 아동기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영향을 강조하여 혁신 가치를 반영하고 있음 또한, 삶의 시작점으로서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과 정신건강을 다루어 공정과 포용의 가치를 반영하는 연구임. 그리고 저자들의 전공은 정신의학, 보건학, 사회복지학을 포함하고 있어, 다 학제적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협력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음. 본 논문이 게재된 이 저널은 IF가 6.27로 국제 저명 학술지임

5	Nam, B., Kim, J., Ryu, W., Kim, D. I., Frey, J. J., & DeVlyder, J. (2021). Perceived social stigma, self-concealment, and suicide risk among North Korean refugee women exposed to traumatic events. <i>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i>, 51(6), 1235-1246. 본 연구는 여성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자살 위험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남한 정착 이전의 외상사건 노출의 영향이 사회적요인 및 개인적요인에 의해 완화 또는 가중될 수 있음에 주목함. 연구 결과, 이전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북한 및 제3국에서의 외상사건 노출은 이들의 자살생각 및 행동의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이고 있었음.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인지된 사회적 낙인이 이러한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었음. 선행연구들의 경우 PTSD, 우울, 사회적 지지 등 개인적인 요인에 초점을 둔 것에 비해,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이주민을 대하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또는 차별적인지 따라 이들의 적응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 본 연구는 자살예방과 관련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게재하고 있는 저명한 국제저널인 <i>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i> (IF 4.532)에 게재되어, 한국 뿐만 아니라 이민자와 다민족 사회로 구성된 다른 나라들에서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배제, 차별을 줄이기 위한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는 의의가 있음. 본 논문이 게재된 이 저널은 IF가 4.532로 국제 저명 학술지임
6	Park, S. K., Rhee, M. K., & Lee, S. W. (2021). The effects of job demands and resources on turnover intention: The mediating roles of emotional exhaustion and depersonalization. <i>Work</i>, 70(1), 301-309. 사회복지사의 이직의향의 원인인 직무 요구, 감독 지원 및 소진이 예측 요인으로 확인되었음. 하지만, 요인들 사이의 기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바, 본 연구를 통해 직무요구와 이직 의향의 관계에서 정서적 소진과 비인간화와 같은 감정 소진 요인들의 직렬 매개효과를 알아보고 검증하였음. 총 3개 도시에서 316명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직렬 매개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음. 연구결과, 직무요구와 자원은 정서적 소진과 비인간화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이직의도와 관련이 있음을 밝혀 냄.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잠재적 소진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 사회복지사들의 근로정책 개발과 직장 내 개입을 위한 시사점과 전략을 제공하였음. 본 논문이 게재된 이 저널은 IF가 1.803으로 국제 저명 학술지임

2.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신청서 기준 교육연구단의 산업·사회 문제해결 기여 계획

계층	1	나눔교육의 확산 모색
	2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개혁을 통한 저소득자 보호 강화에 기여
	3	지역사회 사회복지 지표의 융복합적 연구를 통한 포용적인 사회 진입
	4	농어촌 지역 의료시설 강화
	5	감정노동자의 폭력예방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 개발 연구
	6	리빙랩 방식의 확산으로 사용자 중심의 문제해결 방법 제시
성	1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사회적 배제경험과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2	노년기 젠더 불평등에 관한 연구
세대간 통합	1	세대공존 연구
	2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중심케어 연구
	3	노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SMiLE’ 및 ‘SMiLE 애플리케이션’ 보급
사회적 위험 해소	1	대검찰청 구성원 대상 갈등 감소 프로그램 개발
	2	발달장애 6개년 지원사업 통합성과 분석연구
	3	자살 및 건강불평등에 대한 국제적 협력 연구
	4	장기적 관점으로서 사회보험의 미래와 혁신에 관한 연구
	5	코로나19 사태가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 본 교육연구단은 “계층, 성, 세대간 통합, 사회적 위험 해소” 네 가지의 산업,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였음. 본 교육연구단은 “계층, 성, 세대간 통합, 사회적 위험 해소”라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연구를 통한 논문 발표, 저서 발간뿐만 아니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수주한 정부 연구 및 다양한 산업체 연구비를 수주하여 산학 협력적인 구조 내에서 실질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본 교육연구단이 다양한 영역에서 기여한 바는 다음과 같음

○ The Routledge Handbook of Volunteering in Events, Sport and Tourism (공저) 저서 발간

- 강철희 교수는 2021년 The Routledge Handbook of Volunteering in Events, Sport and Tourism 의 출판에 참여했음. 강철희 교수가 참여한 본 저서는 총 7개 주제 및 39개의 장 (chapter)으로 이뤄져 있음. 주요 내용은 일시적 이벤트, 스포츠, 관광 분야에서의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행동과 관련해서 최근의 현황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 논쟁적인 이슈들을 파악하였음. 7개의 연구 분야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는 자원봉사 연구를 위한 학문적 접근에 대한 정리, 이벤트, 관광 및 스포츠 영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과 자원봉사자 참여 동기 등의 내용을 담는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의 영향과 사회에 남기는 유산들, 자원봉사와 관련한 최근의 주요 이슈들, 자원봉사 관련 연구의 동향과 새로운 연구 방향 제안 등임. 즉 이 저서는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포괄적이며 심층적으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였으며 동시에 국제적 맥락에서 이뤄지는 자원봉사행동의 양상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의 확장과 심화를 도모하였음. 자원봉사의 특수영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학문적으로 조망하는 이 책은 Events, Sport and Tourism 영역 자원봉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의 구축에 기여하였음. 이를 통해 다양한 학문 영역 분야를 초월해서 자원봉사의 연구와 실천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였음. 특히 강철희 교수는 런던올림픽, 밴쿠버올림픽, 평창올림픽에 참여한 수만 명 자원봉사자의 속성과 동기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올림픽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 동기와 관련해서 문화-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이해가 결합될 필요성이 크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포용적인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음

○ 법인형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 강철희 교수는 행정안전부의 산하기관의 용역을 받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수주로 ‘법인형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함. 강철희 교수 연구팀은 본 연구를 통해 전국자원봉사센터의 일반현황을 파악하고, 법인형 자원봉사센터의 심층 분석을 통해 역량을 진단하였음. 이를 통해 포용적인 사회 구현을 위한 자원봉사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바가 큰 법인형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안하였음

○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의 Community Engagement 강의 개설

- 강철희 교수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는 2022년 8월 1일부터 졸업을 위한 조건으로 학부의 모든 학생들이 Communitiy Engagement 수업을 수강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실행함. 강철희 교수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초빙석좌교수 (S. R. Nathan Professor)로 임명을 받아 2022년 1월부터 Community Engagement의 강의 4개 주제에 대한 구성과 디자인을 컨설팅함. 2022년 8월 1일부터는 Volunteer Management라는 과목을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학부 과정에 처음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이 사회의 귀한 자원인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음. 이는 자원봉사에 대한 학문적인 체계를 잡고, 더 나아가서 자원봉사자의 관리란 과제의 수행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 역량임을 제고시키는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음

성과 2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고찰을 통한 제도 개선 및 강화에 기여

○ 사회보장보장제도 기능 개혁을 위한 연구

- 박수경, 김진수, 최재성 교수는 불평등 해소 정책 DB구축을 위하여 사회보험과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정책적 고찰을 시도한 연구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함
- 김진수 교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함. 이에 기존의 농업인, 공무원, 일반국민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보장 체계에서 공정하고, 포용적인 제도적 수용을 위해 힘써왔음. 이에, 2021년 하반기에 진행된 3가지 연구 용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특수직 역군인 사립교직원의 재해보상 방안’ 연구를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보상제도가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안전사고가 심하거나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은 직군 특성상 그 발전이 더 더딘 편이기에 더욱 혁신적인 사회보장 제도가 필요함을 제언하는 역할을 함. 또한, 농업인의 안전보험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농협을 중심으로 보장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작농의 보호가 비교적 부족한 편으로 보호 방안에 대해 강구하는 역할을 함. 마지막으로 사회보험 적용 부과 징수체계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오고 있음. 이에 보다 선진화된 방안을 강구하는 역할을 제시하고 제도적 제언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미래에 대해 논의함

성과 3

지역사회 사회복지 지표 및 농촌 지역 불평등 해소 연구

○ 농어촌 사회복지 지표 관련 연구

- 김진수 교수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위원으로 농어민의 생활 및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음. 특히, 이들의 생활 및 삶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의 측정 및 평가를 진행하면서 소외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지원까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위원으로 농어민의 생활 및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음. 특히, 이들의 생활 및 삶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의 측정 및 평가를 진행하면서 소외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지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지역 의료시설 강화를 위한 연구

- 남석인 교수는 ‘지역사회 거주 고령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영향요인 유형화 연구’와 ‘Changes in the Equity of the Long-Term Care System in Korea Based on Coulter Index Differences for the Years 2000, 2008, and 2015’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의료시설 및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후자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 및 재가(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지역적 형평성을 시간적 변화의 관점에서 확인한 연구임. 시간적 변화를 제도의 도입 초기(2000년), 실제 도입시기(2008년) 및 본 연구 시점(2015년)으로 나누어 각 시기 및 지역별로 존재하는 서비스 수요 및 공급의 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따른 지역적 형평성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장기요양서비스의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모델 및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음. 특히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복지와 건강의 영역 간 통합 및 협력적 접근을 통하여 두 영역의 공통적인 특성을 반영한 수평적 형평성의 개념을 적용하였음. 또한, 다양한 사례연구들과 함께 Coulter 지수를 통한 지역별 형평성 측정을 통해 심도있고 혁신적인 연구방

법을 제시하면서, 향후 보다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인 상황들에 대한 정책 개선 및 학문적 이론 발전에 공헌함

성과 4

감정노동자의 폭력예방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 개발 연구

○ 연예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TSL®-CEL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 김재엽 교수는 연예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TSL®-CEL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근거기반실천을 위한 의생명-사회과학의 학제 간 융합적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를 발표하였음. 본 연구는 사회과학과 의생명과학의 학제 간 융합적 접근을 토대로 연예인의 정신건강의 문제를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한 것임.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TSL-CEL (Thank, Sorry, Love-Celebrity)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의 사회복지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음.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예인 총 60명에 대해 사회과학적 측정인 스트레스와 의생명과학적 측정인 타액의 Cortisol 농도를 측정하여 확인하였음. 분석결과, 연예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TSL-CEL 프로그램 개입이 실험집단 참여자의 ‘스트레스’와 신체 호르몬인 ‘코티졸(Cortisol)’이 유의하게 감소함을 확인하였음. 본 연구는 TSL-CEL의 적용을 통해 근거기반실천 (Evidence-based practice)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연예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포용적인 고찰을 시도한 연구임

○ 콜센터 종사자의 소진에 관한 연구: 직장 내 폭력, 조직지원인식, 여가활동의 영향력 분석

- 최수찬 교수는 콜센터 종사자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환경적 요인 (직장 내 폭력)과 보호요인 (조직지원인식, 여가활동)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음. 연구를 위해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시 소재 통신, 금융 (카드, 은행, 보험), 유통 (백화점, 쇼핑몰, 홈쇼핑) 관련 민간 기관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총 398명을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고객의 정신적·성적 폭력은 소진에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요인인 조직지원인식과 여가활동은 소진에 부적인 방향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영향요인들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결과, 조직지원인식이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객의 정신적·성적 폭력, 여가활동 순으로 확인되었음. 본 연구는 감정노동자의 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소진을 예방하고자 사회 전반의 협력과 포용적 노력을 기반으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음

성과 5

리빙랩 방식의 확산으로 사용자 중심의 문제해결 방법 제시

○ 장애인 대상 리빙랩 방식을 적용한 사용자 중심의 연구

- 박수경 교수는 리빙랩 방식의 적용을 통해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사용자 중심의 문제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연구들을 진행 중임.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최첨단의 기술 (AI, Deep-Learning) 등을 장애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적용하는 융복합적 방안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경계성 발달장애인, 중·노년기 발달장애인, 근육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상생활,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전통적인 사회복지지원과 함께 ICT

와 컴퓨터, 모바일 기기의 결합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개발·적용 중임

- 박수경 교수는 『취업한 지적장애인의 고용안정 프로그램 개발 : 리빙랩(Living Lab) 방식의 적용 연구』 논문을 출판함. 본 논문에서는 지적장애인의 특성상 취업 후에도 직장 부적응 또는 이직경험이 많은 점을 지적하고, 지적장애인의 고용불안정을 예방하고자 당사자와 부모의 욕구를 포용하면서 직장 부적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본 연구는 취업한 지적장애인의 고용안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연구에 함께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리빙랩 방법을 시도하였음. 지금까지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지적장애인 이용자 중심의 리빙랩 모델을 적용하여 고용안정 프로그램을 개발한 시도는 없었음. 본 연구는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리빙랩 연구 방식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현장에 모델로 적용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혁신적인 연구로 볼 수 있음

성

성과 1

여성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남보영 교수는 2022년 5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과 본 교육연구단의 주최로 5개국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이 참여한 국제학술대회 Global Social Work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for a Fair and Inclusive Society에서 Preventing Violence Against Women 세션의 좌장을 맡아 발표와 토론을 이끌었음. 본 세션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에 대한 혁신을 논의하고자 영국의 경찰, 교수, 연구자, UNODC-KOSTAT Center of Excellence, 국내 사법 및 경찰행정 전공 교수 등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였음. 본 학회 발표를 바탕으로 향후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혁신을 위한 국내 및 국제 협력이 논의되고 있음
- 남보영 교수는 2022년 1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Society for Social Work and Research (SSWR) 26th Annual Conference에 참여해 학생들과 함께 6개의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였음. 그 중에서도 “Determinants of Mental Health Service Use Among North Korean Refugee Women in South Korea” 라는 주제로 진행한 포스터 발표에서는 높은 우울 및 자살율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서비스 접근에 기여하는 요인들에 대해 논의하였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인 경우,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해소가 이들의 서비스 이용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음
- 남보영 2022년 여름 영국의 리버풀 대학에서 개최된 Policing Domestic Abuse: Covid to VAWG (6/30~7/1)에 초청되어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gender-based violence 위험과 영향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짐. 해당 발표에서는 탈북 과정에서의 성폭력 피해 경험이 남한 사회 정착 이후의 가정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였음. 학술대회 토론 과정에서 이주민여성 등 취약계층의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대응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 (예-특수 형광물질이 담긴 스프레이 등으로 가해자 모르게 가해사실을 표시) 및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경찰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관련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국·내외 석학들과 공동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최수찬, 남보영 교수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생활을 통해 바라본 남한 사회적응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음. 남보영 교수는 『Polyvictimization risk among North

Korean refugee women in South Korea』, 『Perceived social stigma, self-concealment, and suicide risk among North Korean refugee women exposed to traumatic events』 등의 국제 공동연구를 출판하였음. 또한, 『Polyvictimization and psychological outcomes among North Korean refugee women』 등의 공동 연구 논문이 출판 예정에 있음. 이외에도 남보영 교수는 현재 Journal of Workplace Behavior Health 의 editorial board member 로도 활동하고 있음

세대간 통합

성과 1

노인요양시설 및 돌봄서비스 관련 연구

○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중심케어연구

- 남석인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2차시범사업 연구’에 공동연구자로 연구에 참여하였음. 노인요양시설에는 의료 및 간호처치 욕구가 높은 노인들도 입소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을 설치하여 의료 및 간호처치 욕구가 있는 대상에게 체계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요양과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범사업으로 기초 연구를 마침. 이는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인 노인의 욕구를 반영한 거주자중심케어 서비스 혁신의 기초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제공매뉴얼 개선 보완연구

- 남석인 교수는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서비스의 제공매뉴얼을 개선·보완하는 연구’를 수행함. 기존 약 47페이지 분량의 매뉴얼을 개선·보완하여 2022년 6월 약 141페이지 분량의 매뉴얼로 발간함. 기존 매뉴얼의 개선사항과 현장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 중인 총 646개소의 전담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매뉴얼 기초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673인 (644개소)의 응답을 수집하고,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총 11인을 대상으로 2회 (각 5인, 6인)의 FGI를 실시함.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FGI에서 기존 매뉴얼의 개선사항으로 문장형 설명으로 인한 낮은 가독성, 형식적 구분으로 인한 현장 적용 어려움, 반복 기술된 영역 등이 제시됨.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 자료와 부록 자료를 추가하고 통합적 구조에 기반하여 보다 직관적이고 실용적이며 포괄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함. 이 외에도 이용자, 생활지원사, 전담사회복지사 간 서로 돌봄 관계에서의 존중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자립력을 강조하고자 함

○ 노인요양시설 중간관리자의 근무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 최수찬 교수는 노인요양시설의 효과적인 조직운영과 관리를 위해 핵심적 역할을 하는 중간관리자의 직무경험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질적 연구를 진행함. 노인요양시설의 중간관리자는 실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직원과 자원을 관리하고, 돌봄서비스 활동을 감독, 조정, 평가하며, 시설장에서부터 서비스 직접제공인력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소통과 연계를 하는 등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 중간관리자의 직무경험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하였음. 본 사례연구에서는 연구 안내 자료를 발송한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837개소에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중간관리자 24명 중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대상자 8명을 유의 표집 (purposive

sampling)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음. 연구결과, 중간관리자의 핵심 역할과 관련해서 20개의 하위범주와 9개의 상위범주, 4개의 핵심주제가 도출되었고, 그 핵심주제는 ‘시설장과 직원들의 연결고리로서 원(one)팀 만들기’, ‘어르신 및 보호자의 주된 소통창구 역할 해내기’, ‘중간자로서 가치 혼란 속에서 균형 잡기’, ‘제도·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중간관리자에 대한 지원과 직무 경험에 대한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공정하고 협력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고 직무를 지원하기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음

성과 2

노인을 대상으로 한 ‘SMiLE’ 및 ‘SMiLE 어플리케이션’ 효과성 검증

○ 노인을 대상으로 한 ‘SMiLE’ 및 ‘SMiLE 어플리케이션’ 효과성 검증

- 남석인 교수는 노인 삼킴 기능과 관련된 삶의 의미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를 진행 중임. 2021년 11월 미국 Arizona에서 개최된 GSA 2021 Annual Scientific Meeting에 “Feasibility study of a tablet-based intervention to enhance the meaning in life among older adults” 및 “Determinants of intervention to use digital technology for older adults by environmental dimensions” 연구를 구두 발표함. 두 연구는 융합적 관점에서 디지털 시대 노인의 포용 방안을 탐색하였으며, 남석인 교수가 개발해 온 <SMiLE 중재 어플리케이션>의 효과성을 혁신적인 방법을 통하여 검증한 연구임. 이를 통하여 노년학 분야 세계 석학과의 교류를 기반으로 연구의 발전 및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임
- 남석인 교수가 연구·개발한 <SMiLE 척도>, <SMiLE 노인집단상담>, <SMiLE중재 어플리케이션> 등은 삶의 의미 증진을 목표로 하는 학문적 성과물로 벨기에 KU르우벤 대학교 Jessie Dezutter 교수팀 및 대한민국대학교의 Peishan Yang 교수팀과 협력적 관계를 통한 공동 연구 및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사회적 위험 해소

성과 1

사회적 위험 해소를 위한 정부 및 민간 수주 연구 진행

○ 장애인 가족의 사회정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박수경 교수와 김재엽 교수는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협약하여 ‘서울시 장애인가족 내 비장애자녀의 사회정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음. 본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 자녀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우울 관계: 객관적·주관적 양육부담의 직렬 매개효과 검증』, 『학령기 발달장애 자녀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우울과의 관계 : 양육부담감과 부부간 긍정적 의사소통(TSL)의 조절된 매개효과』, 『발달장애 자녀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부모의 양육 부담감 및 우울과의 관계: 종교활동 참여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이라는 세 편의 논문을 출판하여 발달장애 자녀와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논문들을 출판하였음 (2021년 자체보고 완료)
- 박수경 교수는 ‘서대문구 장애인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아 책임연구자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서대문구 장애인의 욕구 파악, 국내외 관련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분석, 서대문구 차원의 효과적인 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 중임. 이를 위해 욕구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국내외 정책 분석을 위한 문헌연구, 정책 및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리빙랩 수행 등을 시행하고자 함. 이를 통해 리빙랩 (Living Lab)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보다

실효성을 갖춘 정책과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장애인 중심의 포용적인 정책과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발달장애 6개년 지원사업 통합성과 분석연구 진행

- 최재성 교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발달장애 6개년 지원사업 통합성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음. 본 연구는 6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발달장애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해당 사업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한 바가 큼. 현재 해당 연구의 분석연구 결과들로 학술 논문을 준비 중임 (2021년 자체보고 완료)

○ SOS 복지지원사업 평가연구

- 최재성 교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SOS 복지지원사업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함. 아산재단은 2018년부터 사회복지 지원사업의 하나로 SOS 복지지원사업을 수행해 왔음. 사업 시작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점검하고 사업성과를 확인하여 향후 사업 방향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SOS 복지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이견이 존재해 왔음 (구체적으로 정부 긴급지원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과의 중복성 및 공공의 책임성 강화 경향, 그리고 다수의 민간재단 유사사업과의 경합성 등으로 인해 사업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따라서 중장기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또한, 최근 지원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일선 주민복지지원센터 및 지자체의 추천으로 정부사업을 보완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연구 배경 하에 최재성 교수는 현재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SOS 복지지원사업의 특성을 규명하고, 사업성과를 확인하여 향후 사업 방향성 설정을 위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여 공정한 SOS 복지지원사업의 방향성을 제안하였음

성과 2

자살 및 건강 관련 국내외 연구 진행

○ 자살 및 건강 관련 국내외 연구 진행

- 송인한 교수는 ‘통합적 자살모델의 국가간 비교에 대한 연구’ 계획을 빌뉴스대학 심리학과와 함께 리투아니아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과 안전 및 손상 관리와 사망보고 시스템에 관한 공동연구 중임
- 미국 최대 규모이며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학회인 미국보건학회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의 149차 연례학술대회에서 자살과 관련한 “The effect of employment security on suicide ideation: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function”, “Association between exposure to suicide events and suicidal ideation: Comparison among exposure to suicidal, non-suicidal, and no death”의 두 가지 주제로 포스터 발표함

성과 3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회복지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 코로나가 국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및 사회복지적 해결방안 모색

- 송인한 교수는 코로나19 전후 비교를 통한 여성의 직종별 우울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를 진

행하였음

- 강철희 교수는 코로나 상황이 시민 기부 행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해피빈 모금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함
- 최수찬 교수는 코로나 상황에서 Loneliness, suicidal ideation, and resilie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연구 등을 진행함

○ 코로나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 진행

- 최수찬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를 진행 중임. 연구책임자인 캐나다 원저대학의 Jayashree Mohanty 교수를 비롯하여 미국, 싱가포르, 한국 등 4개국 연구자가 참여하는 ‘Coping, Family, & Social Well-being during COVID-19: Cross-National Research on Families의 국제 비교 연구’에 한국 측 대표 연구자로 참여하고 있음. 시도별 확진자 현황에 따라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한 서울, 경기,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1차 (1,000명), 2차 (1,000명) 설문조사를 실시함
- University of Wyoming의 Sukyung Yoon 교수와 코로나19가 한국의 아동, 가족, 노인, 근로자 등 다양한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동 연구를 진행 중임. 2021년 11월 미국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GSA) Annual Scientific Meeting에서 “Moderating Effects of Loneliness on COVID-19-Related Stress and Anxiety in Middle and Later Life in South Korea” 연구를, 2022년 1월 미국 SSWR 26th Annual Conference에서 “Stress Related to COVID-19, Anxiety and Resilience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연구를 포스터 발표함. 또한, 두 교수의 공동 연구인 “Stress-related to COVID-19, anxiety, and protective factors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in the largest outbreak areas in South Korea” 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2021년 12월 Aging & Mental Health 저널에 온라인 게재하고, “The Impact of Stress Related to COVID-19 on Anxiety: The Role of Loneliness” 제목의 논문을 Health &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저널에 투고하는 등 국제 연구자와의 협력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임

□ 계획

- 계층, 성, 세대간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참여 교수들이 다양한 주제의 연구 용역을 맡아 진행하였음. 최근 1년 동안에는 ‘재해보상 맞춤형 토탈 케어 기반 구축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 ‘농업인안전보험 운영방식 선진화에 관한 연구’, ‘사회보험 적용 부과 징수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진수 교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제공매뉴얼 개선 보완연구’ (남석인 교수), ‘불평등해소정책 DB구축 사업: 사회보험과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박수경, 김진수, 최재성 교수), ‘법인형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강철희 교수), ‘SOS 복지지원사업 평가연구’ (최재성 교수)를 완료하였음. 완료된 연구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의 학문적 함의를 제시하는 학술 논문들을 작성 중임. 이를 통해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 또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후속연구를 계획중임. 또한 박수경 교수는 리빙랩 방식의 장애인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여 서대문구 장애인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미있는 제언을 제공할 예정임

3. 참여교수의 연구의 국제화 현황

①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및 현황

-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진은 다양한 국제학회/학술대회 활동, 국제학술지 관련 활동, 국제 저술 활동들에 참여하여 국제적 학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국제 연구 네트워크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음

□ 강철희 교수

○ 국제 저술 활동

- 싱가포르 국립대학교가 발간하는 SSCI 저널인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가 최초로 출간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게재한 모든 논문에 대한 주제 분석 연구를 2022년 1월부터 해당 저널의 editors와 함께 진행하고 있음.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한 SSCI 논문집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당 저널 논문들이 어떤 주제들을 다뤘고 그 트렌드가 어떠한지를 Structural Topic Modeling이란 분석 방법을 적용해서 연구 중에 있음. 연구가 완료되면 <Asian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에 게재될 예정임

□ 김재엽 교수

○ 국제학회/학술대회 활동

-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큰 국제학술대회인 Society for Social Work and Reserch (SSWR) Annual Conference에 다회 참여하여 포스터 및 구두발표를 진행함. 19년도부터는 매년 연속적으로 참여하여 결혼이주여성, 탈북여성, 제대군인 가족 등 소외계층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들을 발표하여 국제사회에 소외계층을 포용하여 더 성숙하고 공정한 사회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알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국제학술지 관련 활동

-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SSCI 국제학술지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에서 reviewer로 논문 심사 활동을 하고 있음. 이를 통해 관련 분야 학자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꾸준히 논의하고 있으며, 국제적 선진 연구 및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프로그램에 적용함으로써 혁신적인 연구를 진행함

○ 국제 협력 연구

-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6년부터 수행된 한미특별협력사업 및 Global Network 사업을 통해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의 국제적 군사회복지 연구팀과의 학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음. 이를 기반으로 영국 King 's college의 Nicola Fear 교수와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로 『Workplace victimization and alcohol misuse among junior military personnel: Mediating the role of anger (2021)』이라는 제목으로 연구 발표함

□ 남보영 교수

○ 국제학회/학술대회 활동

- 2022년 1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Society for Social Work and Research (SSWR) 26th Annual Conference에 참여해 학생들과 함께 6개의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였음. 그 중에서도 “Determinants

of Mental Health Service Use Among North Korean Refugee Women in South Korea”라는 주제로 진행된 포스터 발표에서는 높은 우울 및 자살율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서비스 접근에 기여하는 요인들에 대해 논의하였음.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인 경우에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해소가 이들의 서비스 이용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음

- 2022년 5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BK21 FOUR 교육연구단,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 Global Social Work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for a Fair and Inclusive Society에서 Preventing Violence Against Women 세션의 좌장을 맡아 발표와 토론을 이끌었음. 본 세션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에 대한 혁신을 논의하는 자리로 영국경찰, 교수, 연구자, UNODC-KOSTAT Center of Excellence, 국내 사법 및 경찰행정 전공 교수 등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였음. 본 학회 발표를 바탕으로 향후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혁신을 위한 국내 및 국제 연구 협력을 논의 중임
- 2022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영국의 리버풀 대학에서 개최된 Policing Domestic Abuse: Covid to VAWG에 초청되어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gender-based violence 위험과 영향에 대해 발표함. 구체적으로는 탈북 과정에서의 성폭력 피해 경험이 남한 사회 정착 이후의 가정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였고, 이주민여성 등 취약계층의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대응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 (예-특수 형광물질이 담긴 스프레이 등으로 가해자 모르게 가해사실을 표시) 및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경찰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하였음

○ 국제학술지 관련 활동

- 현재 Journal of Workplace Behavior Health의 editorial board member로 활동하고 있음

■ 남석인 교수

○ 국제학회/학술대회 활동

- 2021년 11월 개최된 노인학 분야에서 가장 큰 학회인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GSA)에서 “Feasibility study of a tablet-based intervention to enhance the meaning in life among older adults” 및 “Determinants of intention to use digital technology for older adults by environmental dimensions”라는 제목의 논문을 구두 발표하였음. 두 논문은 노인의 삶의 의미 증진과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포용적 주제를 담고 있으며, 융합연구라는 혁신적인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남석인 교수가 연구·개발한 <SMiLE 척도>, <SMiLE 노인집단상담>, <SMiLE중재 어플리케이션>의 효과성을 검증함. 이를 통해 전 세계 노년학 분야 학자들과의 협력적인 학문적 교류를 통하여 공동 연구 및 비교 연구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2022년 1월에는 Society for Social Work and Research (SSWR) 2022 Conference의 public policy and gender 세션에서 “Exploring patterns in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 and depression among older widows in Korea: a latent class approach” 연구를 구두발표함.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이 충분한 애도를 마치기도 전에 겪는 다양한 사회적 배제를 살펴보고, 이로 인한 우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음. 또한 다차원적 접근을 통하여 포용과 협력의 가치가 반영된 정책 및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음
- 2022년 5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BK21 FOUR 교육연구단,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 Global Social Work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for a Fair and Inclusive Society의 조직위원장을 맡아 전체적인 기획을 했으며, International scholars session의 session chair로 포용적 커뮤니티 구성에 대한 관점 및 방안에 대하여 세계 석학들과 논의하였음

- 2022년 6월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 & Geriatrics(IAGG) 2022 World Congress 에서 “A study on alcohol recidivism and smoking behavior after liver transplantation among recipients aged 50 years and older“ 연구를 발표하였음. 간 이식 수혜를 받은 후의 알코올 재발 및 흡연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동기 부여 가능한 의료사회복지적 개입의 필요성을 의료진과의 연구 협력을 통하여 강조하였음
- 2022년 10월 개최 예정인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Gerontechnology (ISG) 2022 World Congress에서 “Aging-friendly communities as a determinant of aging in place among older adults“ 연구의 발표가 초청됨. 고령친화적 커뮤니티 관점에서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을 탐색하고, 포용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예정임

□ 박수경 교수

○ 국제학회/학술대회 활동

- 2022년 1월에는 Society for Social Work and Research(SSWR) 2022 Conference에서 “What Factors Are Associated with Posttraumatic Growth Among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South Korea?“ 를 주제로 Eposter 방식으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였음. 해당 연구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외상후 성장요인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로서 중증장애 자녀의 양육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이 인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음.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어머니들의 외상후 성장에 공식적인 가족 서비스와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보여줌으로써 발달장애 가족을 위한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정책의 근거를 제공하였음. 또한, 해당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어머니들의 외상후 성장 요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본 연구는 동아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열악한 환경에 처한 대상자들의 외상후 성장요인 연구들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연구로의 의미가 있음
- 2022년 5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BK21 FOUR 교육연구단,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 Global Social Work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for a Fair and Inclusive Society에서 “The Possibility of Living Lab to Optimize Participation and Inclusion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연구를 발표하였음. 본 연구를 통해 고용시장에서 지적장애인들을 비롯한 발달장애인들의 고용에 걸림돌이 될만한 심리적 이슈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개입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포용적인 고용 환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송인한 교수

○ 국제학회/학술대회 활동

- 현재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 (Global Engagement & Empowerment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Director로 활동하고 있음. 2022년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열린 ‘Remember Our Promise: Leaving No One Behind’에서는 코로나로 야기된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상황을 진단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음. 같은 해 5월 30일 ‘When CSR Meets ESG Opportunities: What We Need To Know?’ 에 참여하여 CSR을 넘어 ESG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하였고, 7월7일 ‘Food Insecurity and Insight from WFP’에 참석하여 SDGs 달성을 향한 국제적 노력의 하나로서 세계적 식량 불안정 상황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파트너십 증진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였음
- 미국 최대 규모이며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학회인 미국보건학회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의 149차 연례학술대회에서 “The effect of employment security on suicide ideation: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function”, “Social exclusion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and wage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Longitudinal analysis of Korean disability panel data”, “Association between exposure to suicide events and suicidal ideation: Comparison among exposure to suicidal, non-suicidal, and no death” 의 세 가지 주제로 포스터 발표함

○ 국제학술지 관련 활동

- 세계적 권위의 학술 논문지인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을 비롯하여 <BMJ Sexual & Reproductive Health>,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INQUIRY> 및 <Social work in Health Care> 등 다양한 학술지에 심사위원 (reviewer)으로 참여하여 전 세계 보건 및 정신보건 관련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국제 협력 연구

- 2019년 연구년 활동부터 현재까지 리투아니아 국립 빌뉴스대학교 의과대학 Institute of Health Sciences의 Visiting Professor 및 미국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Visiting Scientist로 공동연구 진행 중임

□ 최수찬 교수

○ 국제학회/학술대회 활동

- 2021년 11월에 개최한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GSA) 2021 Annual Scientific Meeting에서 “Moderating Effects of Loneliness on COVID-19-Related Stress and Anxiety in Middle and Later Life in South Korea” 를 발표함. 2022년 1월에 개최한 SSWR 26th Annual Conference에서 “Stress Related to COVID-19, Anxiety and Resilience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를 발표하는 등 국제 학술활동에 다방면으로 참여하며 국제 연구 네트워크에 힘쓰고 있음

○ 국제학술지 관련 활동

- <Journal of Workplace Behavioral Health>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Journal of Workplace Behavioral Health>는 다양한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위기계층 근로자들을 포용하여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전 세계의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담아내고 혁신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학제간 협력을 견인하는 학술지로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음

② 국제 공동연구 실적

〈표 3-6〉 최근 1년간 국제 공동연구 실적

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 /소속기관	국제 공동연구 실적	DOI 번호/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소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국외 공동연구자			
1	송인환	Ichiro Kawachi	USA/ Harvard University, Boston	Lee, H. Y., Song, I. H., & Kawachi, I. (2022). Maternal and child social support and food availability in relation to child growth in four low-and middle-income countries. Scientific reports, 12(1), 1-10.	doi.org/10.1038/s41598-022-09850-1
2	송인환	Dong Hoon Lee	USA/ Harvard University, Boston	Ryu, J., Jeong, A., Min, J. H., Lee, D. H., Lee, J., Song, I. H., & Jeon, J. Y.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domain-specific physical activi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Korean adults: Analysis of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02(1), 428-434.	doi.org/10.1016/j.jad.2022.01.097
3	송인환	Philip Young P. Hong	USA/Loyola University Chicago, Chicago	Kim, Y. K., Jun, J. Y., Song, I. H., & Hong, P. Y. P. (2021). Factors Associated with Employment Hope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59(5), 180-196.	doi.org/10.1111/imig.12812
4	김재엽 박수정	Nicola Fear	UK/ King's College London, London	Kim, J. Y., Kim, J., Park, S., & Fear, N. (2021). Workplace victimization and alcohol misuse among junior military personnel: Mediating the role of anger.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94(1), 638-644.	doi.org/10.1016/j.jad.2021.07.010
6	김재엽 남보영	Charlotte Lyn Bright	USA/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Nam, B., Kim, J. Y., Bright, C. L., & Jang, D. (2022). Exposure to family violence, peer attachment, and adolescent-to-parent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7(7-8), NP4718-NP4739.	doi.org/10.1177/0886260520960109
7	남보영	Madeleine Newman Lisa Fedina Jordan DeVlyder Binta Alleyne-Green	USA/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USA/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USA/Fordham University USA/Fordham University	Newman, M., Fedina, L., Nam, B., DeVlyder, J., & Alleyne-Green, B. (2022). Associations between interpersonal violence, psychological di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formerly incarcerated men and wo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7(3-4), NP2338-NP2359.	doi.org/10.1177/0886260520933045
8	남보영	Jodi J. Frey Jordan DeVlyder	USA/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USA/Fordham University	Nam, B., Kim, J., Ryu, W., Kim, D. I., Frey, J. J., & DeVlyder, J. (2021). Perceived social stigma, self-concealment, and suicide risk among North Korean refugee women exposed to traumatic ev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51(6), 1235-1246.	doi.org/10.1111/sltb.12805

③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및 계획

신청서 기준 교육연구단의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계획

1	최정예 UMSSW 연구진과 본 대학원 연구진의 1:1 매칭교류
2	Handbook of Volunteering in Events, Sport and Tourism 공동저술 준비
3	Episodic Volunteering에 대한 Voluntas 특별호 게재 공동저술 준비
4	스위스 산재보험 공단(SUA)과 독일 직업조합(DG)와 지속적 교류를 통한 산재보험 발전 방안 연구
5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6	노인 삶의 의미에 대한 국제공동연구
7	통합적 자살모델의 국가간 비교
8	코로나19 사태가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성과 1

UMSSW 연구진과의 1:1 매칭교류 및 연구 세미나 진행

- 최정예 UMSSW 연구진과 본 대학원 연구진의 1:1 매칭 교류를 통해 학술교류 프로그램을 진행 중임. 이를 통해 2021년 2학기동안 2회의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본교 교수진과 UMSSW 연구진, 본교 학생들이 대담 형식으로 연구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공동 관심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음. 해당 학기에 진행된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2022학년도 2학기에는 3회의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임. 이를 통해 연구진과 학생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사회복지 안목을 키워나갈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남성인 교수와 매칭하여 학문적 관심 영역을 공유하고 있는 aging & home care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Joan Davitt 교수는 “Using Voice and Touchscreen Technology to Protect Vulnerable Clients in Residential Care Facilities” 을 주제로 사회복지 거주시설 내 취약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포토보이스와 터치스크린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소개함. Joan Davitt 교수는 거주시설에서의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사회복지사들이 전화와 야외에서의 방문, 시설 관계자에 의존해야 하는 등 더 이상 대면 접촉을 통한 개입이 어려웠음을 설명함. 이로 인해 보이스와 터치스크린 기기를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하였고, 파일럿 테스트의 진행 과정과 효과성 검증 연구 결과를 소개함. 클라이언트는 보이스와 터치스크린 기기를 사용하여 날씨와 뉴스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인터넷 검색과 정보를 접할 수 있었음. 또한 음악 감상, 비디오 시청을 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연락할 수 있었음. 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와 사회복지사들과도 기기를 통해 접촉할 수 있었음. 학생들은 Joan Davitt 교수의 특강을 통해 기기의 활용으로 인한 윤리적 고려

사항에 대한 민감성을 인지하는 한편,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양한 유용성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와 IT 기술이 결합된 혁신적인 융복합 실천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음

- Smart Decarceration 분야의 Caroline Long 교수는 재소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을 주제로 “Smart Decarceration: A Grand Challenge of Social Work” 특강을 진행함. Caroline Long 교수는 특강을 통해 사회복지 영역의 12가지 과제를 설명하면서 모든 유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건강 격차 해소, 가정폭력 방지, 장수, 노숙의 종결, 기후변화에 대한 창의적인 사회적 대비 등을 설명함. 이후 한국 사회에서의 개입이 필요한 과제를 질문하며 학생들에게는 한국의 사회복지 영역에서 시급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음. Caroline Long 교수는 앞서 제시한 12가지 과제 중 “재소자 줄이기”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함. 미국이 전 세계 중 재소자가 가장 많음을 이야기하며, 특히, 대학이 있는 지역인 매릴랜드 주의 재소자 수는 영국, 포르투갈, 캐나다 국가 전체의 재소자 수보다 더 많다는 통계를 제시함. 재소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흑인의 비율이 많은데, 재소자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이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재소자를 줄이는 것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주장함. 재소자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며, 재소자들의 인종, 경제, 건강문제를 법적 시스템으로 개입하고, 공공의 웰빙과 안전을 최대화하기 위해 실천현장과 학계의 협력이 필요함을 배울 수 있었음

성과 2

본 교육연구단 주최의 국제 학술 컨퍼런스 진행

○ 본 교육연구단 주최의 국제 학술 컨퍼런스 진행

- 2022학년도 1학기에는 본 대학원과 교육연구단의 주최로 5월 13일에서 16일까지 Global Social Work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for a Fair and Inclusive Society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함. 본 컨퍼런스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한국의 국내외 석학들과 BK 참여 학생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연구를 공유하고 활발한 토론이 진행됨. 컨퍼런스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한국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복지 현황을 점검하고 국제적인 협력에 기반한 혁신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음. 이번 컨퍼런스는 BK 참여 학생들의 국제적 시각을 넓히고 전문적 안목을 높이는 기회이자, 본 사업단의 지속적인 국제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음

성과 3

The Routledge Handbook of Volunteering in Events, Sport and Tourism 출판 / ‘Religion and Episodic Volunteering’ 연구 진행

○ 강철희 교수

- 강철희 교수는 The Palgrave Handbook of Global Philanthropy의 저자들과 함께 Handbook of Volunteering in Events, Sport and Tourism을 공동 저술하였으며, 2021년 11월에 출판되었음. 본 저서는 올림픽 등의 이벤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속성은 일반자원봉사자들과는 다를 수 있다는 인식에서 전 세계적으로 과연 그런 양상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연구들을 집합적으로 다룬 내용임
- 강철희 교수는 핀란드 University of Helsinki의 Henrietta Grönlund 교수 외 미국, 일본, 멕시코의 석학들과 『Religion and Episodic Volunteering』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저함. 해당 논문은 지속적인 양상이 아닌 일회적으로 혹은 가끔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의 장들을 비교 단위로 설정해서 전 세계적으로 과연 이런 시민들에게서 어떤 양

상이 파악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임. 해당 연구는 <Voluntary Sector Review>이라는 국제저명학술지에 출판될 예정임

성과 4

사회보험 및 사회제도 관련 연구 및 선진화 방안 모색

○ 김진수 교수

-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위탁을 받아 사학연금 재해보상에 있어서 예방·보상·재활의 체제 구축을 위하여 오스트리아 노동·사회법 연구소의 Prof.Dr Julia Eichinger 교수와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의 Dr, Christina Hiessl과 공동연구를 진행함
- 농업인안전보험 운영방식 선진화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여 진행 중임. 농업인 사회보험화 방안과 현 제도의 문제점 고찰을 위하여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의 Dr, Christina Hiessl과 공동연구를 진행함

성과 5

해외 석학들과의 협력을 통한 융복합 공동 연구 진행

○ 강철희 교수

-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가 최초로 출간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게재된 모든 논문 article에 대한 주제 분석 연구를 2022년 1월부터 진행 중임.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위의 논문 편집을 담당해 온 editors와 공동 연구 중임.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한 SSCI 논문집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간 어떤 topic들을 다뤘었고 그 trends가 어떠한지를 Structural Topic Modeling이란 분석 방법을 적용해서 밝혀보고자 함. 연구 완료 후에는 <Asian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에 게재될 예정임

○ 김재엽 교수

-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6년부터 수행된 한미특별협력사업 및 Global Network 사업을 통해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의 국제적 군사회복지 연구팀과의 학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음. 이를 기반으로 영국 King's college의 Nicola Fear 교수와 공동연구 진행하여 그 결과로 『Workplace victimization and alcohol misuse among junior military personnel: Mediating the role of anger』이라는 제목으로 연구 발표함

○ 남보영 교수

- 2022년 5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BK21 FOUR 교육연구단,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 Global Social Work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for a Fair and Inclusive Society에서 Preventing Violence Against Women 세션의 좌장을 맡아 발표와 토론을 이끌었음. 본 세션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에 대한 혁신을 논의하는 자리로 영국의 경찰, 교수, 연구자, UNODC-KOSTAT Center of Excellence, 국내 사법 및 경찰행정 전공 교수 등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 다학제간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였음. 본 학회 발표를 바탕으로 향후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혁신을 위한 국내 및 국제 연구 협력이 논의되고 있음
- 2022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영국의 리버풀 대학에서 개최된 Policing Domestic Abuse: Covid to VAWG에 초청되어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gender-based violence 위협과 영향에 대해 발

표함. 뿐만 아니라 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경찰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과 향후 공동 연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

○ 남석인 교수

- 남석인 교수가 연구·개발한 <SMiLE 척도>, <SMiLE 노인집단상담>, <SMiLE중재 어플리케이션> 등은 삶의 의미 증진을 목표로 하는 학문적 성과물로 벨기에 KU르우벤 대학교 Jessie Dezutter 교수팀 및 대만국립대학교의 Peishan Yang 교수팀과 협력적 관계를 통한 공동 연구 및 비교 연구를 논의 중임

○ 박수경 교수

- 박수경 교수는 국제 학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2022 SSWR에 참여할 계획이며, 2022 SSWR에 총 2편의 연구 결과에 대한 초록을 접수하였음. 이를 통해 국내 장애인 관련 연구를 국제학회에 알리고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임
- 이외에도 미국 College of Social Work I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교수로 재직 중인 Robert Hock 교수와 발달장애인 관련 국내와 미국의 연구 결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관련한 공동 논문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 송인한 교수

- 송인한 교수는 보건학,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분야의 해외 석학들과 지속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주제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보건학,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Interaction of Person-Affect-Cognition-Execution mode (I-PACE)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게임 사용 장애와 부정적 아동기 경험 그리고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음. 기존 연구는 주로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아동학대라는 협소한 개념을 활용하고 있으나, 본 논문은 이를 확장 시켜 가족 내 범죄자 존재 등을 포함하는 부정적 아동기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영향을 강조하여 혁신 가치를 반영하고 있음. 또한, 삶의 시작점으로서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과 정신건강을 다루어 공정과 포용의 가치를 반영하는 연구임
- 송인한 교수는 『Maternal and child social support and food availability in relation to child growth in four low-and middle-income countries』라는 논문을 공저하였음. 본 논문은 모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성장의 관계에서 식량 안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음. 본 연구는 저개발국가인 베트남, 에티오피아 국가 등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공정과 포용의 가치를 반영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과 한국의 우수한 대학에 소속된 저자들은 보건학, 사회복지학 등의 석학들과 함께 진행한 연구로 다학제적 관점에서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협력의 가치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음

성과 6

국내외 지자체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 진행

○ 송인한 교수

- 송인한 교수는 2019년 연구년 활동부터 현재까지 리투아니아 국립 빌뉴스대학 의과대학 Institute of Health Sciences의 Visiting Professor 및 미국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Visiting Scientist로 공동연구 진행 중임.

- 송인한 교수는 미국 최대 규모이며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학회인 미국보건학회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의 149차 연례학술대회에서 “The effect of employment security on suicide ideation: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function”, “Social exclusion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and wage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Longitudinal analysis of Korean disability panel data”, “Association between exposure to suicide events and suicidal ideation: Comparison among exposure to suicidal, non-suicidal, and no death” 의 세 가지 주제로 포스터 발표함. 송인한 교수는 해당 학회의 연례학술대회에서 매년 발표하며 전공 분야의 국외 석학들과 협력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음

성과 8

코로나가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제 협력 연구

○ 송인한 교수

- 송인한 교수는 현재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 (Global Engagement & Empowerment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Director로 활동하고 있음. 2022년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열린 ‘Remember Our Promise: Leaving No One Behind’에서는 코로나로 야기된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상황을 진단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음

○ 최수찬 교수

- 최수찬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를 진행 중임. 연구책임자인 캐나다 원저대학의 Jayashree Mohanty 교수를 비롯하여 미국, 싱가포르, 한국 등 4개국 연구자가 참여하는 Coping, Family, & Social Well-being during COVID-19: Cross-National Research on Families의 국제 비교 연구에 한국 측 대표 연구자로 참여하고 있음. 시도별 확진자 현황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한 서울, 경기,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1차 (1,000명), 2차 (1,000명) 설문조사를 실시함
- University of Wyoming의 Sukyung Yoon 교수와 코로나19가 한국의 아동, 가족, 노인, 근로자 등 다양한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동 연구를 진행 중임. 2021년 11월 미국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GSA) Annual Scientific Meeting에서 “Moderating Effects of Loneliness on COVID-19-Related Stress and Anxiety in Middle and Later Life in South Korea” 연구를, 2022년 1월 미국 SSWR 26th Annual Conference에서 “Stress Related to COVID-19, Anxiety and Resilience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연구를 포스터 발표함. 또한, 두 교수의 공동 연구인 『Stress-related to COVID-19, anxiety, and protective factors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in the largest outbreak areas in South Korea』 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2021년 12월 Aging & Mental Health 저널에 온라인 게재하고, 『The Impact of Stress Related to COVID-19 on Anxiety: The Role of Loneliness』 제목의 논문을 Health &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저널에 투고하는 등 국제 연구자와의 협력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임

□ 계획

-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 교수들은 최정예 UMSSW 연구진과의 연구 매칭 네트워크를 3년째 공고히 이어오고 있음. 특히 2022년에는 두 학교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캐나다, 미국, 영국, 중국, 한국 연구진들의 연구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음. 또한, 금번 컨퍼런스를 통해 상호 연구 발표를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하면서 공동 연구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공동 연구의 초점을 보다 좁혀나가는 기회가 되었음. UMSSW와의 연구 네트워크는 정기적인 특강과 더불어 공동 컨퍼런스, 공동 연구 진행 등의 방법으로 지속해서 이어나갈 것임
-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 교수들은 UMSSW와의 연구 네트워크 외에도 관심 연구 영역과 관련한 다양한 전공의 해외 석학들과 공동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임. 단기적인 공동연구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네트워크 및 공동연구의 영역을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오랜 연구 파트너십을 유지하여 국내의 현황을 알리고, 국제 상황과 비교하여 국내 사회복지 영역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연구를 이어갈 예정임
- 코로나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국제학술대회 참여를 통해 해외 석학들과의 직접적인 교류 및 연구 네트워크 형성 및 확장에 힘쓸 예정임. 이를 통해 기존에 구축되어 유지하고 있는 연구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것 이외에도 새로운 연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갈 계획임